

50년 외길 걸은 원광식 주철장
"종소리는 내 화두
깨달음의 길이죠"
16·17면


#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4월 13일) · 주간

제941호 2013년 5월 22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원각경〉

헛것인 줄 알았으면 떠나라.
헛것에서 떠나면
그것이 곧 해탈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불기 2557년 봉축 법요식을 열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렸다.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요식에서는 청소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난민 외국인 부부 등이 나서서 헌화와 헌촉을 해 이웃의 의미를 더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봉축사를 통해 이웃과 함께 하는 불교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 "손을 잡고 행복의 길에 동행합시다"

## 조계종,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봉행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법요식이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3천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열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렸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봉축 법어를 통해 간화선 생활화로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길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건지는 큰 서원을 세웠다"며 "만 중생을 고해에서 건지리라는 대서원이었으니 우리 모든 불자들이 따르고 생활화해야 할 표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갚으려면 일체 중생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 아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생활 속에 참나를 찾아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참선을 생활화해 인류의 정신문화를 선도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등국가가 되고 일등국민이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봉축사에서 이웃을 부처로 모시고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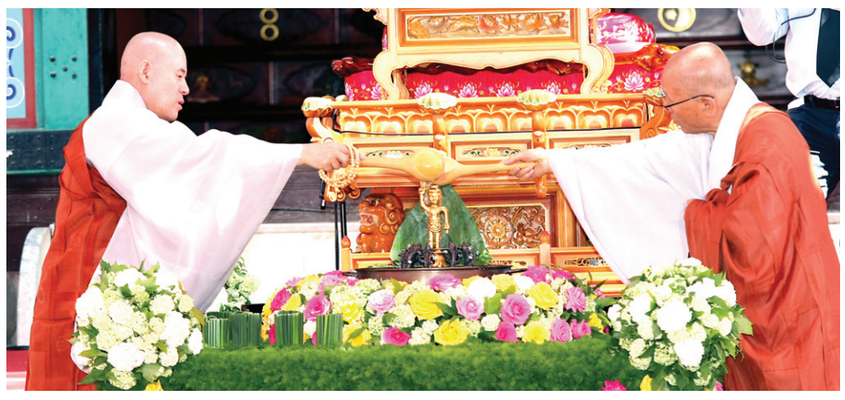
자승 스님은 "오늘 부처님 오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으뜸으로 받들어야 할 가치는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며 "하늘이 있어 땅이 있고, 땅이 있어 하늘이 있다. 농부와 노동자의 정성이 있기에 사람은 밥을 먹고 아름다운 정신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밝혔다.

농민, 노동자, 청년, 노인 등이 모두 제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발원한 스님은 "이웃을 부처로 모시는 일이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길 바란다. 중생을 떠난 부처는 없으며 고통의 사바세계를 제도함이 바로 정토세계를 구현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연대와 협력의 손을 잡고 평화와 행복의 길에 동행하자"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자타불이'의 정신을 국정 운영 철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진제 스님, 간화선 통해**
**정신문화 선도 국가 당부**

**이웃과 함께하는 삶 위해**
**장애우, 노동자들 꽃 올려**
**朴대통령 "자타불이 국정 반영"**



조계종 원로회의장 밀운 스님(오른쪽)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관불의식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부처님께서는 '각각의 다른 맛을 가진 수많은 강물도 바다에 들어오면 한 가지 맛이 된다' 고 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 처지와 생각은 다르다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큰 바다 안에서 가족처럼 화합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역사에서 민족정신의 구심이었던 불교가 다시 한 번 화합의 중심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부도 자타불이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온 국민이 화합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봉축 법요식에서 헌향, 헌화에는 이숙희 청소노동자, 우다야 라이 이주 노동자,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최형숙 두리모 센터 대표, 김미 · 술라이 난민부부 등이 참석해 이웃과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의 참뜻을 되새겼다.

한편, 이날 법요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 등 종단 지도부 스님들과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관계 인사,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이웃종교인, 우뉜 흘라잉 미얀마 대상 등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했다.

글= 신중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부처님오신날 봉축시

## 초파일

홍 사 성

부처님 오신 날 밤
조계사로 봉축 꽃등 달러 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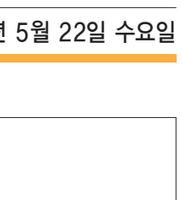
붉은 등 노란 등 파란 등 하얀 등
가슴 설레게 환하네

구경나온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들이 극락 온 듯 즐거워하네

파란 눈 아가씨 코 큰 총각
곱슬머리 아저씨들은 더 좋아하네

모두모두 부처님처럼 웃네

내년에는 다리 아픈 고양이
배고픈 강아지도 함께 웃었으면 좋겠네



〈시인, 불교평론 편집인〉

# "현행 제도로는 승려복지 성공 안돼"

## 쇄신위, 승려복지 개선 좌담회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스님, 원로회의 의장)는 5월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승려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현재 종단의 제도와 승려복지회 구조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승려복지를 총괄하는 승려복지회가 재가자 국장 1명과 파견직 종무원 1명 등 모두 2명의 상근인력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승려복지가 자리 잡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총무원 특정부서 산하에 승려복지국 등으로 위상을 높여 종무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승려복지 예산을 종단 및 교구 예산에 포함해 함께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시금을 받는 스님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종단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좌담회에는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종훈스님, 이용권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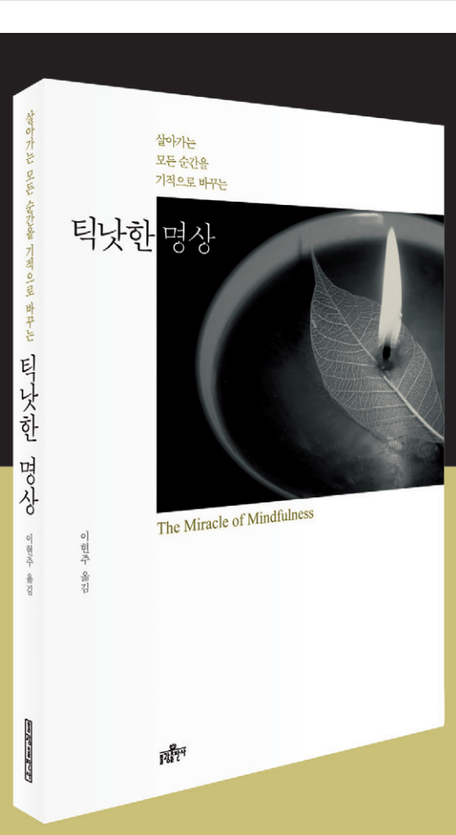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941호 INDEX


5월 가정의 달에 새기는 부처님 말씀 2
종합 3
연등회 세계 축제 '발돋움'
인천공항 연등 설치 허용
차별금지법 제정 호소 잇달아
틱낫한 스님 방한 특집 5
함께가요 강의실 8
현각 스님 동국대 법회
학술 · 문화재 9
'약사여래' 국제세미나 열린다






The Miracle of Mindfulness

먹고, 걷고, 일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게 하는
틱낫한 스님 명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틱낫한 명상

이현주 옮김 | 160쪽 | 11,000원

1995년 최초 한국어판 출간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진정한 성찰과 감동을 전해온 틱낫한 스님의 대표 명상 책

유나방송 정목 스님 추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마치 관찰 수행 같기만 합니다. '출렁이는 물결도 물이듯이 어지러워진 마음도 역시 마음이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들 수 있을 때 미혹된 마음이 참마음으로 바뀐다'는 그 말씀 되새기며, 스님 책이 많은 이의 미혹된 마음을 참마음으로 바꾸어놓기를 기대합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사신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이며**

**모두 너의 마음 안에 있으니,**

**결과는 모든 희망과 의심 너머에 있으리니.**

부처의 결지는 저 멀리에 있는 것, 다다를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인 공성이 다름 아닌 진신, 법신입니다.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인 명료한 앎은 수용신인 보신입니다. 그리고 이 삼신 안에 내재돼 있는 하나의 모습이 자성신입니다.

이러한 붓다의 네 가지 신체와 차원은 항상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이 아주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가 찾아오더라도 매일 정기적으로 수행하십시오. 생각의 흐름을 잘 관찰하고, 그 생각이 일어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막 명상을 시작한 사람이 밤낮으로 집중을 유지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의 본성에 관한 명상을 시작할 때 짧게 여러 번에 나누어 하는 것을 권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보면 점진적으로 마음의 본성을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의 상태는 점점 더 동요하지 않는 확고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당신을 괴롭히고 노예로 만들었던 생각들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 5월은 가정의 달… 부처님은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 "부모에게 효순하되 시기 놓치지 말라"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달에는 어린이, 어버이, 스승, 부부의 날이 모두 담겨 있다. 가족과 스승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들이지만, 현대 한국사회는 이 같은 관계들이 붕괴되고 있다. 부처님 말씀을 통해 가족·사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부모는 자녀에게**

첫째,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 뒤를 보살피되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식에게 빚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때를 맞추어 결혼시켜 주어야 한다. 다섯째, 재물을 물려주어야 한다.

중아함 33권 《선생경》

부처님은 아들 라훌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듯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즉 '이 일이 깨끗하고 옳은 일인가' 를 살펴야 한다. 그리하여 착한 일은 행할 것이며 악한 일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행동을 이렇게 한다면 너는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중아함 3권 《나운경》

**자녀는 부모에게**

자식은 오사(五事)로서 부모를 대해야 한다. 첫째, 부모의 재물이 불어나게 해야 한다. 둘째, 부모를 대신해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 셋째,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넷째, 불손하게 뜻을 어기지 않는다. 다섯째,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 중아함 33권 《선생경》

부모가 병들었을 때에는, 자식들은 각기 방편을 구하여 다방면으로 치료해서 병고를 빨리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온몸이 경쾌하고 편안하며 체력이 견고해져서 수명이 길어지도록 해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이 몸이 세상에 있는 것은 부모의 생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부모의 은혜는 지중하다.

《부모출생경》

음식이나 진기한 보물만으로는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 부모를 인도하여 바른 가르침(政法)으로 향하게 해야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된다. 《부사의광경》

부처님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천년만년 의복과 음식과 평상과 침구와 의약을 풍족하게 공양했다고 하자. 또 그 부모가 어깨 위에서 오줌과 똥을 누더라도 자식은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이다. 부모의 은혜는 너무나 지중하다. 우리를 안아주고 길러주고 때때로 보살펴주기를 쉬지 않은 까닭에 우리가 저 해와 달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공양하고 효순하되 그 시기를 놓치지 말라.

증일아함 11권 《선지식품》

**남편은 아내에게**

첫째, 아내를 어여삐 여겨야 한다. 둘째,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셋째, 장신구를 해주어야 한다. 넷째, 집안일을 맡기고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아내의 친족들에게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중아함 33권 《선생경》

**아내는 남편에게**

첫째,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둘째, 일가친척을 잘 거두어야 한다. 셋째, 공손한 말씨를 써야 한다. 넷째, 남편이 돌아오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 다섯째,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해야 한다. 중아함 33권 《선생경》

**스승의 도리**

첫째, 기술을 잘 가르쳐야 한다. 둘째, 빨리 가르쳐야 한다. 셋째, 아는 것을 다 가르쳐야 한다. 넷째, 좋은 곳으로 나가게 해야 한다. 다섯째, 좋은 벗을 사귀도록 가르쳐야 한다. 중아함 33권 《선생경》

**제자의 도리**

첫째,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둘째, 가르침을 잘 받들고 따라야 한다. 셋째, 일찍 일어나 배움을 청해야 한다. 넷째,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스승의 명예를 빛내야 한다.

중아함 33권 《선생경》

발췌-〈잘사는 법 99〉/ 최정희, 우리출판사

### 스승님 전상서

## 광우 스님께 제자 정목 합장



스승 광우 스님(사진 오른쪽)과 제자 정목 스님(유나방송 진행자)이 정각사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 "경건하신 구도자…은혜에 머리 조아립니다"

"그 옛날 진정한 진리가 어떤 것인지 묻는 깔라마인에게 부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 정과 사를 담구함에 있어서 몇 가지 피해야 할 것이 있다. 전적으로 전통에 의지하는 것은 정당하게 선악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 들려주는 정보나, 혹은 바람 타고 온 소문, 그리고 경전의 권위 때문에,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하여, 그럴듯한 추론 때문에, 혹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따라서는 안 된다.**

20대 시절 제 은사스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이야기는 제가 수행자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방향을 정해주고, 젊은 구도자였던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은사스님은 참으로 타고난 법사이셨습니다. 저는 법회 때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법상 아래 눈을 반짝이며 앉아 있었고, 그때 들었던 경전의 말씀들은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되었지요. 법문을 듣고 있으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제가 마치 사위성 기원정사에 앉아 직접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만큼 현장감이 있었습니다.

감정까지 넣고 표정을 살려 하시는 은사스님의 법문은 사람들을 한 말씀, 한 말씀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도록 하는 커다란 환희심과 신심의 결정체였습니다. 어찌 그렇게 많은 경전의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봐도 스님은 참으로 무궁무진 법문의 보고(寶庫)이셨습니다.

밤늦게 방문을 열어보면 스님을 늘 남전대장경 같은 두꺼운 경전들을 펼쳐놓고 삼매에 빠지신 듯 공부를 하고 계셨지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스님 모습을 보기만 하며 살아서 그런지 스님을 떠올리면 저는 늘 공부하시는 모습만 기억납니다.

또한 은사스님은 그 시절 막 불교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있던 제게 염불 한 구절도 뜻을 모르고 읽거나 독송하면 신심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시며 낱낱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나이 어린 햇중이던 저는 그렇게 은사스님이 해 주시는 염불 지도나 경전 해석에 감격해서 자주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홀연 〈법화경〉의 십여시가 글자로서가 아니라 뼈에 사무치듯 체험으로 와 닿는 경험을 하고 뛸 뜻이 기뻐 웃다가 울다가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인도 성지 순례에서 스님은 붓다가야의 인도 스님으로부터 보리수 가지 하나를 선물 받으셨습니다. 순례 중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을 들여 모시고 온 그 보리수나무는 지금 정각사에서 제법 큰 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듯 보리수나무에게 사랑과 정성을 다 바치시는 스님 모습은 거룩하고 경건한 구도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강 같은 세월은 흐르고 흘러, 이제 스님의 세수 또한 녹록치 않으시어 옛날의 그 기개는 봄눈처럼 녹아버리셨습니다. 세상 모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자식 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아이가 되듯 이제 은사스님 또한 제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연세가 되신 것입니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함께하지 못하는 불초 제자의 모자람을 이렇게 글로나마 뉘우쳐 보며 새삼 은사스님의 은혜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에서 발췌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 (사) 대 선 불 교 조 계 종

초대종정 **법왕 동산 대종사**
2대종정 **덕진 진일 대종사**
부 종 정 **적연 운암 대종사**

총무원장 **현묵 혜승** 종회의장 **현숙 법희** 포교원장 **적공 현덕** 감사원장 **대경** 교육원장 **도현**
재무부장 **보각** 교육부장 **도응** 사회부장 **영각** 사서실장 **대안** 포교부장 **도승**
종회사무국장 **법성**
종회의원 **도만. 경성. 도경. 보현. 보성. 보혜. 보찬 .도광. 혜성.**
법사회장 **법산**(신동호)
법 사 **덕양**(서재원) **학산**(김대철) **덕산**(심규봉) **남산**(문동식) **덕연**(황우연) **거산**(김금석)
**광덕**(문도순) **자장심**(예미혜) **송천**(김문한)
신도회총무 **보리심**(신순임)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나갈 대덕큰스님, 법사님들을 입종을 환영합니다




4월 12일 봉행된 제2대 종정·부종정 이취임식 대법회

초대종정사찰 : 대구 중구 대봉동 590-433 (011-532-3157)
종정주석사찰 : 대구 남구 대명2동 2040-3 (011-529-3132)

■ 총무원 : 인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64번지 마니사 / 전화 032)937-5579 총무원장 : 010-3190-5767

# 연등회, 세계 축제로 '발돋움'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한 연등회 연등축제가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종로와 조계사 일대에서 열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이후 2번째로 열린 연등회는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명실 상부하게 자리잡았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봉축위)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연등회를 찾은 내·외국인은 약 30만 명으로 이중 외국인은 3만 5천명이 참석했다. 남북관계 악화로 외국인 참가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봉축위의 설명이다.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11일 제등행렬에는 예년보다 행렬등의 수가 늘었다. 이날 제등행렬에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의 불자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한국관광공사의 주관으로 400여명의 외국인들이 직접 등을 만들어 제등 행렬에 처음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린 어울림마당에는 '함성과 감동의 한마당'을 주제로 3만여 사부대중들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관불의식에 이어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연등회 개회사를 통해 "이 땅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지상정토로 일구라는 것이 부처님이 부촉하신 사명"이라며 "지혜와 자비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땅을 만들어가기 위해 실천해가자"고 말했다.

이어 전 대중들은 발원문을 통해 국가와 인종, 종교, 지역, 이념을 넘은 행복과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를 발원했다.

특히 이번 연등회에서는 처음 결성된 '연등회 서포터즈'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지난 4월 3일 대한불교청년회의 주최로 발족한 서포터즈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독일, 프랑스, 베트남 등 20개 국가에서 온 76명의 젊은이들이 참여했다.

그간 언어 통역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서포터즈는 다양한 연등회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됐다.

12일 열린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은 예년보다 다채로움을 자랑했다. 전통자개체험, 단청체험, 쪽빛 물들이기, 매듭팔찌 만들기, 닥종이인형 만들기, 토우 부처님 만들기, 한지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새로 선보여져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제불교마당에서는 인도를 비롯해 티베트 네팔 스리랑카 부탄 태국 대만 캄보디아 불교를 소개하는 부스가 마련됐다.

또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여 개의 부스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번 연등회에 대해 박상희 봉축위 팀장은 "연등회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품격에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한국연등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행렬 등을 늘렸다. 앞으로도 자발적 참여를 연등회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등회 서포터즈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 향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서 주요내외빈이 제등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5월 10~12일 종로 일원서**
**10만 연등 물결 수놓아**
**내·외국인 30만 명 참가**
**외국인 400명 등제작…행렬 참여**

**서포터즈 활약 기대 이상**
**문화마당 부스 다양해져**



12일 열린 전통문화마당에서 어린이가 연꽃 채색 체험을 하고있다.

# 인천공항에 봉축 연등 '감은사지 燈' 밝혀

**'종교시설물 NO' 입장에 백기**
**조계사 15일 항의 법회 등**
**성토 잇달아… 장엄등 허용**



인천국제공항 밀레니엄홀에 설치된 연등회 전통등 '감은사지 삼층석탑 등'. 5월 17~23일까지 불을 밝힌다.

인천국제공항에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설치가 허용됐다. 조계사 사부대중의 항의 법회가 진행된지 꼭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인천공항공사 최홍열 영업본부장은 5월 16일 조계종 문화부를 방문해 "인천국제공항에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한국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연등을 설치해달라는 연등회 보존위원회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는 연등회 전통등인 '감은사지 삼층석탑 등'이 설치됐으며, 부처님오신날인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밀레니엄 홀에 불 밝히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도문)는 5월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출국장에서 항의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항의 법회에서 조계사 대중은 이날 항의 법회에서 조계사 대중은 "중요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된 연등회는 오랜 전통을 지닌 우리의 전통문화행사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통등(燈)을 전시하고자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보호재단과 협의 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설치 제안서를 보냈지만 '특정종교 시설물 설치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한 바 있어 종교편향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가 인정한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종교편향적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인천공항 측은 "크리스마스 점등식은 공항 면세점 행사로 마련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차별금지법은 제정돼야 한다"

**재가연대 · 대불청 · 대불련, 차별금지법 제정 호소 연이어**

김한길 · 최원식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법안 철회로 인해 제정 무산 위기에 놓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불교계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지연)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차별금지법을 통해 모든 차별을 없애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입법예고까지 끝난 당연히 입법되어야할 법안이 다른 누구도 아닌 법안 발의자에 의해 발의 자체가 철회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또 "차별금지법 제정은 대통령 조차도 인수위 시절 국정과제로 내세울 만큼 시대적 흐름"이라며 "제1야당 이라고 자처하는 정당에서 앞장서서 국가전체의 이익은 무시하고 일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는 5월 7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동참을 호소한다'는 제하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재가연대는 호소문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신앙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한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누구의 신앙.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알고 싶다"고 비판했다.

재가연대는 "차별은 집단의 광기와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것을 조장하는 비민주적인 행위인만큼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중일 · 이나은 기자**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논한다

**불교생명윤리協, 24일 특별세미나**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법응, 박광서)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이도흠)가 5월 24일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이철기 교수(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관계학)가 '평화협정의 대두 배경과 가능성'을,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가 '김정은 체제의 대외전략 변화와 동아시아 질서: 평화의 출구전략'을, 김재명 교수(성공회대 교양학부)가 '여성의 관점에서 본 전쟁의 참상과 한반도 평화론'을 주제로 발제한다.

논평자로는 김용현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주장환 교수(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중국학과),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이 참여한다. **신중일 기자**

# "출가상담 스님을 찾습니다"

**교육원, 상담사 공고**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출가사이트(http://monk.buddhism.or.kr)에서 출가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출가상담사'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비구, 비구니 상담사 각 1명으로 소정의 상담지원비가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비구 법계 중덕, 비구니 법계 정덕 이상의 스님으로 상담사 자격증이 있거나, 종단과 교구본사에서 종무행정과 전법활동 경험이 있어 상담능력이 인정이 되는 스님이어야 한다.

원서접수는 13일부터 3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tstguy@buddhism.or.kr)로 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6월 4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5월 8일자(제939호) 별지의 대행선사 1주기 추모 특집에서 별지 B1면 하단의 대행선사 탑 시안을 맡은 전장일 화백 기사 내용 중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홍창원 단청장에게 사사했다는 내용은 기자의 실수로 오보**이며, **제118호 불화장 성함을 소개한 것도 전 화백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 게재**된 것으로 이에 바로 잡습니다.





대행 큰스님 원적 1주기 기념 출판!

대행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

각고의 고행, 치열한 수행정진, 동체대비심의 무애행과 자애로운 보살행을 보여준 이 시대의 참된 대승보살!
독창적인 선사상과 수행 체계를 세우고, 참선수행의 대중화, 보편화, 현대화를 이끈 시대의 큰 스승!

나라는 경계가 있다면 아직도 죽지 못한 것,
상대가 어떻게 행하여도 모두가 주인공 나툼일 뿐이다.
모두가 주인공!

慧禪 저/신국판양장/624쪽/28,000원

한마음과 대행 禪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하는 한마음인 것이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일 주 문



### 제29대 진각종 통리원장 취임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5월 21일 서울 진각문화전승관에서 제29대 통리원장으로 취임했다.



### 인드라망 남원귀농학교 모집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6월 30일까지 2013년도 남원귀동귀촌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063)636-4325



### 스리랑카 축제 법문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6월 23일 스리랑카 아눌라다프라 미힌탈레 사찰 축제에서 법문한다.



### 수리수리 마왕콘서트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6월 15~16일 마곡사 일대에서 템플스테이 수리수리 마왕콘서트를 개최한다.
(041)841-6226



### 쌍계사 해동 범패 시연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5월 19일 경내 팔영루에서 해동범패 시연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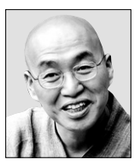
### 제1차 선운사 초기불교 강좌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5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제1차 선운사 초기불교 열린강좌를 개최한다.
(063)561-1475



### 부산지방경찰청 경승 위촉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5월 14일 부산지방경찰청 경승실에서 열린 신임 경승 임명식에서 경승으로 위촉됐다.



### 2013동북아역사대장정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6월 2일까지 중국 동북 3성 일대 유적을 탐방하는 2013동북아역사대장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02)587-8911



### 공불련 13회 합동수계법회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6월 8~9일 김제 금산사에서 제13차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다.



### 제6회 조경희수필문학상 수상

수필가 맹난자 씨는 수필 '주역에게 길을 묻다'로 5월 18일 서울 포니정홀에서 제6회 조경희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 "불법 읽으며 韓·日 가까워 지길"

## 〈석보상절〉 일역 완간한 가와세 유키오 씨



**한국 불교 공부 위해 2003년 방한**
**〈석보상절〉 접하고 환희심 느껴**
**일본 불교 변화 위해 번역 결심**
**10년간 하루 10시간씩 용맹 정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간행되는 '가나가와 신문'(神奈川新聞)은 4월 21일자 신문 사회면에 한 노학자의 일화를 소개했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교사 출신 불교학자가 10년 동안의 연구 끝에 〈석보상절(釋譜詳節)〉 전 3권을 일본어로 번역 출판했다는 기사였다.

이 일화의 주인공은 가와세 유키오(河瀨幸夫, 69세 · 사진)씨. 일본 요코수카학원 고등학교에서 정년퇴임한 가와세 유키오 씨는 2003년 한국 유학을 택했다. 결혼을 앞둔 세 딸이 있었지만 그의 열정은 대단했다. 와세다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전공한 그는 한국불교사를 공부하고자 했다.

"일본에서 불교는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모시기 위한 수단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스님들이 존경받는 이유를 알기 위해 한국불교를 공부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을 선택한 그가 우연히 접한 〈석보상절〉 번역은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됐다.

"〈석보상절〉을 보는 순간 이것은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을 전하는 최고의 불교작품일 뿐만 아니라 15세기 동아시아 지역 불교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장경을 요약한 이 책을 보며 기복으로 변질된 일본불교인들이 신앙생활이 변화하길 바랐습니다."

〈석보상절〉은 조선 세종 당시 수양대군이 왕명을 받아 1446년 사망한 세종의 비 소헌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석가모니부처님 일대기와 〈법화경〉, 〈지장경〉, 〈아미타경〉, 〈열반경〉 등에서 주내용을 간추려 한글로 편찬한 책이다.

가와세 씨는 2007년까지 5년간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박사과정까지 수료하고 곧바로 일본으로 가 〈석보상절〉 번역에 매달렸다. 가와세 씨는 하루 10시간씩 번역에 매달려 2010년 상권, 2011년 하권을 출간했다. 가와세 씨는 일본인 특유의 꼼꼼함으로 〈석보상절〉의 누락된 부분을 〈월인석보〉와 조선왕조실록의 석보상절 관련 내용 등을 참조해 수록했다.

가와세 씨는 "석보상절 중권 발간을 뒤로 미룬 것은 중권 주내용인 〈법화경〉 공부를 위해서였다"며 "한국 스님의 계율과 수행생활을 소개하는 책도 집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문이 아닌 한글로 된 경전과 문학집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큰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석보상절〉이 한일 양국 불교가 더욱 가까워지는 가교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공간+공감…어르신 문화교육 場으로

## 서울노인복지센터 6대 관장 희유 스님



**리모델링 마친 서울노인복지센터**
**미술관 · 도서관 · 영화관 등 개설**

"공간(space)에 공감(empathy)을 더해 어르신을 위한 문화 · 교육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부터 4월 21일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가 갤러리 · 도서관 등 문화공간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가간다. 또 취업훈련센터와 직업능력학교, 건강교실 등 전문교육공간을 만들어 활기찬 노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5월 7일 관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3년 연간 사업일정을 소개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제6대 관장으로 취임한 희유 스님은 "그동안 어르신들이 주로 식사만 하던 공간을 갤러리와 도서관, 영화관으로 꾸며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본관 1층에는 탑골미술관과 탑골작은도서관을, 2층에는 탑골영화관을 마련했다.

탑골미술관은 5월 16일 개관기념전 '춘(春), 익숙한 것을 되돌아 봄'을 시작으로, 7월 '대학생 공모사업 본선진출작 특별전'과 '세대가 함께 만드는 종이 놀이터' 등 다채로운 전시를 준비해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이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인작가와 청년 신인작가 등에게도 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다.

탑골작은도서관은 도서관축제와 연극이 있는 낭독 공연,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로 어르신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탑골영화관에서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매년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는 '서울노인영화제' 수상작품을 주제별로 상영하고 있으며 '영화로 보는 인문강좌' 등 특별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 어르신의 취미와 열정, 사회공헌이라는 문화를 일자리와 연결시켜 탑골훈장, 실버VJ, 실버도슨트(미술관해설사), 또래지킴이(상담)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내일행복학교'를 통해 △도슨트 · 바리스타 교육과정 △개인별 맞춤 창업 아이템 지원하는 '창업아카데미'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아카데미' △노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노년설계아카데미' 등도 제공한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장을 역임한 희유 스님은 "노인이면 누구나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일반 어르신들은 물론 장애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대상의 우대정책 시행, 청각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 "마음기부의 기쁨 적극 알릴 것"

### 장기기증 희망등록한 가수 장미화 씨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오른쪽)과 장미화씨

'안녕하세요'를 불렀던 인기가수 장미화 씨가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에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했다. 장미화 씨는 5월 10일 남양주시 봉축법요식에서 축하공연을 한 후 이어서 열린 문화행사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에 동참했다.

장미화 씨는 "선행은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양쪽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며 "장기기증희망등록의 기쁨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일면 스님은 "장기기증희망등록은 실기증의 부담이 없는 일종의 마음기부"라며 "장미화 씨처럼 간단하게 서약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홍보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장미화 씨는 직접 바자회에 개인 물품을 후원하고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후원했다. **이나은 기자**

## 교정대상에 법장 스님, 최숙희 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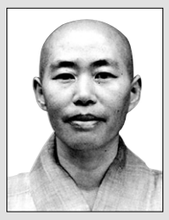


법장 스님과 불자 최숙희 씨가 제31회 교정대상을 수상했다.

5월 16일 법무부가 후원하고 서울신문, 한국방송이 주최하는 제31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법장 스님(삼보종 총무원장, 김해중부서 경승)과 최숙희 불자(뜨락화원 대표, 서울구치소 교정위원)가 교정위원 자비상을 수상했다.

법장 스님은 24년간 수용자 교정교화와 지역사회 봉사, 청소년 장학기금 조성 등을 펼쳐왔다. 함께 자비상을 수상한 김숙희 불자는 29년간 꾸준한 불교봉사와 서울구치소 교화활동을 진행했다. 31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서는 교정공무원 6명과 교정위원 10명에 대한 교정대상이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 인디포럼 '올해의 얼굴'에 지율 스님



인디포럼2013 '올해의 얼굴'상에 4대강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을 연출한 지율 스님이 선정됐다.

(사)인디포럼 작가회의는 2007년부터 매 해 독립영화 정신을 가장 밀도 높게 구현한 인물에게 '올해의 얼굴상'을 수여하고 있다.

인디포럼은 5월 16일 "지율 스님의 말씀처럼 4대강 문제는 결국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던 한국 국민들 모두의 몫"이라며 "삶과 카메라의 관계, 그 영화적 시간을 투명하게 사유하는 것이 독립영화의 정신"이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보다 자신을 지배하는 자가 진정 더 위대하다. 〈법구경〉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성파 대종사

원로원 의 장 법륜 총 무 원 장 혜륜 중앙종회의장 보광
원로원 부의장 일조 실 · 부 장 중앙종회부의장 도성. 승헌
원로의원일동 임직원일동 중앙종회의원 일동

지방교구종무원
부산교구종무원(원장 지암) 경북교구종무원(원장 도광) 마산교구종무원(원장 법산)
강원교구종무원(원장 암현) 충북교구종무원(원장 도수) 동해교구종무원(원장 현담)
경주교구종무원(원장 광래) 제주교구종무원(원장 관효) 창녕교구종무원(원장 법원)
전라교구종무원(원장 복규) 통영교구종무원(원장 영담) 등 일동

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일동

■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1가 11-73번지
전화 02)762-2678 전송 747-5044

나를 알아가며
원을 이루게 하는
수행 기도도량!

禪大韓佛敎 曹溪宗

깨달음최초 부처님이 모셔진 곳!

괴로움을 없애는 절...
苦고 解해 寺사

주지 도 경
부산신도 일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73번지
전화 : (02) 959 - 1825
FAX : (02) 962 - 3467

해동일광사

회주 능 견

사부대중일동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247
TEL 051)508-7795
홈페이지 : 해동일광사



5월 13일 잠실 체육관에서 열린 '멈춤 그리고 치유' 주제 대중강연에서 틱낫한 스님과 플럼빌리지 법사단이 챈팅을 하고 있다. 스님은 이날 설법으로 15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 "내면의 자비가 고통 치유의 근원"

### 틱낫한 스님, 13일 잠실 설법
### 2만여 대중 숨죽여 경청


틱낫한 스님이 2만여 대중에게 설법하고 있다. 이날 법회에서 스님은 남북문제는 핵무기가 아니라 두려움에 있으며 서로가 고통을 들여다 봐야한다고 역설했다. 법문 통역은 혜민 스님이 맡았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면의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를 보고 들으려 할 때 치유도 시작됩니다. 우리 내면의 자비가 모든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근원입니다."

단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의 틱낫한 스님의 법문이 흐른다. 2만여 대중은 숨을 죽였다.

5월 13일 잠실 체육관에서 열린 틱낫한 스님의 대중 설법. '멈춤 그리고 치유'를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는 15일 간의 틱낫한 스님 방한 일정의 대미였다. 그만큼 참가한 사부대중의 기대도 남달랐다.

강연에 앞서 성우 스님(불교TV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1년 6개월의 준비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참석한 분들이 세계적 석학 틱낫한 스님의 원력과 자비를 마음껏 마음속에 담아가길 빈다"고 밝혔다.

플럼빌리지 법사단의 유도명상과 예불이 진행되고, 이윽고 틱낫한 스님이 법상에 올랐다. 스님은 "'나무관세음 보살'을 함께 독송함으로써 고통을 치유하는 것으로 법회를 시작하겠다"며 "여럿이 함께하는 독송에 깃든 자비한 기운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 줄테니, 내 옆, 앞, 뒤에 있는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전 세계인들의 고통을 아우르는 마음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기간 동안 총 3만여 명과 만난 틱낫한 스님의 설법 핵심은 '치유, 상생, 행복'으로 요약된다. 현재 깨어있음으로써 마음챙김을 하면 내적으로 괴로움을 감쌀 수 있는 힘이 생겨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고통까지 치유할 수 있다는 것. 즉, 서로 행복해지기 위해선 마음챙김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날 법문 또한 "불교가 남북한의 화해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관계가 비뚤어졌을 때 한쪽만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 남북문제의 핵심은 핵무기가아니라 우리 안의 두려움과 화"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부처님이 사성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고통을 들여다 본 후, 남북 간 깊이 듣고 자애롭게 말하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플럼빌리지에서는 자비롭게 듣는 수행이 있다. 그때 사람들은 상대의 고통이 줄어들었으면 한다는 오직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듣는다. 이런 식으로 플럼빌리지(틱낫한 스님이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수행공동체)에 방문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룹이 서로 화해할 수 있었다"고 조언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틱낫한 스님의 법회는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박병희(59)씨는 "요즘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과 자살문제가 심각한데 스님의 말씀대로 고통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이 10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며 "틱낫한 스님 같은 정신적 멘토가 우리 사회에 절실하다"고 아쉬워했다.

강원도에서 군 복무 중인 이동건(22)씨는 "틱낫한 스님 책 〈화해〉를 읽고 군 생활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보살필 수 있었다"며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틱낫한 스님을 보기 위해 대중강연에 일부러 휴가를 내고 왔다"고 말했다.

한편, 틱낫한 스님은 이날 대중강연을 끝으로 약 2주에 걸친 공식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배현진 수습기자

---

틱낫한 스님 방한 15일, 현장 취재기

## 자애롭고 사소함 챙겨주는 스승

88, 10000, 40000. 이번에 한국에 방한한 틱낫한 스님과 관련한 숫자들이다. 왜 88세의 노스님은 10000km를 이동해 4만이 넘는 사람들과 만난 걸까.

스님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인터뷰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를 두고 온화하고 자애롭다 했다. 태교를 위해 스님의 법문을 듣고자 잠실체육관을 찾았다는 임산부만 봐도 알 수 있다. 월정사 수행에 함께 참여한 부부도, 중년을 넘긴 자매도, 엄마와 아들도, 종교가 없는 사람도, 수녀님도 스님의 따스한 너그러움을 느끼고자 참석한 이들이다. 이렇게 틱낫한이라는 이름에 담긴 강한 자력은 성별과 세대, 종교를 아우른다. 깨달음을 얘기하는 대신 현실의 사소함을 챙겨주는 스승이라니 어찌 거리를 마다할까.

불교라는 멋진 종교를 일상에 녹여낼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현대사회에 맞게 불교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스님의 노력은 용어에서 빛을 발한다.

연기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연결된 존재(Interbeing)'라는 단어를 만드는가 하면, 절 수행에 생소한 이들을 위해 '지구와 접하기(Touching the earth)'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플럼빌리지 구성원들의 80% 이상이 비불교도인 것도, 한번 명상을 할 때마다 참석자들이 1200명에 달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 덕분이다.

틱낫한 스님은 침착한 눈빛과 단정한 걸음걸이를 통해서도 스님은 평화의 기운을 발산한다. 거기서 사람들은 울림을 얻는다. 수행자의 얼굴만 봐도 불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틱낫한 스님 말 그대로.

우리는 사실 감정에 반응하기만 할 줄 알았지 이와 제대로 어울릴 줄 몰랐다. 스님은 감정에 서툰 이들을 훈계하지도, 윽박지르지도 않고 다만 도닥일 뿐이다. 동시에 통찰력있는 혜안으로 지혜를 전해준다. 그 혜안은 틱낫한 스님의 법문에서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듯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에 기인한다. 모든 것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풀어낸다.

틱낫한 스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도 먼 옛날, 불법을 구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한 옛 선사들과 다르지 않았다. 해외 곳곳에 큰 가르침을 전한 숭산 스님과 대행 스님도 떠난 지금, "우리의 승단을 돌아보게 된다"고 말하는 이가 있었다.

배현진 수습기자

---

## 정념 스님 "불교, 문명의 대안 되려면"
## 틱낫한 스님 "시대의 고통에 응답해야"

### 15일 방한 기간 중 한국 스님들과 대담

틱낫한 스님의 15일의 방한 일정 중에는 한국 스님들과의 대담도 이뤄졌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는 불교의 미래상과 승가교육의 변화 방안을, 뉴햄프셔대 교수 혜민 스님과는 한국 사회의 병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각각 이야기했다.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5월 6일 월정사 염화실에서 이뤄진 주지 정념 스님과의 대담. 사전 약속없이 진행됐지만 일불(一佛) 제자로 한번 쯤은 고민했을 주제들의 이야기가 오갔다.

정념 스님은 "현대 정보문명사회이고 이에 따라 삶의 문화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불교도 이에 맞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새로운 문명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첫 질문을 던졌다.

틱낫한 스님의 답변은 명증했다. 스님은 "(스님들을)가르치는 방식과 수행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존재하는 새로운 종류의 고통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플럼빌리지의 다양한 수행법을 설명하며 "우리 시대의 독특한 고통이 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 폭력적이다"라며 "이런 것에 응답할 수 있는 불교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고통을 덜 수 있는 가르침과 수행으로 내용을 바꿔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념 스님은 간화선과 기도로 규결되는 한국불교의 사부대중의 수행과 이로 인해 대중과 괴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타개책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틱낫한 스님은 "젊은 세대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가르침과 수행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상의 고통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에 진행된 불교TV에서 진행된 뉴햄프셔대 교수 혜민 스님과의 대담에서도 틱낫한 스님은 한국불교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한국사회에 감로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에 대해 화와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 많다고 지적한 스님은 "한국불교가 호흡 등의 명상을 통해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감정들을 가라앉힐 수 있는지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승가 교육방안 등 토론**
**혜민 스님과 불교TV서**
**사회 병폐 해법 이야기**

가르치고 대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모든 존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이는 가족, 남북관계에 모두 적용된다"며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서로가 불가분에 관계 속에 있음을 자각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틱낫한 스님은 한국불자들에게 "불교는 어려운 교리나 수행이 아니다. 바로 지금 행복한 것이 진정한 불교"라며 "긴장을 풀고 걷기 명상과 호흡 등을 통해 자신이 바로 지금 더없이 행복한 존재라는 걸 자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5월 6일 대담을 위해 월정사 염화실로 향하는 틱낫한 스님과 주지 정념 스님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번길 17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 천진불 동자승, 신나게 슛~골인

## 조계종 어청위 · 동련, 조계사서 동자승 축구대회 열어



동자승들이 공을 쫓으며 뛰어다니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스님~이쪽으로 공을 차셔야죠. 그쪽은 우리 팀 골대예요."

동자승 간 친목과 우애를 다지는 축구대회가 열렸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송묵)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심산)과 5월 14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제2회 포교원장배 동자승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찰 간 교류 확대 및 불교포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서울 조계사, 부산 흥법사, 속초 신흥사 등 3개 사찰에서 29명의 동자승이 참가했다. 경기는 문수, 보현, 관음, 지장 등 4개팀으로 나뉘어 각 팀 8명의 선수가 전 · 후반 10분씩 경기를 했다. 조계사를 찾은 신도들은 동자승들이 공을 쫓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 했다.

송묵 스님은 "이번 대회를 통해 불교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불자들에게는 심신고취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불교의 우수성을 널리 펼칠 수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을 대표하는 뜻 깊은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 행복바라미, 이제 연중 사업으로

## 날마다좋은날, 5월 12일 대전서 이음식 개최



5월 12일 대전 은행동 광장에서 열린 행복바라미 이음식에서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캠페인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4월 28일 시작된 불교계 기부문화 축제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1차 사업이 5월 12일 마무리됐다.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 ·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12일 대전 은행동에서 행복바라미 이음식을 개최했다.

이음식은 연중모금캠페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1차 사업보고 및 이기흥 이사장의 향후 계획,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등 불교계 인사의 치사,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됐다.

이기흥 회장은 캠페인에 동참한 포교사단, 사회복지재단, 각 교구신도회를 비롯한 전국의 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한해 두해 진행하면 행복바라미가 한국의 5월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음식에서는 자원봉사를 진행한 동국대 108리더스 활동가 등에게 봉사활동 인증서가 수여됐다. 또 월정사 신도회와 함께 모금행사에 적극 참여한 포교사단 강원지역단이 우수활동조직으로 선정돼 감사패와 포상금을 전달받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시·음악으로 희망을 노래하다

## 장애불자 모임 '보리수 아래' 제6회 시낭송회 회향

불교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모임 '보리수 아래'의 여섯 번째 시낭송회가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회향했다.

장애인 포교와 문학, 음악 등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모임 보리수 아래(회장 최명숙)는 5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6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당신이 희망이요, 행복입니다'를 개최했다. 보리수 아래는 이날 시(詩)와 클래식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니르바나오케스트라의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D장조' 선율로 공연장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문인인 김준엽 시인이 최근 펴낸 시집 〈그늘 아래에서〉 가운데 대표작 '그늘 아래에서'를 무대에 전동차를 타고 올라와 낭송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작은 꽃나무 한 포기가/ 햇살 못 받아서/눈물 흘리면서 자신을/ 자학하고 있네./ (중략)/ 처음에는 햇살 가득 들어와서/ 나 자신이 뿌리 내려 살다 보니/ 저 나무가 자라나서/ 햇살을 가리니/ 누구를 원망하리요./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바람에 저 나뭇가지가 꺾어져서/햇살이 가득 비추리라/그런 희망으로/난 오늘도 살아가네./" (김준엽 시 '그늘 아래에서' 中)

막대를 입에 물고 키보드 자판을 치며 시를 쓰는 김준엽 시인은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깨달은 처절한 자기성찰과 초탈을 위한 몸부림을 시로써 표현했다.



홍현승 시인(왼쪽)은 해피 스님(오른쪽)과 함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와 '동산의 나무'를 낭송했고, 해피 스님은 '올바른 보시행'이라는 주제의 시를 낭독했다.

이어서 최향섭 시인이 '벽시계'라는 초대시 낭송을, 니르바나오케스트라가 다시 무대에 올라 '찬미의 나라' '디 엔터테이너'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서 눈길을 끈 것은 스님과 함께 한 시낭송이었다. 홍현승 시인은 해피 스님과 함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와 '동산의 나무'를 낭송했고, 해피 스님은 '올바른 보시행'이라는 주제의 시를 낭독했다.

"저 나무들은 언제부터 서 있었을까/아마도 심는 모습도 본 사람이 없을 것이고 심었던 사람들도 지금은 저세상 국민이겠지/그 오랜 세월 동안 휘휘/바람은 안 불었을까/주룩주룩 비는 오지 않았을까 태풍은?/우리가 겪은, 아니 그 이상 저 나무들은 겪었다./그럼에도 저 나무는 풍성하게/가지와 잎을 지니고 있다/바람, 비 그리고 태풍은 나무들에겐 고통이었다./하지만 그 고통이 오늘 저 나무를 볼 수 있게 한 인연이 아닌가/" (홍현승 시 '동산의 나무')

이 밖에도 이순애, 정훈소 시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무대에 올라 시를 통해 관객들의 가슴에 잔잔한 울림을 전했으며, 최명순 시인이 쓴 '춘설'이라는 시에 가락을 넣어 노래를 들려주는 시간도 가졌다.

### 매월 문학모임 가져…삶의 원동력

'보리수 아래'는 2006년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의 제안으로 뜻있고 불교에 관심과 사랑이 있는 장애인들과 스님, 일반 불자 · 예술인들이 모여 결성됐다.

현재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이 지도법사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모여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화계사, 길상사, 청량사 등에서 법회와 문학모임, 산사체험, 사찰 순례 등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또한 보리수 아래는 장애인 포교에 동기부여를 넣어주고 방향을 찾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해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공연에는 장애불자들이 가사를 쓴 노래발표, 시낭송, 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불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계사 100주년 기념 인드라 스님 초청음악회, 화계사 산사음악회, 청각 장애인들의 모임 원심회 공연,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시낭송회 등에도 참가해 장애불자들의 활동을 알리고 있다.

보리수 아래는 공연에 그치지 않고 음반 제작도 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가사를 쓰고 일반 작곡가들이 작곡을 하는 형식으로, 현재 3집까지 나온 상태다. 보리수 아래는 2011년에 발매된 세 번째 앨범 '비상, 그 날개 위에'를 2000매 제작해 보리수 아래 회원들과 후원자들을 비롯해 인연을 맺은 사람들에게 무료 보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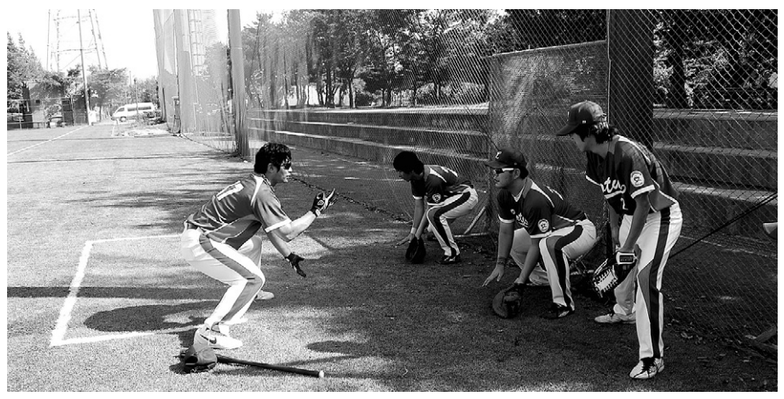
앨범을 만들고 공연을 준비하는 것이 모임 형편상 무리한 사업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리수 아래가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온 이유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음으로써 장애인들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최명숙 회장은 "장애불자들이 참된 신행생활을 하고 바른 포교활동을 하도록 그들의 능력을 살려 불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하겠다. 관심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교계 최초 유소년 야구단 조직

## 17일 부천 석왕사 룸비니 리틀 야구단 창단식



부천 석왕사는 '룸비니 리틀 야구단' 창단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사진은 연습장면.

불교계 최초 유소년 야구단이 창단됐다.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와 사회복지법인 룸비니(이사장 영담)는 5월 17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석왕사에서 '룸비니 리틀 야구단(가칭)' 창단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룸비니는 "룸비니야구단은 어린이들에게 야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더불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유소년 야구의 발전을 위해 창단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룸비니야구단'은 '학부모의 부담을 없애고 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취약계층 어린이 참여 확대 및 부모와 지역사회에 의해 자율적으로 야구단을 운영한다'는 기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야구단은 MBC 청룡 구단의 포수 출신으로 MBC와 LG 트윈스 코치를 거쳐 춘천고 등에서 감독을 역임했던 최정기 씨가 초대 감독을 맡아 이끌게 된다.

야구단은 선수반과 취미반으로 나누어 구성, 선수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취미반은 주말에 완전 무료개방형으로 꾸려갈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석왕사와 사회복지법인 룸비니는 이미 산하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티볼 등 다양한 야구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석왕사와 룸비니는 앞으로 성인 사회인야구단의 창단을 통해 부모와 함께 하는 야구를 지향, 이른바 가족단위 생활체육의 프로그램을 성장시켜 나갈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주니어 부의 창설 등 야구를 배워나가는 어린이들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베풀 작정이다.

석왕사는 '룸비니리틀야구단' 첫해 3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15인승과 25인승 차량지원, 사무공간 및 장비관리 장소 등을 제공하여 야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석왕사는 "지속적으로 야구단의 지원의 규모를 확대해 지역사회 어린이 야구의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히 모든 자금의 집행과 운영 등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0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 법과 심리적인 것 까지 읽을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개강 : 6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 (명상센터 3층)
042) 255-0734~5

# MBSR · 템플스테이 '정신복지' 1등공신

마음챙김명상

불교계 복지관이 불교의 가치를 담은 정신적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해 물질적 복지혜택뿐 아니라 명상프로그램, 템플스테이 등을 제공해 정신적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에서 운영하는 **구립대치노인복지센터**(관장 손화정)는 만성통증노인을 위한 자기치유프로그램 'MBSR을 활용한 마음챙김 아카데미'를 오는 11월 까지 진행한다.

2013년 강남구 노인특화사업으로 새롭게 선정된 'MBSR을 활용한 마음챙김 아카데미'는 평소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통증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문 명상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메사추세츠 의과대 존 카밧진 명예교수의 오랜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밝혀진 과학에 근거한 명상프로그램으로 기존 명상들과 차별화를 두어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치노인복지센터 김정민 과장은 "서울의료원 불교법당 지도법사이자 전문상담사인 효록 스님이 4월부터 12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바디스캔, 걷기명상, 정좌명상 등 매주 마다 구조화된 MBSR 8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매주 수업에 참여하고 1주일동안 집에서 매일 45분간 꾸준히 명상을 한 후, 8주 뒤에 개인별 맞춤 명상법을 찾는다"며 "참가자들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와 괴로움 등을 명상을 통해 해소한다. 참여하신 분들 모두 만족해 한다"고 설명했다.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관장 지완)은 지난 5월 4~5일 가평 백련사에서 1박 2일간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4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템플스테이 108배, 예불, 참선, 발우공양 등 자신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구립대치노인복지센터는 'MBSR을 활용한 마음챙김 아카데미'를 진행해 어르신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초·중·고 학생들은 목동청소년수련관서 진행한 백련사 템플스테이에서 자신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8주간 팀별 참여 맞춤수행법 제공

### 학생·부모 위한 명상특강 실시

목동청소년수련관 최은희 청소년사업팀 담당자는 "초등학생을 위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중·고등학생들도 신청할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참가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만족스러워했다"며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아 추후 가족 템플스테이도 준비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현민)은 매월 1·3째주 토요일 봉은사와 서울근교의 사찰을 탐방하는 템플스테이를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이상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참가자는 사찰투어, 참선, 다도, 연꽃등만들기, 발우공양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 부설 나란타대안학교는 매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자녀명상'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참부모명상'을 진행한다.

양윤아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은 수면명상을 통해 편안한 마음을 갖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습득했으며, 학부모들은 개별 고민을 상담함으로써 올바른 자녀 양육방식에 대해 터득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6월에도 3차 부모교육 및 간담회와 명상특강이 진행되니 많은 관심가져달라"고 말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성인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명상테라피 선요가를 매주 월,수,금마다 열고 있다.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호흡명상법과 요가를 지도하고 있어 복지관 이용자들로부터 인기가 좋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기관 **서울어르신상담센터**(센터장 청원)는 지난 4월 3~12일 4회에 걸쳐 대인관계와 감정다루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명상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풍경소리(대표 선묵혜자)와 함께 마음챙김명상을 비롯해 행선과 좌선 및 호흡법을 지도해 어르신이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

이명희 서울노인복지센터 부관장은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를 통해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 대인 및 또래 등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우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교사회복지기관으로써 쌓아온 노하우와 접목하여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연륜이 있어서 스스로 감정과 몸 상태를 금방 알아차려 효과가 좋았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집단명상 프로그램을 준비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신사복지관, 생태놀이학교 열어

### 6월 1일부터 진행, 선착순 모집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련)은 토요일을 활용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동화책과 함께하는 생태놀이학교'를 진행한다.

'동화책과 함께하는 생태놀이학교'는 도서관에서 준비한 생태관련 동화책을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읽고, 느낀 것을 그리기·만들기·요리 등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다.

6월 1일~10월 12일까지 토요일 10시부터 격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저소득 및 일반 가정내 초등학교 저학년(2~4학년)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선착순 10가족을 모집한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은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아동들의 창의력 개발 및 독서 흥미를 고취시키기 위해 기획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376 4141

이나은 기자

# 송산실버문화센터, 무료합동결혼식 거행

### 6쌍 부부 탄생, 피로연·여행비용 지원




송산실버문화센터는 이주민 여성을 비롯해 6쌍 부부를 위한 결혼식을 열었다.

송산실버문화센터(운영위원장 일면)는 5월 11일 센터강당에서 '제9회 무료합동결혼식'을 열었다.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개인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이주민 여성을 비롯해 6쌍의 부부가 백년가약을 맺었으며 송산실버문화센터는 결혼식과 피로연뿐 아니라 1박 2일 신혼여행, 기념선물 등 각종 비용 전액을 부담했다.

결혼식에는 대흥 스님(의정부시사암연합회), 일관 스님(불암사 주지),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 500여 하객들이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송산실버문화센터 관계자측은 "이번 결혼식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져 아름답게 살기 바란다. 항상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 "난치병 어린이 위해 써달라"

### 에스알에스코리아, 조계종 복지재단에 500만원 전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과 ㈜에스알에스코리아(대표이사 김영규)는 5월 7일 전법회관 6층에서 난치병 환아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KFC로 잘 알려진 국내 외식전문기업인 ㈜에스알에스코리아(System Restaurant Service Korea)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 500만원을 난치병 어린이를 위해 전달했다.

김영규 대표이사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병마로 인해 고통 받는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좋은 취지를 가진 행사가 있을 때 마다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에스알에스코리아 김영규 대표이사(왼쪽)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에스알에스코리아는 4월 27일 열린 '제13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에서 행사당이 1000명분 간식(햄버거)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 생명나눔, 5월 환우 이예진 양 선정

### 지체장애1급, 18년 동안 누워있어

1040g 미숙아로 태어난 이예진(여·18세·지체장애 1급, 뇌성마비)양은 돌이 되던 해 뇌성마비 진단을, 두 돌 되던 해에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

현재 18세지만 정신연령은 2~3세 정도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 하루종일 누워서 생활하다보니 척추가 휘고 고관절이 빠지면서 장기가 한쪽으로 쏠려 소화 장애를 앓고 저작 작용(씹기)이 힘들어 이유식만 먹을 수 있다.

예진양도 힘들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딸을 24시간 곁에서 돌봐야 하는 어머니도 힘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개인생활과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진양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후 기초생활 수급자로 매월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 이외에는 소득이 없다.



이예진 양(오른쪽)과 어머니

현재 예진 양의 장기적인 치료를 위해 가장 급한 것은 특수제작된 휠체어다. 그러나 예진 양의 어머니는 일반 휠체어보다 많이 비싸기에 그림의 떡이라며 한숨만 쉰다. 예진 양이 특수 휠체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 생명나눔

# S-OIL, 군포장애인복지관에 기부금 전달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용철)은 5월 9일 S-OIL 주유소 사회봉사단(회장 김성태-수도권본부 수원지사)과 'S-OIL 주유소 나눔 N캠페인'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명수주유소(군포 대야미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활동은 지역사회 주유소 대표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해 주유상품권 160만원을 전달한 후 군포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요리활동을 함께했다.

'주유소 나눔 N 캠페인'은 S-OIL과 한국사회복지협회회가 함께하는 나눔사업으로 S-OIL 지역본부 4개와 판매지사 25개에 소속된 영업사원들이 주유소 운영인



300여 명과 함께 지역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난방비 등을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S-OIL은 기부금 5억3000만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했다. 이나은 기자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 변 성 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 연 내 용 : 선무도·승군의 검무·화랑의 봉술·아수라의 바라무·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힐링살풀이·불교전통무용·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공연관람·공양(식사)

◈ 단 체 공 양(식사) : 예약가능(유료)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암, 치매, 각종 통증! 척추교정으로 대부분의 질병 다스릴 수 있다.

30년 통증해결사 (MBN 천기누설 18회 '척추편' 방영)

진골척추 교정법연구소 임상만 소장은 현대인들의 허리 관련 통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법을 알려 주고 있어 화제다. 진골척추교정요법은 경추, 흉추, 요추 천장관절의 미세한 비틀림에서 비롯된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오는 근관절질환과 내장질환, 피부질환, 치매의 병변등은 척추 교정법만으로 해결되며, 통증이 개선되고 몸이 편안해 지는 교정요법이다. 진골척추교정법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뼈를 만지고 굳혀 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근육이 발달한 젊은 사람일수록 치료기간이 짧고 노약자나 여성들의 경우 근육이 약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대체로 치료시간이 짧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법이라고 임 소장은 밝혔다.

척추교정분야에서 30년의 경험으로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 5분정도의 척추교정요법으로 아주 극심한 만성통증 환자의 경우라도 통증이 해결되며 치료 성공률도 99%의 성공률로 언론매체에서도 알려진바 있다. 임 소장은 오랫동안의 연구 끝에 진골척추교정법을 창안했다.

대표적인 척추질환으로는 두통, 목의통증, 어깨통증, 엉덩이통증, 손과 발의통증, 관절통 디스크, 좌골 신경통, 사고로 인한 목의 통증등 100여가지가 넘는다. 이 밖에 위장장애, 고혈압, 간질환, 요실금, 신경질환에도 척추교정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임 소장의 탁월한 능력은 고질적인 아토피, 습관성 유산 불임등을 치유시켜 수많은 한의사들이 배우고 추천해 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희대 한의대 교과 과정으로 채택되었고 그 기술의 뛰어남은 대내외적 으로 입증해 왔다. 이와 함께 암 통증 개선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항암치료의 부작용감소로 환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MBN TV 방송에 출연하여 척추통증에 관한한 유명 인사였던 임 소장은 척추의 형태만 보고도 통증이나 병의 유무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임 소장은 향후 진골척추교정법의 뛰어난 부분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2013년 3월 30일 토요일자 6면
2013 POWER & TOP LEADER 기사중에서

# 스스로 체험하고 증명하는 진리의 길 '불교'

## 동국대 정각원 '종교보다 통찰' 법회

**현각 스님 (독일 뮌헨 불이선원 선원장)**

파란눈의 수행자 현각 스님은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책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현재 독일에서 설법을 펼치고 있는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정각원 법회에서 '종교보다 통찰' 이라는 주제로 불교의 수행을 강조했다. 결국 불교는 신앙이 아닌 하나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리 그 자체임을 강조한 스님의 강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모든 서양철학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는 화두에서 시작했습니다. 아테네는 시민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시민들이 수학, 음악, 시를 배우게 했습니다. 사회가 폭넓고 자유로운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맹목적으로 살지 말고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는 어떤 종교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참나 진아를 깨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런 지론은 국가의 지침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 화두를 던진 셈입니다.

숭산 스님께서는 염불, 기도, 진언 등을 행하며 진아를 깨치셨고 1972년부터 미국에 건너가서 서양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법회에서 저는 서양인으로 보는 한국불교와 수행이 얼마나 종교 본연의 의미와 다른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인류역사상 가장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스마트폰으로 비행기표를 끊고 비행기 안에서는 아이패드로 원고 마감을 하면서 왔습니다. 얼마나 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25년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지금 흔하게 마시는 아메리카노 같은 커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커피맛에 길들여진 저희 서양 사람들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당시는 이걸 살 수 있는 곳은 이태원 던킨도너츠뿐이었습니다. 화계사에서 그곳까지 가려면 차를 3~4번 갈아 타야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만 겨우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곳곳에 스타벅스 같은 커피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 내전 같은 국제 뉴스들을 몇분만에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편리함은 모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내 바깥에 있는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본성보다 바깥에 있는 힘을 믿는 순간부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면 내 종교가 타인의 종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돼 버립니다.

요즘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주마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종교들은 이런 현상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책에 의존해 자신들의 교리적 잣대를 여기에 들이대고 있으니 말이죠.

저는 세계를 돌아다니지만 불교 알리는 일을 포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특히 서양인들은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며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색채를 띠는 것도 매우 싫어합니다.

얼마전 독일에서 4일간 용맹정진을 지도했습니다. 저는 참가자들에게 이것은 절대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참나를 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불교는 종교라 생각지 않고 일종의 참나를 찾는 하나의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자세를 정리해 가부좌를 틀고 호흡을 정리하고 생각을 챙기고 스스로 묻고 알아보며 통찰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참다운 나, 소리 듣는 나, 이게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수련생들에게 절대 책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서양인들은 300년 전에 번역된 불교 경전으로 많은 불교 교리를 접해 왔기 때문에 굳이 책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불교 지식을 가지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을 강조합니다. 수련회에서는 이 반야심경을 한국어와 독일어 두 개로 동시에 읽게 합니다.

**"외부의 힘 믿는 종교와 차별**
**과학으로 증명되는 불교는 진리**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순간 부처"**

우주적 모양 자체가 공함이고 이것이 물리학으로 증명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일이죠. 서양인들이 이런 매력에 끌리고 있습니다. 참선이라는 체험으로 몸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4일의 수련을 끝내고 나면 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안의 일이 시원스레 풀리는 기분에, 옛날 고향으로 돌아간 기분에 울었다고들 합니다.

내일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전에 3배도 올리고 연등도 켜고 할 것입니다. 연등은 세상의 밝은 빛이 되겠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불교의 보배는 화두선입니다. 나를 바로보는 행동, 자세, 호흡, '나는 누군인가' 하는 질문은 머릿속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 스스로 통찰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바로 그 자리, 시비가 없고 선과 악이 없으며 구별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나와 똑같다는 걸 체험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참나' 란 단어도 사실 말로 규정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이건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e=mc^2$은 과학자들이 신봉하는 명제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수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실험으로 이를 탐구하고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앞서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에 믿어야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과학의 시대이고 이를 증명하고 확인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나무탁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모양도 네모나고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도 나무소리가 나지만 라이터로 태우면 형체가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기본적인 본질은 쿼크(quark, 양성자, 중성자와 같은 소립자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입자)입니다. 이 속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본질, 공기 또한 마찬가지이며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다. 우주의 기본물질은 무입니까? 우주의 미스터리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공한 일이 모양으로 색깔로 나타난다는 말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직접 코, 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본성품과 온 우주의 본질이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내일 여러분 부처님오신날이라고 절에 가서 부처님을 볼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좌선하며 오른손을 풀어 무릎에 얹고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손 모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고 죽지 않는 사실을 깨치고 손바닥을 바닥으로 내림으로 온 세상은 나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결국 내가 현실이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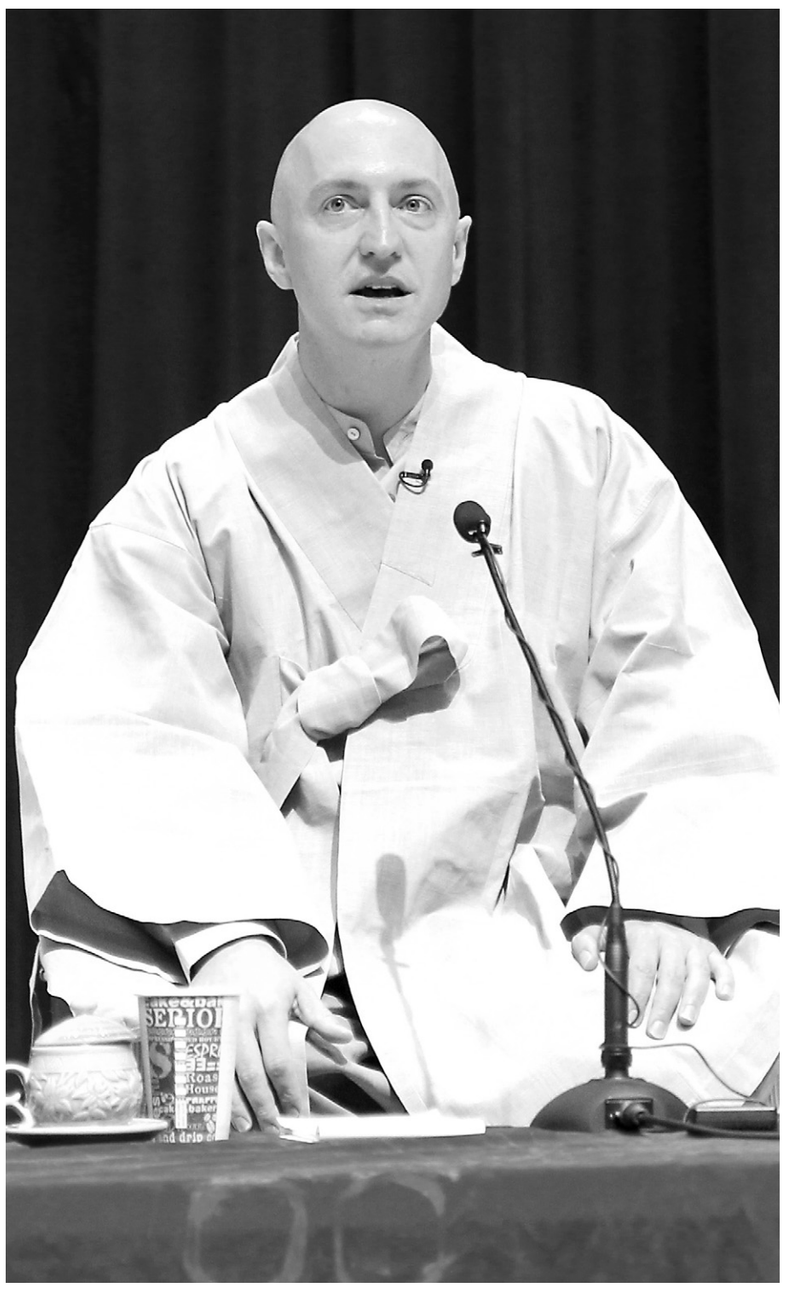
숭산 스님께서는 깨닫기 전후의 차이가 뭐냐는 제자의 질문에 "깨닫기 전 하늘은 푸르렀고 나무는 초록색이었다는 알았다. 그리고 깨달은 후 하늘은 푸르고 나무는 초록색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특별한 순간에 집착하니 찰나찰나 순간을 믿지 않는다고 틱낫한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옛 경전들에서도 깨달은 순간 꽃비가 내리며 온 세상이 감동한 것처럼 묘사하지만 이는 깨달음의 순간을 미화시킨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배고플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순간순간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증명할 수 있는 지혜이며 불교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손가락 다섯 개를 펴며)손가락이 다섯 개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실 때 당신의 말씀을 믿지 말고 스스로 체험하고 증명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확신한다면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팔레스타인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폭탄테러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티베트인들는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태를 단 한번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이사상을 바탕으로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불교는 말로써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볼 수 있느냐 느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체험으로서의 종교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어떤 종교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찰나찰나 순간순간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일, 어제를 생각하는 것으로 시공간을 만들지 말고 지금 이순간 물을 마시는 것이 나의 삶이라 여기십시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진리,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순간이 곧 부처입니다. 부처님이 아닌 '순간님' 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오신날' 은 '순간님오신날' 이 되겠죠. 생각에 빠지면 중생이요, 순간 찰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곧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현각 스님**은 … 1964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가톨릭 가정에서 어났다. 1983년 예일대에 입학해 서양 철학과 영문학을 전공했고 1989년 하버드대학 신학대학원 비교종교학과로 진학했지만 서양 종교와 철학에서 정신적 만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숭산 스님의 강연을 듣고 크게 감동하여 1990년 케임브리지 선센터에 입문하게 되고, 그해 11월에는 한국으로 와 1년간 신원사에서 동안거를 시작한 이후 송광사, 정혜사, 각화사, 봉암사 등 선방에서 용맹정진했다. 1996년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를 받았으며, 2001년 8월 화계사에서 숭산 스님으로 부터 공식 인가를 받았다. 현재는 독일 뮌헨 불이선원 선원장으로 유럽에 불법을 설파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정각원이 개최한 현각 스님의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은 진정한 진리의 길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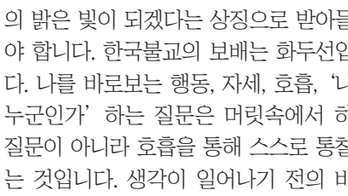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앰프, 스피커를 구입하시는 스님 20분께
"고급 앰프케이스" 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 교 육 과 정 | 교 육 기 간 |
|---|---|
|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br>●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br>●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br>●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br>※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 8주 과정<br>토요일반 |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 ‘약사여래’ 사회통합 정신 최초 조명

## 동화사, 콜롬비아대와 공동 개최…세계 석학 17명 참여

한국 약사신앙의 중심지로 꼽히는 팔공산 동화사에서 전세계 학자들이 약사신앙과 불교의 치유 · 통합 정신을 고찰한다.

대구 동화사는 5월 29~30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미국 뉴욕 콜롬비아대 불교 · 동아시아 종교센터와 함께 동아시아 약사신앙을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연다.

약사여래신앙은 동아시아불교 전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서구불교학계에서는 라울 번바움(Raoul Birnbaum)의 저서 외에는 연구성과가 전무했다. 팔공산은 신라에서 경주 남산과 함께 중요한 산으로 꼽힌 곳으로 당시 민심을 통합하기 위한 약사여래신앙이 발달했다.

세미나는 29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4부에 걸쳐 진행된다. 학술세미나에는 총 17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제1부는 ‘민간신앙과 약사불’을 주제로 남무희 국민대 교수가 ‘팔공산 동화사의 약사신앙’과 김종명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현대 한국의 갓바위 약사불 신앙’을 발표한다. 마이클 코모 콜럼비아대 교수와 사뮤엘 모스 엠허스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부는 ‘치병과 의약’을 주제로 피어스 살구에로 펜실바니아주립대 교수가 ‘약사불, 불교 경전에 보이는 의약’, 마이클 코모 콜럼비아대 교수가 ‘약사불과 용왕’, 맥스 모어만 콜럼비아대 교수가 ‘붓다와 목욕물: 일본의 치병, 온천과 약사신앙’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안준영 미시간대 교수, 브라이언 로 밴더빌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제3부는 ‘약사여래 도상의 변천’을 주제로 임남수 영남대 교수가 ‘고대 한국 약사여래 도상과 전통’, 유이 스즈키 메릴랜드대 교수가 ‘사이초와 헤이안시대의 천태종 약사 신앙’, 사뮤엘 모스 엠허스트대 교수가 ‘카미 신으로서의 약사불’을 발표한다.

**5월 29~30일 통일대불전에서**
**라울 번바움 외 약사신앙 연구 전무**
**민간신앙 · 치병 · 변천 등 종합 고찰**
**약사 사진전 · 자료집 출간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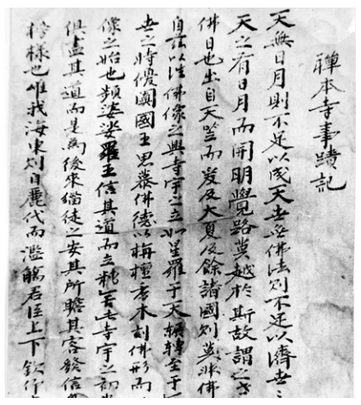
△제4부는 ‘역사 속에서의 약사신앙’을 주제로 석즈루 포모나대 교수의 ‘약사불 연명 신앙과 5~6세기 중국의 치병 및 연명에 대한 민간 신앙적 관념’,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의 ‘신라 약사신앙의 성격: 교리적 해석과 신앙활동’, 야오 총신 손얏센대 교수의 ‘정토왕생인가 혹은 현세구복인가?’, 라울 번바움 UC산타크루즈대 교수의 ‘홍이선사를 통해 본 중국의 약사신앙’이 발표된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팔공산에는 삼국통일전쟁 당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을 상징하는 많은 약사여래불이 모셔진 곳이다”며 “동화사가 법상종 계열로 미륵불을 모셔야 함에도 약사여래불을 주불로 모시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와 함께 열리는 동아시아 약사신앙 사진전의 대상 수상작 ‘자비의 눈빛’.

성문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가 당시 사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소통했는지를 밝히는데 의미가 깊다”며 “이를 계기로 세계 불교학계에서도 약사신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화사는 학술대회와 함께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화사 불교문화관에서 ‘동아시아 약사신앙 사진전’도 개최하며 미국 하와이대 출판사와 함께 이날 발표된 발제논문을 영역본을 펴낸다. 여기에는 학술대회에는 일정상 참여하지 못했던 로버트 서먼 콜럼비아대 교수 등의 논문도 실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범해 스님이 작성한 〈선본사사적기〉


〈하양현지도〉에서 선본사 고지도 부분. 갓바위 부처님이 삿갓을 쓴것으로 표현돼 있다.

# 선본사 · 갓바위 관계 규명 자료 발견

## 불교문화재연구소, 성보문화재 정밀조사 결과 1800년대 문헌 2건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져 오던 선본사와 갓바위 관계를 규명하는 최초의 자료가 발견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는 5월 15일 ‘경산 선본사 성보문화재 정밀조사’ 결과 선본사 갓바위 불상에 관한 새로운 자료인 〈하양현지도河陽縣地圖〉와 〈선본사사적기禪本寺事蹟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도 갓모양, 당시 갓바위 명칭 의미**
**5월 29일 세미나 통해 학술 고증**

〈하양현지도河陽縣地圖〉는 1872년에 제작된 고지도다. 지도에 나오는 ‘선본암자관문삼십리(禪本菴自官門三十里)’ 명칭은 선본사의 지리적 정보 뿐만 아니라 선본사와 삼층석탑, 산 정상인 관암의 갓바위 불상이 한 도량으로 포함됐음을 시사한다.

〈선본사사적기禪本寺事蹟記〉는 1821년 선본사 스님인 범해(梵海) 스님이 작성한 글로 갓바위 불상에 관한 것들이 주된 내용이다. 선본사에서 갓바위 불상을 귀중히 여겼음을 알려준다.

사적기에서는 ‘천여 년이 지났는데 석상은 의연하게 단아한 자비로운 용모를 띄고 있다(凡經千有餘載…而石像依然端雅慈容)’, ‘불상을 보고 감응이 일어나 기도와 축원을 올리면서 감응을 얻은 사람이 많다(觀感興起祈祝獲應者多矣)’, ‘이것(불상의 조성)은 의현화상의 공(此卽義玄和尙之功)이다.’ 등의 내용이 나온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각림 스님은 “지도에서는 불상의 관(冠) 부분을 삿갓으로 묘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조선 후기에도 이미 ‘갓바위 부처님’으로 불렸음을 짐작케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사적기를 통해 갓바위 불상이 통일신라시대 의현 스님이 조성했으며 19세기에도 갓바위 불상이 많은 이의 기도와 축원에 감응해 기도하는 이들의 행렬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은 향후 발간 예정인 선본사 정밀학술조사보고서 〈팔공산 선본사〉에 수록될 예정이다.

선본사 주지 덕문 스님은 “이번 자료는 선본사가 오랜 세월 동안 관봉석조여래좌상의 외호 사찰이었다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갓바위와 선본사의 관계가 학문적으로 조명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여래좌상을 국보 추진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문화재연구소와 선본사는 보고서 발간과 동시에 5월 29일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사, 미술사, 건축사, 보존학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부처님’ 불교유산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학술 · 문화재소식

### 불교학연구회, ‘불교학 첨단 연구’ 학술대회

**5월 25일 서울대에서…신진학자 대거 발표**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소장 박찬국)와 함께 5월 25일 오후 1시 서울대 인문대학 8동 101호(연강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학의 첨단 연구’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소장학자들의 새로운 논문이 대거 선보인다.

△김현희 경상대 박사과정의 ‘원효의 판비량론에서 오식삼상(五識三相)의 개념’ △정유식 도쿄대 박사수료의 ‘여래장과 아뢰야식에 관한 능가경의 이해’ △동국대 강사 정운 스님의 ‘당대(唐代) 선사들의 교육 방편’ △이태승 위덕대 교수의 ‘일본 근대불교계의 전쟁에 대한 인식 연구’ △박재현 동명대 교수의 ‘국내 불교학계의 구성적 특징과 연구 현황’ 등이 발표된다. 한편 불교학연구회는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박경준 前불교학연구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한다.

노덕현 기자

### 원각사상硏, ‘원각사상 종합연구’ 세미나

**5월 31일 관음사에서 상월 원각조사 사상 다각도로 조명**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은 5월 31일 오후 1시 관문사 2층 대강당에서 ‘원각사상의 종합적 연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김용표 동국대 교수의 ‘상월대조사의 불교혁신관’ △최기표 금강대 교수의 ‘상월대조사의 계율관’ △황룡사 주지 세운 스님의 ‘상월대조사의 수행관’ △고우익 금강승가대 교수의 ‘상월대조사의 신이(神異)세계’ △정성준 동국대 티벳장경연구소 연구원의 ‘십일면관세음보살의 신행관(信行觀) 고찰’ △안환기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의 ‘진(眞)의 세계를 향한 디딤돌 의언(意言)’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 제7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수상자 발표

**천마상에 임학종 학예사 고려불교향로 고찰 논문 등 눈길**

국립중앙박물관회(회장 김정태)는 5월 14일 제7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인 천마상 수상자에는 ‘홍도(紅陶)의 성형(成形)과 소성 실험(燒成 實驗)’ 논문을 쓴 임학종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관이 선정됐다.

금관상은 ‘무령왕릉 출토 탄목제품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명칭재고 및 한반도 내 출토 현황 검토’의 유혜선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관, ‘옥애 김진여(1675-1760)와 18세기 전반 초상화의 일변’의 문동수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에게 돌아갔다.

또 이정근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삼국시대 토기 재임 방법에 대한 검토-고식도질토기 재임 방법과 변화를 중심으로’, 이용진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가 ‘고려시대 불교향로의 전통성과 독창성’으로 은관상을 차지했다. 상금은 천마상 1000만원, 금관상 500만원, 은관상 200만원이다. 노덕현 기자

### 〈한국불교학 제66집〉 원고 모집

**7월 5일까지 불교교학 · 불교사학 · 응용불교 3개분야**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불교학 제66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불교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 3개 분야로 원고 마감은 7월 5일까지다. 한국불교학회는 투고 논문에 대해 원고매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 총 15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한글요약본은 600자 이내, 영문요약은 200단어 이내 분량의 제한선을 뒀다. 특히 논문의 한글 및 영문 주제어는 각 5개 내외이고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 인용 · 참조된 문헌만을 수록하는 논문체제 원칙 준수를 당부했다.

응모원고는 논문심사비 및 연회비 납부 회원에 한해 투고 자격이 주어진다. (02)2260-3835 노덕현 기자


화제의 신간
한글 법화경



一大事 因緣

이 세상(三界)이 편한함이 없는 것은 마치 불난집과 같으며, 많은 괴로움이 가득차서 가히 힘이 겁나고 두려우니라..... 그 가운데 중생은 모두 바로 나의 아들이거늘 .....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원하고 보호 하느니라!

한글 법화경은 구마라집 한역 묘법연화경을 한글로 풀이한 경전이다.

법화경은 불성(佛性)인 참 생명의 영원실상을 명쾌하게 들어내어 인간의 상상을 뛰어 넘는 경전으로 대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힘 그 자체라 하겠다.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과 번뇌를 여의케한다. 우주와 같은 마음을 직시하고 법화경을 되풀이하여 읽고 쓰면 더욱 참 맛이 우러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의 노래가 된다. 매일 읽고 쓰게된 공덕은 불가사한 현상의 기적으로 실제 일어나 신비의 체험은 다반사(茶飯事)며 삼세제불 부처님의 축복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은 실천적인 생활불교의 이정표이며 신앙적이라 영험실화가 가장 많음을 알게 될것이다.

중생이 본래 부처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
큰 법을 온세상에 널리펴라.
법화 행자여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 법보시 주문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송월스님옮김 / 신국변형판 / 584쪽 / 정가 20,000원

불교성서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
THE LIFE AND HIS TEACHING OF BUDDHA GOTAMA SAKYA



제 1편 : 부처의 생애
제 2편 : 부처의 가르침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부처(sakyamuni Buddh)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를 그의 생애의 기록을 통하여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정가 30,000원

•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곧 진리의 말씀.
• 불교란 「삶의 바른길」의 실천을 통해 불교의 이상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건강하게 사는 법
신비의 호흡요법



건강하고 행복한 삶
그 어느때 보다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히말라야의 영원한 스승 바바지를 통하여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올바른 호흡을 제시하고 인간의 우주적 역할과 영원한 존재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명상과 요가의 수행법 그리고 호흡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정가 12,000원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작법반 (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 신행과정 (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 (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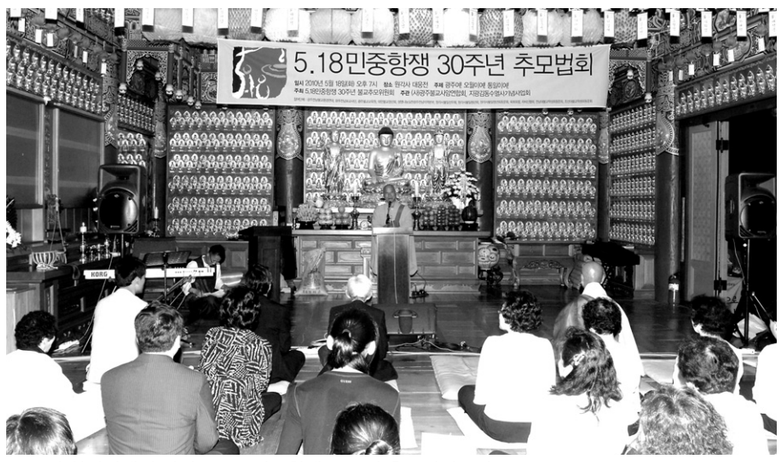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6월 26일까지
◆ 개강일시 : 2013년 6월 27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민주주의 꽃, 불교 힘으로 다시 피우세”

## 광주불교계, 5 · 18 33주기 추모행사 연달아 개최

### 광주불교NGO, 원각사 추모법회
### 불교환경연대, 망월동 주먹밥 나눔
### 광주인드라망, 선덕사 오월한마당



2010년 원각사에서 열린 5 · 18 민주항쟁 30주년 추모법회 모습.

한국 현대사의 큰 아픔 5 · 18민중항쟁을 추모하는 불교계 행사가 광주 전역에서 개최된다.

광주전남불교NGO연대(상임대표 정선)는 5월 23일 오후 7시 광주 원각사에서 ‘5 · 18민중항쟁 33주년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오월의 꽃, 통일로 다시 피어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추모법회에는 이신 통일사회연구소 소장의 5 · 18이야기를 시작으로 범능 스님, 류의남, 류상호 님의 추모곡 헌사, 김경일 시인의 추모시 낭송 등이 진행된다.

광주전남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이중표)도 22일 오후 7시에 선덕사 앞마당에서 ‘밤실골 오월 한마당’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월 영화 ‘26년’, 난타공연, 오월 사진전, 체험행사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도 18일 오전 11시 민주열사들이 모셔져 있는 망월동 묘역에서 ‘제6회 해원굿 및 주먹밥 나누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게 항쟁하던 시민군들이 함께 나눠먹었던 주먹밥이 참배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가 열리는 망월동 묘역은 당시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시민들을 매장했던 장소로 ‘민주주의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행사에는 ‘5월 비나리를 모시는 사람들’, ‘시하나 노래하나’, ‘푸른연극마을’ 등 시민 · 공연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연극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인다. 또 취지에 동참하는 박양희, 한보리, 인디언수니, 강숙향, 주권기, 신동호 등도 추모곡 등을 부른다.

망월묘역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해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은 “사람사는 세상의 자유와 아름다움을 위해서 역사와 민족 앞에 스러져간 이들을 기억해 내고자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5 · 18 당시 희생당한 시민들 중에는 불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계엄군의 시민을 향한 집단발포가 진행된 1980년 5월 21일이 부처님오신날이었기 때문이다.

음력 4월 7일인 5월 20일 저녁 계엄군의 첫 발포 이후 분노한 광주시민들과 불자들은 광주 충장로, 금남로를 가득 메웠다. 하지만 이들을 향해 계엄군은 재차 발포해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다. 당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 전남지부장 김동수 열사가 계엄군의 총탄에 안타까운 생명을 잃기도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꽃피움절, ‘자녀를 위한 기도’ 높은 호응


꽃피움절의 자녀기도에 앞서 참석자들이 소원등을 받고있다.

“우리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길 기원합니다.”

자녀들의 성공과 사회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법회가 눈길을 끈다.

광주 두암동 꽃피움절(주지 목언)은 매월 관음재일에 자녀를 위한 기도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녀를 위한 기도법회에는 20여 부모들이 저마다 촛불을 켜고,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기도를 진행한다. 이런 기도는 벌써 1년째. 기도는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의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목언 스님은 “뱃속의 아이를 가진 어머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자녀들에게 부처님의 좋은 기운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도법회는 부처님 전 공양을 시작으로 천수경과 반야심경 독경, 마음닦음 독송, 관음정근, 신묘장구대다라니, 관세음보살 보문품 독송 등이 진행되며 끝으로 부모들의 자녀 이야기가 이어진다. 연말 등에는 가족들이 모두 같이 참여하는 기도법회도 열린다.

기도에 참여한 김혜숙 씨는 “사업 실패로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1년이 지난 지금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고 작은 딸은 최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며 밝게 웃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천지사 지역민 위한 보시행 화제


천지사 주지 도성 스님이 소년 · 소녀 가장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화순 천지사(주지 도성)는 5월 12일 화순문화광장에서 ‘제4회 독거노인 및 소년 · 소녀 가장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화순지역 소년소녀 가장들에 장학금과 생활필수품이 전달됐다. 행사는 대한불교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의 후원으로 화순군축구연합회, 배드민턴연합회, 화순전대병원, 화순군대한구조대, 화순군자율방법대, 화순연예협회, 화순군상가번영회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에서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

생체무용단의 식전행사로 시작된 행사는 장학금 전달,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의 격려사, 초청가수, 하나무용단의 공연이 뒤를 이었다.

정암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들에게 사찰과 시민단체에서 나눔행을 펼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든 이들에게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순의 군민들이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불자가수 허미라, 김해종, 정현, 류경 등이 흥겨운 노래를 선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전북, 자비광명의 연등 물결 넘쳐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열린 연등축제에는 3000여 대중이 운집해 불법홍포를 발원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세계평화와 국태민안, 민족화합과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전북도내 주요도시에서 봉행됐다.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 금산사 주지)는 5월 11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이날 축제에 앞서 지난 5월 4일 덕진공원에서 열린 어린이 큰 잔치에서 입상한 청소년들에 대한 시상식과 전북 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 보존회 스님들이 영산무 공연이 진행됐다.

이어진 법요식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스님을 비롯해 원행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등 전북사찰 주지 스님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등 각급 기관장들, 김백호 전북신도회장, 주정기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신행단체 관계자 등 3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전북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은 대회사에서 “모든 이웃들을 자기 생명처럼 존중하고 사랑하는 동체대비의 실천자가 되기 바란다”며 “세계 평화와 민족대화합이 반듯이 이뤄져 자유로운 삶이 성취되기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밖에 익산 군산 김제 등의 전북도내 주요도시에서도 연등축제가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선운사, 군산교도소 수계법회 봉행

순간의 실수로 참회의 삶을 살고 있는 교도소 재소자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참된 불자로 거듭났다.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5월 13일 군산교도소 강당에서 봉축 수계법회를 열고 김동진(가명) 외 34명의 재소자에게 삼귀의계와 5계를 내렸다.

수계법회에서 법만 스님은 “계를 받는다는 것은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를 얻는 것과 같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영어의 몸이 됐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중생을 위하는 참회의 삶을 살면 광명의 길이 보일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날 군산교도소 수계법회에는 선운사 총무국장 심학 스님, 재무국장 진용 스님, 군산 동국사 종걸 스님, 관음사 도천 스님, 성흥사 송월 스님과 김진수 前전북포교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선운사는 이날 군산교도소 재소자들에게 간식과 합장주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북 봉축위, 임실 탄약창 위문법회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는 5월 12일 전북 임실 제6탄약창(창장 서호일) 호국 장영사에서 봉축 연등축제와 장병 위문법회를 개최했다.

위문법회에는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과 서원노인복지관장 보연 스님, 포교국장 보륜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주정기 전북포교사단장, 서호일 창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성강 호국장영사 지도법사는 “지역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위문법회와 연등제를 봉행하게 됐다”며 “창장님 이하 모든 장병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군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호일 창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장병들을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한 지역의 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회에 앞서 장병들은 교리퀴즈대회와 독경대회, 장기자랑대회를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얀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 시민들 환호와 동참 속에 화려함 더한 봉축

## 확 달라진 2013부산연등축제 현장

**"원더풀~ 너무 아름다워요. 부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축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한국에서 겪은 최고의 체험이었습니다. 등불이 거리를 밝힐 때 제 마음도 밝혀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불교와 한국문화를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인 무하마드 이스마일 (Muhamad Ismail·25) 씨

2013부산연등축제가 크게 변모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 동참하고 환호하는 축제로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제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2013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수불)는 5월 11일 부산 구덕운동장과 대청로에서 부산 연등축제 본행사인 봉축연합대법회와 제등퍼레이드 행진을 개최했다.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부산연등축제는 화려한 복식의 연희단 행렬과 대동한마당 행사로 시민들의 참여와 환호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은 봉축연합대법회 대회사에서 "부처님을 향해 밝힌 등불마다 지혜와 자비, 평화와 번영의 무량광명이 함께 비추길 기원 한다"며 "부산연등축제가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연구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축제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오늘 밝힌 광명의 등불이 자성의 등불이 되어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남북에 화합과 평화로 인도하는 감로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회에 이은 제등 퍼레이드는 구덕운동장에서 대청로까지 4㎞의 거리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진은 평소보다 짧은 구간이었지만, 화려한 연희단 퍼레이드와 장엄등 등으로 시민들이 대거 운집해 변모한 연등축제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곳곳에 마련된 응원석, 축제풍선나눠주기 등 주최 측의 다양한 노력이 곳곳에 엿 볼 수 있었고, 외국인, 청년층, 가족단위의 동참자 들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외국인 참여 대거 늘어
### 행진하며 환희심 가득해



부산연등축제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매년 축제에 참가했다는 강나민(내원정사, 31)씨는 "환호 해주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때보다 즐거운 축제였다."며 "거리를 행진하며 불자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족과 함께 한 조미라(44)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장엄등이 많아서 행복해 하는 아이들을 보니 너무 즐거웠다."며 "온 거리에 가득한 연등을 보며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했다"고 말했다.

제등행진에 이어 펼쳐진 대동회향한마당 역시 문전성시였다. 1시간동안 집중된 공연은 남녀노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무대로, 유진박, 비보이, 경기민요, 난타 공연 등이 마련됐고, 화려한 레이저 쇼와 하늘에서 뿌려진 꽃비로 시민들의 환호 속에 행사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가족과 함께 한 이인경(40)씨는 "비보이부터 경기민요 유진박 연주까지 애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것부터 어른들이 볼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해서 좋았다"며 "무엇보다 차와 매연이 가득한 거리에서 애들과 마음껏 뛰어 놀 수 있어서 즐거운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불교총합회(회장 성문)는 5월 11일 대구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관등행렬을 진행했다.

이날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봉행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천태종 대성사 주지 화산 스님과 진각종 대구교구청장 혜명 정사의 봉축사에 이어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과 학생30여 명의 대구교육의 안녕을 기원하는 서원문 낭독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의 각자 소망을 담은 100여 개의 오색풍선을 날리는 가운데 불꽃놀이가 더 해져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 놓았다.

이날 법요식과 관등행렬에는 이 지역 조계종과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 법화종 등 각 종단신도 15000여 명이 동참했다.

17일 오후에는 천태종 대성사에서 대구 각 종단 지도자 스님들과 지역기관 기관장,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과 점등대법회가 열려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손문철 대구지사장

# 지역주민 함께하는 '용호장승축제'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랑과 효를 테마로 한 '제9회 용호장승축제'를 개최했다.

5월 10~11일 양일간 복지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이춘성 관장을 비롯해 이종철 남구청장, 서영교 국회의원 등 지역주민 5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춘성 관장은 "'우리동네 하나되는'의 모토처럼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동네 어귀에 우뚝 서서 마을을 지키는 장승처럼 용호종합사회복지관도 우리 마을 주민들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제는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장승제를 시작으로 지역 저소득 어르신 초청 '효 큰잔치'와 독거 어르신을 위한 '장수잔치',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그리기 대회',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펼쳐졌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사하경찰서 경승단, 경찰자녀 장학금 전달

부산 사하경찰서 경승단(경승실장 혜우)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법회를 개최하고 경찰자녀들을 위한 제1회 장학금전달식을 개최했다.

사하경찰서 직무교육장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사하구불교연합회장 법인 스님, 경승실장 혜우 스님, 조성환 사하경찰서장 등 경찰 200여명이 참석했다.

혜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과중한 업무에도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봉사의 기본 틀 안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든 경찰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하구불교연합회 회장 법인 스님은 봉




행사에서 "경찰의 직분에 더욱 충실하는 것이 불자의 자세"라고 말했다. 이날 장학금은 경찰자녀 7명에게 총 210만원이 전달됐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현란한 것은 꽃이라도 안좋다

우리나라 사찰의 이미지는 때에 따라서 청량하기도 하고 그윽하기도 하다. 새벽녘 잠이 깨어 절 마당에 나갔을 때의 쨍한 상쾌감이 청량한 기분이라면, 석양 무렵에 느끼는 편안하고 온화한 기분은 그윽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봄이 무르익으면서 온 세상이 꽃 잔치를 벌이고 있다. 매화를 필두로 동백,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로 이어지던 봄소식은 화사한 왕벚나무가 꽃을 피우면서 절정에 이르렀고, 이제는 철쭉이 제철을 맞아 꽃을 피운다. 조금 있으면 목단이나 작약이 마당 한가득 탐스러운 꽃을 피울 것이니 사계절 중에서는 이때가 가장 생동감이 있고 희망적인 계절이 아닐까 싶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은 절집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절집이 자리한 산자락에도 봄은 찾아와 온갖 꽃들로 가득하며, 절 마당에도 이것저것 많은 꽃들이 피어 아름답기만 하다.

예로부터 절 마당에는 목단, 매화, 철쭉, 산수유, 백일홍, 앵두나무와 같이 키가 낮은 꽃나무나 작약, 난초, 나리, 국화와 같은 초화류를 많이 심었다. 주변 산에서 캐다 심은 소나무나 단풍나무 같이 키가 큰 나무는 마당보다는 건물과 떨어진 공간에 심어서 햇빛이 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고 공기도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절집에 심었던 나무나 초화류들은 하나 같이 맑고 그윽한 꽃색을 가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꽃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비로워지고 넉넉해져서 마치 금방이라도 한 소식 얻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절집에 심었던 꽃나무나 꽃 풀들이 지나치게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현란했다면 아마도 그러한 마음이 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인가! 절집에서는 다른 사물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정도의 꽃색을 가진 것들은 아예 심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산야에 자연적으로 나서 자라던 나무들과 꽃 풀들에 대한 번식에 성공해서 대량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면에 외국에서 수입된 꽃나무와 꽃 풀들도 지천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외국에서 들여온 꽃나무와 꽃 풀들의 경우에는 너무나 자극적이고 현란해서 오히려 천해보이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만약 절집에 이러한 수입종들을 심게 되면 절집이 가진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꽃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현란한 것은 꽃이라고 해도 좋지 않은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절마당에 심는 꽃나무들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현란해서는 좋지않다. 경상남도 E사찰.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신제품 경전학습기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음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엣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컨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서악리 삼층석탑에서 5월 신라문화원 경주 남산불적답사 참가자들이 최민희 부설연구소장의 설명들 듣고 있다.


답사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다.


선도산 마애삼존불의 모습. 적지 않은 결락이 이뤄져 있지만 그 웅장함은 남아있다.


태종무열왕릉비를 답사하는 남산불적답사 참가자들.

# 천년 신라 지킨 서악에서 경주 바라보니…

## 선도산에서 바라보는 남산

신라시대의 경주는 총 5개의 산을 진산(鎭山)으로 섬겼고, 이를 오악이라고 했다. 동쪽의 토함산(吐含山), 서쪽의 선도산, 남쪽의 남산(南山), 북쪽의 북악(北岳), 중앙의 부악(釜岳)이다.

특히 선도산은 신라의 초기 민간 신앙과의 연결돼 있다. 〈삼국유사〉권5 감통편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진평왕 때 안흥사(현재 영주군에 있었던 사찰)의 비구니 지혜 스님이 불전을 수리하려 하였으나 힘이 모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선도산의 성모가 나타나 불전 수리를 기특한 일이라면서 내 자리 밑에서 황금 10근을 꺼내 쓰라고 하였다. 다음날 지혜 스님가 무리를 데리고 신사의 밑을 파보니 황금 160량이 나왔다. 이로써 불전 수리는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서악, 즉 선도산은 신라 초기불교가 어떻게 민간 신앙과 접점을 맺고 융합해갔는지를 보여주는 곳이다. 그들의 성스러운 어머니가 있는 곳에 신라 왕들의 무덤이 즐비한 것도 이곳이 상서로운 곳임을 알게 한다.

### 태종무열왕릉과 고분군

경주시 서악동의 선도산 동쪽 능선 아래에는 신라를 통일한 태종무열왕릉이 존재한다. 사적 제20호로 아직 발굴되지 않았다. 무열왕릉의 봉분 높이는 약 8m, 봉분 직경은 35.51m, 봉분 둘레 약 113m이며, 묘제는 횡혈식석실분이다.

무열왕릉의 동북쪽에는 무열왕릉비가 세워져 있다. 비신의 귀부는 장방형의 대석 위에 올려진 것으로 네 발과 머리의 표현은 생동감이 넘쳐 있어 신라 조각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등의 전면에 귀갑문을 조각하고 그 주위에는 비운문(飛雲文)을 돌렸다. 비신의 갓머리 장식인 이수의 전면에는 6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받들고 있는 모양이 새겨져 있고, 그 중앙에는 전서체로 '태종무열태왕지비(太宗武烈太王之碑)'라는 2행 8자가 양각돼 있다. 이 명문에 의해 무열왕릉은 신라 역대 능묘 중에 피장자가 명확한 유일한 능이다.

귀부의 네 모퉁이에는 초석이 남아 있어 당초에는 비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무열왕릉의 귀부와 이수는 비록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신라에 발현된 것이나 조각의 정교·화려함에 있어서는 당나라 시대의 조각품을 능가하고 있다.

### 경주에 흔치 않은 서악리 삼층석탑

서악동 고분군을 지나면 통일신라시대 모전석탑(模塼石塔)계열의 서악리 삼층석탑을 만날 수 있다. 이 탑은 지붕돌의 지붕면도 지붕받침처럼 층단으로 이뤄져 있는 경주지방에서 흔하지 않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기단은 20cm 높이의 지대석 위에 육면체로 다듬은 8매의 돌로 '밭전(田)'자 모양으로 갑석이 없는 이형기단(異形基壇)이다. 지대석은 아무런 장식 없이 면만 바르게 다듬은 장대석으로 남면은 1매, 북면에 2매, 동서면은 각각 2매로 맞추어져 있으나, 부분적으로 지반이 내려앉아 기단이 조금 내려앉고 부재가 제자리에서 조금씩 튀어나왔다. 탑몸 받침돌은 윗면은 1층 몸돌을 받치기 위하여 면을 바르게 다듬고 아랫부분은 뿌리를 내어서 면석에 꽂히게 다듬었다. 이와 같은 돌 쌓는 방법은 구조적으로 보아 안정감이 있고, 상당히 발전된 방법으로서 다른 석탑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독특한 방법이다.

경주 부근에서 서악리 삼층석탑과 비슷한 모양의 탑은 남산리 동탑과 남산 칠불암 뒤편 봉우리 서편에 있는 절터에 넘어져 있는 탑재 가운데 기단석과 지붕돌, 탑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남산리 동탑은 기단 위에 3단의 층급이 있는데 반해, 여기서는 1매의 판석으로 되어 있는 생략된 형식을 하고 있어, 통일신라 하대의 퇴화되는 과정에서 성립된 석탑으로 추측된다. 그런 의미에서 서악리 삼층석탑은 전탑형식의 유형 분포를 조사, 연구하는 지표가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신라 왕릉 고분 중 유일하게**
**주인 알 수 있는 태종무열왕릉**
**정상에 아미타마애불 '우뚝'**
**오늘도 천년 경주를 굽어봐**

### 선도산 정상의 마애불 '웅장'

경주 선도산 정상의 암벽. 이곳 거대한 암벽에는 마애삼존불입상이 조성돼 있다. 본존불은 돌출된 암벽면에 고부조하고 좌우의 협시보살은 다른 돌로 조성한 원각상이다. 높이는 본존불 6.85m, 향오른쪽의 관음보살입상은 4.62m, 향왼쪽의 대세지보살입상은 4.55m이다. 본존불의 얼굴은 눈 이상이 탈락되었으나 큼직한 코, 각이 진 얼굴의 윤곽선, 굵은 목 등에서 강건함을 느낄 수 있다. 역각한 불상의 위엄과 힘을 발산하는 장대한 신체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차 편평해지면서 좁아지는데, 부근에서 수습한 연화대좌와 연결돼 있다. 통견의 법의를 걸친 어깨선은 둥글지만 좁은 편인데 가슴 아래로 흘러내리는 U자형의 옷주름선은 힘이 깃들어 있다.

보살상은 독립 원각상이지만 그 뒷면은 마치 암벽면에서 떼어낸 듯 평평해서, 측면의 너비가 좁은데, 이로 미루어 두 보살상들은 마애불이라는 특수한 용도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성된 것 같다. 이와 같이 뒷면은 거의 조각하지 않고 측면 폭이 좁은 석주형의 불·보살상들이 9세기 이후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는 것은 흥미롭다.

중생을 구제한다는 자비의 관음보살은 내면의 법열(法悅)이 미소로 스며나오는 우아한 기풍을 엿보게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룬 데 없는 맵시있는 솜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본존불에 비해 신체는 섬세하며 몸의 굴곡도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

중생의 어리석음을 없애준다는 대세지보살은 얼굴과 손의 모양만 다를 뿐 모든 면에서 관음보살과 동일하다. 사각형의 얼굴에 눈을 바로 뜨고 있어서 남성적인 힘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암벽에 새긴 부조적인 불상조각의 특징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이 마애삼존불상의 광배는 결실됐는지 원래 없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얼굴표정이나 손모양은 매우 정교하게 고부조해 설법하는 내면의 의지가 강하게 엿보이는 특징적인 요소로, 거대 석불상이나 보다 쉽게 불상을 조성하고자 할 때 애용하는 수법이다.

### 불교, 유교가 공존하는 서악

선도산은 유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곳이다. 바로 설총, 김유신, 최치원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한 서악서원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선도산 아래에 서악정사(西岳精舍)로 창건해 향사를 지내오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 1602년 묘우(廟宇)를 신축하고, 1610년에 강당과 재사를 중건하였으며, 1623년(인조 1년) '서악(西岳)'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대원군의 서원 철폐시 훼철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중의 하나이며, 1873년에 중수해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경내의 건물로는 3칸의 묘우, 5칸의 시습당, 5칸의 절차헌, 5칸의 조설헌, 영귀루, 3칸의 전사청, 4칸의 고자실, 도동문, 외문, 내문 등이 있다. 이 서원에서는 매년 2월 중정(두번째 정일)과 8월의 중정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서원에서의 건물배치는 일정한 규범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있어야 할 공간은 있어야 한다. 즉 사주(祠主)에 제사하는 사(祀)를 위한 공간과 유생들이 글공부하는 재(齋) 공간이 필히 있어야 하며 그 외에 경각, 비각이 별도 또는 재공간에 함께 있다.

〈삼국유사〉에서 일연 스님은 '서연산에 머문지 몇 십년이 지났는고/ 천제녀를 불러 신선의 옷을 짰도다/ 장생술도 영이함이 없지 않았는데, 부처를 뵙고 옥황이 되었도다'라는 찬시를 지었다. 서악(선도산)은 고대의 산신 신앙에 불교 사상과 신선 사상이 모순 없이 융합된 곳이다. 그렇게 유구한 역사를 지내 온 서악은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채 오늘도 경주를 굽어보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사 · 신라문화원**
**6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 주제 : 남산에서 불국토로 가는 길을 찾아서
- 일시 : 6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도시락, 필기구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www.silla.or.kr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옛말 그대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그 "조왕탱화"
사업장의 조왕신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을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더해가는 전통탱화입니다.

조왕탱화 상세안내

1 정의 :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2 유래 :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3 명호 :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4 구성 :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5 한국의 대표적인 조왕탱화 : 양산 통도사 비로암, 충남 계룡산 갑사, 대구 팔공산 선본사,
부산 삼광사, 경남 밀양 표충사
6 필수 :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7 내용 :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초안 (먹물 밑그림)


상호 (전통조왕상호)


문양 (고대문양)

■ 기법 : (1) 출초 – (2) 배접 – (3) 아교포수 – (4) 도채 –
(5) 바림 – (6) 문양 – (7) 금니 및 황선 쫓침 – (8) 금박붙이기 –
(9) 상호 – (10) 틀 싣기 – (11) 발미(전통기법 그대로!)
■ 금어 : 원장 – 전국 공모전 불교미술분과 심사위원
화원 – 문화재 기술자, 기능자, 전수자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규격 : 가로 61cm × 세로 91.5cm
■ 문의전화 : ☎ 051)332-0045 / 010-9216-0988

성 유 불 화 원 금어 조성철 합장

미얀마 불교 이야기

4. 고대 미얀마의 상좌불교 전래

# 국적 가리지 않고 계맥의 정통성 이어

고대 미얀마의 불교 전래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 논의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는다면 아소카 왕의 포교사 파견을 들 수 있다.

아소카 비문과 빠알리어로 된 여러 스리랑카 불교 역사서에 의하면 인도 아소카 왕은 인도 아대륙과 인도 외 여러 지역에 포교사를 파견했다. 아소카 왕의 즉위연대는 B.C.E. 268년으로 정확한 연대가 밝혀진 것은 인도 고대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스리랑카 불교역사서에는 아소카 왕이 포교사를 파견한 곳 중 수반나부미(Suvannabhumi)라는 지역을 표기하고 있다. 수반나부미는 '황금의 땅' 이란 의미이다. 후대 '황금불탑의 나라' 로 불린 미얀마와도 부합된다.

그동안 이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 학계에서는 여러 주장이 있었다. 최근 이 지역이 바로 현재 양곤 등이 포함된 남부 미얀마 일대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이 당시 남부 미얀마를 지배하던 종족은 '버마족' 이 아니라 '몬(Mon)족' 이었다. 현재 남부 미얀마에 몬 주(Mon State)가 있는 것도 그 이유다. '몬족' 은 '버마족' 과는 여러 신체적인 특징과 문화적 배경이 달랐다. 이들은 라만나데사(Ramannadesa)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수도 이름이 타통(Thaton)이었다. 이 타통이 바로 아소카왕이 포교사를 파견한 수반나부미라는 것이다.

몬족은 미얀마 지역을 넘어 태국 등 동남아 여러 지역에 분포해 있었으며 오래전부터 국제교류를 진행한 수준 높은 문화민족이었다. 몬족은 동인도나 남인도 그리고 스리랑카와 해로를 통한 교류를 진행했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 아대륙과 맞닿아 있는 미얀마는 일찍부터 불교가 전해졌다. 미얀마의 불교 전래는 석가족과 따뿟사와 발리까의 이야기 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로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과거에는 육로보다는 해로가 여러 가지로 더 용이했다. 이러한 해로로 인도와 동남아가 이미 기원전부터 무역과 함께 민족의 이동 그리고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행해져 왔다. 인도의 영향은 미얀마를 넘어 라오스나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 등 광범위한 지역에까지 이르렀다.

### 상좌 · 대승 · 밀교 섞여 전해져

인도문화에는 바라문 힌두교를 비롯해 초기불교의 여러 부파, 대승불교 그리고 밀교 등이 서로 어우러져 있었다. 여러 종교 문화가 혼재돼 전래된 상황은 미얀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남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남아있는 동남아의 유적과 유물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여실히 증명된다.

특히 고대 미얀마에서는 상좌불교가 주요종교로 공인되기 전 대승불교와 밀교가 함께 신봉됐다. 고대 미얀마 유적에서는 상좌부 불교와 대승불교의 여러 보살상과 밀교의 따라(Tara)상이 함께 출토되고 있다. 나아가 힌두교 등 여러 종교문화도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문화 상황은 11세기경까지 계속된다. 그러던 것이 점차 상좌불교가 선택됐다. 이는 불교역사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다.

왜, 그리고 어떻게 상좌불교가 대승불교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현재까지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는 미얀마 뿐만이 아니다. 중국 영향이 강력한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 대부분 나라들이 대승불교가 함께 전래됐지만 최종적으로 상좌불교를 선택했고 약 100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일반사회에 매우 뿌리깊이 정착됐다.



버강은 '파고다의 도시' 로 알려질 만큼 수많은 불탑들이 있다. 버강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 사원과 함께 세계 3대 불교유적지로 꼽힌다. 버강 왕조 당시 상좌불교가 중흥하며 미얀마에 자리 잡혔다.



버강에 위치한 마누하 사원의 거대한 와불상.



아난다 사원에서의 보수작업 모습



까리야니(Kalyani) 시마(sima : 界) 비문이 있는 사원에서 아상가 교수

현재 버마계의 또 다른 선주민으로는 몬족 외에도 '퓨(Pyu)족' 이 꼽힌다. 중국에서 퓨는 '표(驃)' 라는 말로도 알려져 있다. 퓨족은 몬족과 함께 에야워디 강 하류에 나라를 세웠다.

대략 B.C.E. 200년에서 C.E. 900년 정도의 기간으로 본다. 7~8세기경에 이 나라를 방문했던 중국인들의 문헌에는 국왕이 적극적으로 불교를 보호하고 장려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문헌들은 성의 네 모퉁이마다의 불탑, 금은으로 장엄했으며 수많은 사찰에 사람들은 두터운 불심을 지녔다고 전하고 있다. 또 불교 영향으로 퓨족이 온화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생명을 귀히 여겨 함부로 살생하지 않는다고도 전하고 있다.

당시 퓨족은 남녀 모두 7~10살 가량에 모두 삭발하고 절에 들어가 불교공부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은 현재 미얀마 불교문화인 신뿌의식과도 닮았다.

당시 미얀마 곳곳에는 이미 인도 등과의 교역으로 불교문화가 형성되어 내려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버강왕조 거치며 상좌불교 중흥

미얀마에 상좌불교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은 11세기경 버강(Bagan)왕조를 거치면서다. 버강왕조는 미얀마 최초의 통일국가로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성세를 누렸다. 버강왕조의 수도였던 버강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 사원과 함께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꼽힐 정도로 수많은 불탑들이 있다. 버강은 '파고다의 도시' 로도 알려져 있는데 파고다는 약 2500여 개로 추산된다. 지금도 수많은 파고다가 도시 전체에 산재해 있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마치 숲과 같은 버강의 파고다를 둘러보면 절로 미얀마인들의 지극한 불심이 느껴진다. 국토를 불국토화하려는 신앙심은 신라시대 불국토 사상의 상징이 된 경주 남산을 떠오르게 한다. 안타깝게도 버강왕조는 1287년 몽고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하지만 당시 주요 불교문화유적은 현재도 우리를 친절하게 맞이하며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버강왕조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아노라타 왕이 몬족 나라의 수도인 타통을 공격해 함락시킨 것이 계기다. 통일을 꿈꾸던 버강왕조에는 국가 기틀에 구심점이 될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버강왕조의 아노라타 왕은 불교로 국가 구심점을 삼고자 했다. 아노라타 왕은 몬족 마누하 왕에게 불교경전과 승려의 파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마누하 왕은 이를 거절하고 아노라타 왕은 타통을 침공해 함락시킨다.

이 때 버강왕조는 정책적으로 몬족 승려를 데려오고 빠알리 경전 등을 보급했다. 버강왕조 자문을 몬족 출신 '신 아라한(Shin Arahan)' 스님이 맡을 정도였다.

'버마계' 의 버강왕조가 처음 상좌불교를 수용하였던 것은 전적으로 몬족의 불교문화였던 것이다. 다시 왕은 적극적으로 스리랑카에 몬족 출신 불교 사절단을 파견해 불교 경전과 주석서 등을 구해 오게 하여 연구하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버강왕조 당시 빠알리어 공부와 경전 연구 등 교학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현재 미얀마 불교의 특징은 같은 상좌불교권에서도 비교적 아비달마 공부와 경전어인 빠알리 문법학 연구의 비중이 높다. 이는 인도에 유학 온 같은 상좌불교국 스님들 간에도 미얀마 출신 스님들이 아비달마와 빠알리 문법학에 특출한 데서 드러난다. 이러한 미얀마 불교전통은 이미 12세기 때 확립된 것이다. 800년이라는 불교 공부 전통이 현재까지 살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 버고왕조 당시 스리랑카와 불교 교류

미얀마 불교사에 있어 주목할 만한 일은 15세기경 버고(Bugo) 왕조 시대의 담마제디(dhammazedi) 왕 때다. 담마제디 왕은 스리랑카로 비구 장로들을 파견해 스리랑카 대사파(大寺派 : Mahavihara)로부터 수계법을 배워오게 했다. 이는 승단을 다시 쇄신시키기 위함이었다. 1476년에 미얀마 비구와 사미들이 해로로 스리랑카에 도착해 수계를 받게 된다. 이는 당시에 잘못 행해지고 있던 미얀마 수계법과 계율 수지를 바로 잡는데 크게 기여한다. 이로 인해 미얀마에서는 사적인 수계나 비밀수계 등이 엄하게 금해졌으며 율장에 기반한 구족계 수계가 이뤄지게 된다. 이 때 스리랑카에서 들여온 수계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은 비문으로도 남아 있다. 까리야니(Kalyani) 시마(sima : 界) 비문이 그것이다.

2012년 12월에 미얀마에서 개최한 '국제불교문화유산 학술대회' 참석 차 이 유적지를 방문했다. 마침 스리랑카 출신 초기불교 전공자인 아상가 교수가 유적지 탐방을 함께 했다. 이른 새벽 택시를 대절해 까리야니에 도착했다. 아상가 교수의 설명으로 이 비문의 역사적 의미를 알게 됐지만 이런 중요한 유적이 거의 방치돼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도굴꾼에 의해 파손이 돼 비문이 쓰인 큰 규모의 반석이 여러덩이로 여기저기 깨져 마치 돌무더기처럼 쌓여 있었다. 녹슨 철조망 너머로 깨진 비석에 쓰인 비문은 지금도 역력하게 보였다. 한참을 철조망 주위를 돌면서 엄청난 규모에 대한 놀라움과 열악한 보존상태에 대한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필자는 아상가 교수에게 이곳을 스리랑카와 미얀마 정부가 공동으로 보존대책을 세워 양국이 불교교류 전통의 의미를 기념하는 유적지로 가꿀 수 있도록 제안했다.

### 법난 때 서로 도와가며 승가 계맥 이어

스리랑카와 동남아 상좌부 불교권의 역사적인 교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도로부터 유래하는 계맥을 중히 여기며 상호 소통해왔다는 점이다. 상좌불교에서는 계맥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상좌불교는 사방승가(四方僧伽) 의식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상호교류하며 스스로 계맥의 정체성을 찾아갔다. 이 점은 고대 한국불교와 중국불교에서 계맥이 불분명한 점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미얀마 상좌불교의 계율 전통을 보면 1192년 미얀마 사빠다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계를 받고 미얀마에 스리랑카 상가를 형성했다. 19세기 초에는 스리랑카 스님 일군이 미얀마에서 계를 받고 되돌아가기도 했다.

이후 외침이나 내분 등으로 자국 불교가 쇠퇴하거나 타락해 정화시키려 할 때는 다른 상좌불교국으로 지원받거나, 불교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활동을 전개해 불법이 끊이지 않고 계승되도록 서로 도왔다.

이런 상좌불교권의 상호 소통은 교리와 계율 그리고 실천의 문제에서 나라가 다르더라도 같은 교단이라는 단일성을 지니게 했다. 지금도 미얀마나 스리랑카 사찰이나 수행처에서는 국적이 다른 스님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되어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문제는 대승불교권 스님들은 같이 포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대승불교권 스님들은 뒷켠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같은 불교이지만 현전승가로 포살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일이 불교사에 있어 그리고 교단사에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대승불교 흥기 이래 초기불교권과 아직도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상존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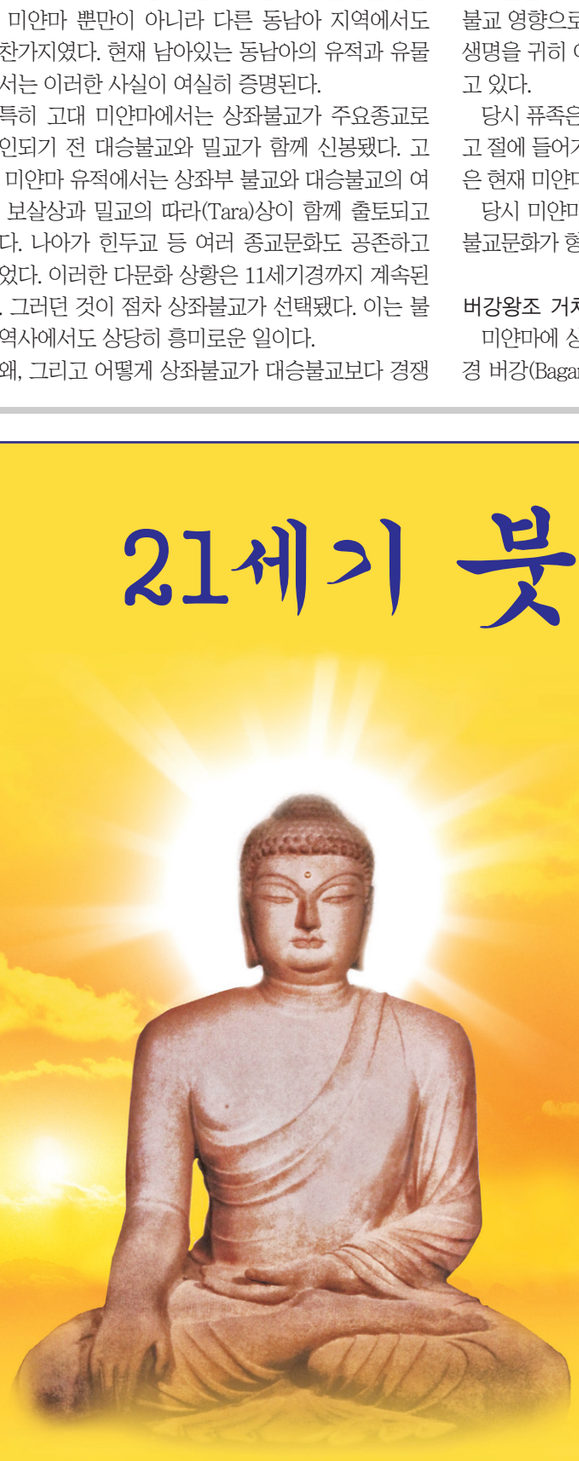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개정판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읽어야 할
영산불교 현지사의 양서

영혼체 윤회론
[ 158쪽 10,000원 ]
2천년간의
무아와 윤회주체의
모순을 해결하다

관음태교
[ 227쪽 10,000원 ]
영혼체 태교법인
관음태교의
이론과 실제

추천 도서

영산불교 새천수경
[ 131쪽 7,000원 ]
천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음신앙을
바로 정립한 역작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재
[ 33쪽 무료배포 ]
현지사 천도재 안내

# 서울 대원암에 친견 인파 구름처럼 운집



## 方山老의 無影樹 〈13〉

###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박재원



**박재원** 한마음선원 상임고문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국제불교도협의회 수석부회장
익성회 회장, 한마음선원 이사
한마음 전국불자회 전국회장 등 역임

**"나는 만담가 아니야!" 강연 거절**
**청년모임 익성회, 스님 도우며 공부**
**부산 법회에 5만명 참석**
**탄허 스님 소개로 한마음선원과 인연**

**-회장님과 탄허 스님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요?**

저는 연세대 사학과를 나와서 5·16이 나던 해(1961)부터 국사편찬위원회의 편사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일을 하다가 문집 같은 것을 보면 왕도정치니 천리(天理)와 같은 개념이 나와요. 이런 것은 한문으로도 직역이 잘 안 되는 철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공부 좀 해서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방면에 조예가 깊은 탄허 스님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요?**

그 시절에 저는 30여 명의 청년지도자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친목회 성격이었지요.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었지만, 저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탄허 스님에게 가서 인사도 하고, 자주 뵈러 갔어요. 스님은 그럴 때면 저희들에게 질문을 툭 던지시고,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 궁리를 하면서 자꾸 친해갔죠. 그러나 스님은 저희들의 질문에는 잘 대답하시지 않는 조금은 오만한 분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스님이 서울에 오시면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는 등 친근하게 모시다가 10여 년이 된 1970년대 후반 무렵에 저희들의 모임은 익성회라는 이름을 띠고 새출발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스님께서 익성회(溺誠會)라는 단체명을 지어 주시고, 그 뜻을 적어도 주셨습니다. 즉 스님이 익성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때 스님께서는 저희 회원 30명 전부에게 수계 법명을 개인적으로 지어 주시고, 그를 증명하는 문건을 직접 붓으로 써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받은 이름은 도안(道眼)입니다. 저는 익성회의 회장으로 활동을 하여 1980년까지 회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익성회 회원들에게 우리가 스님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회원들은 가정형편이 비교적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외교구락부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교육, 정치, 철학, 사상, 종교, 문학 등 각 방면의 권위자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저녁식사 대접을 하고 헤어지는 행사를 몇 년간 하였는데 이런 것에도 탄허 스님이 버팀목이 되어 주셨지요. 그 시절에 탄허 스님을 따르던 서울법대 전창열, 명호근 등의 불교학생회 출신들이 스님에게 많이 배우고 있었지만 우리와는 차원이 조금 다르지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스님이 서울에 오셨다고 해서, 내가 대원암에 가보면 대원암에는 스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운집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스님의 지식, 학식을 배우려고 하였고 간혹은 스님에게 글씨를 받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님에게서 무엇인가를 가져가려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스님의 경륜, 뜻을 바깥으로 널리 펴지게 도와주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스님이 서울에 오시면, 시자 스님으로부터 저에게 전화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부리나케 쫓아가서 뵙고, 어떤 때에는 외부에 같이 가기도 합니다. 석관동에 있는 박초당 선생 집에 공양갈 때에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박초당 여사가 저를 좋아했어요. 그 분도 박가(朴家)이고, 나도 박가라 친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경주에 신라오릉보존회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박씨만 300만 명이 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박씨 종친회를 조직해서 내가 상임을 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행사를 하면 우리 회원 20여 명이 몇 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같이 가서 행사를 하는데, 올 때에는 꼭 학하리(장경각)에 들러서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스님의 경륜을 외부로 알렸다는 내용을 들려주시지요.**

제가 스님에게 부탁을 해서 거절당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익성회가 주관을 해서 탄허 스님을 모시고, 전국에 다니면서 순회 법회를 가졌습니다. 스님은 외부 법회에 가서 하는 강연 같은 것을 잘 응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강연 요청을 하면, "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못 알아들을 말을 나보고 씨부리라는 것이냐! 나는 만담가가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찾아가서 강연 부탁을 하면 대부분 들어주셨어요. 저는 "법회 계획을 갖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면, 스님은 '글쎄요' 하시면서도 긍정도 부정도 안 해요. 혹은 '알았습니다' 라고도 하셨지만요. 그래서 나중에 힘을 모으자고 해서 대전, 대구, 부산에서 전국 법회를 기획하였습니다.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할 때에는 5만 명이나 왔고, 대구에서 할 때에도 3만 명이 왔어요. 우리 30여 명 회원들이 대불련 관계, 천태종 관계 등 각종 조직을 동원하는 활동을 해서 그런 인파가 온 것입니다. 부산 구덕체육관 행사에서는 2만 명은 체육관에 들어오고, 3만 명은 바깥에서 들었어요. 우리 회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행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때 통도사의 경봉 스님이 오셔서 탄허 스님에게 "아니 탄허당은 말야, 내가 통도사 절 바깥에서 한 부산 시민회관 강연회에 모인 숫자가 2400명이 최고인데, 당신이 내 마당에 와서 5만 명이라는 사람을 모아서 강연을 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였습니다. 이 강연회의 내용은 불교와 동양철학이었는데 그것은 탄허 스님의 법문집 〈부처님이 계신다면〉과 이번에 우담거사가 만든 〈연보〉에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불교 법회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온 법회는 없어요. 그때 그 법회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어요. 내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부처님이 계신다면〉을 우담거사가 만들 때에 우리 종친회 사무실에서 하였어요. 내가 종친회 상임이사장을 하니깐 사무실이 허리우드 극장이 있는 낙원빌딩 314호실이었는데, 거기에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 회장님이 대통령 출마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탄허 스님과 여기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 부탁에서 나온 것입니다. 1980년에 10·27법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탄허 스님과 대행 스님이 법난이 일어나서 불교가 당하였으니 불교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스님에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들은 것은 대원암입니다. 탄허 스님은 저에게 "투쟁을 해다오"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스님이 저를 믿었어요. 스님은 당명까지 지어주셨어요. 스님이 당명, 방향 등 그런 것에 대해서 구두로 말씀하시면 저는 전부 메모해서 진행을 하였지요. 그때 스님이 써주신 설명서가 다 있었는데 제가 만든 당이 탄압을 받고 수색을 당하는 바람에 전부 유실되었습니다.

하여간 그때에 스님은 저에게 당신께서 마지막에 내가 하는 정치에 모든 것을 걸어보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익성회 회원들에게 동의를 다 받아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창당은 익성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었고, 그 밖에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일민립당(圓一民立黨)이라는 당명까지도 정해 주시고, 정관도 나오고, 창당준비위원회도 조직하고, 창립대회도 준비하고 정당의 골격을 갖추고 전국 27군데에 지구당 조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롯데호텔에서 창당대회를 하고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는 날, 입후보하려고 하는데 어떤 허름한 호텔에 갇혔어요. 잡혀간 것이지요. 잡혀가서 이십 몇 일을 갇혀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등록을 안 받으려고 피하고 그래서 우리쪽 사람들이 가서 실력행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깐 선거 벽보도 못 나왔지요. 그때(1981.2) 후보로 나온 사람이 민정당의 전두환과 민한당의 유치송인가 단 두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대행 스님도 이런 일에 탄허 스님과 뜻을 같이했어요. 대행 스님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행 스님을 여자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큰일납니다. 탄허 스님은 정치의식, 민족의식이 대단한 스님이었지요.

**-탄허 스님의 글씨는 유명하지요. 고문님은 보관하고 계시나요?**

저는 스님에게 글씨를 백 수십 개를 받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한 점도 보관하고 있지를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경주의 행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꼭 장경각을 들립니다. 스님이 계시면 인사를 드리지요. 그러다가 1978년인가 들렸더니 스님께서 학하리에 바로 옆의 딸기밭을 샀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딸기밭에 담장을 치면 그 안에 건물을 쉽게 지을 수 있다고 역학으로 풀이하시면서 담장을 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옆에 있는 시자에게 얼마가 드느냐고 물어보니 1600만 원인가 그렇다고 해서 회원들에게 얼마씩을 배당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날 밤, 스님은 밤새도록 붓글씨를 써서 법화경으로 8쪽의 병풍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써주시면서 유묵 몇십 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회원들에게 한 점씩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때 회원들이 개인당 50만 원씩 냈을 것입니다. 그때 돈 5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글씨와 관계된 비화는 없을까요?**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조중훈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 회갑 때에 선물을 뭘 드릴까 궁리하다가 스님의 글씨를 받아서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해서 대원암으로 찾아와서 박대통령이 스님의 글씨를 참 좋아하시니깐 하나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두 시간 동안 대답을 않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자가 저에게 전화 연락이 오기를, 회장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 급히 와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와 대원암으로 달려갔지요. 대원암에 가서 스님에게 "저 왔습니다" 하고 들어갔더니 스님은 조회장을 앉혀놓고 눈을 감고 계셔요. 저는 스님에게 "스님의 글씨를 한 점 조회장에게 드리지요"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조회장에게 "박대통령이 내 글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하면 되는 것이지 조회장에게 부탁할 일이 있나요"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면에서는 스님은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면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수타사에 맡겨 놓은 스님의 유묵에서 한 점을 갖고 오라고 해서 조회장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연유가 돼서 스님이 인도 성지순례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진에서 스님의 전용차를 준비하고, 비행기를 준비시켜서 갔다 오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갖다가 돌아오신 때에, 스님 생신 파티 겸 성지순례 보고회를 겸해서 하얏트호텔 오렌지룸에서 파티를 제가 주관해서 열어 드렸습니다. 그때 300명을 모셨습니다. 참! 저도 개인적으로 스님 글씨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어머님이 후두암으로 3년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스님께서 나를 특별히 생각하셨는지 진묵대사 49재 제문을 쓰셔서 저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병풍으로 해서 놔두었는데 우리 모친이 돌아가셔서 용인공원 묘지에 모셨어요. 그때가 12월이었는데, 옷가지와 유품을 불에 태우다가 그 불씨가 갖고 간 그 병풍에 옮겨 붙어서 그만 그 자리에서 불에 타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스님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였지요.

**-그 시절의 조계종 종정은 성철 스님이었는데, 탄허 스님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 두 스님은 다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탄허 스님의 재가 제자에 이름이 얹혀져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무게의 중심을 탄허 스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허 스님 같은 분은 나올 수가 없어요. 유불선을 회통하신 실력,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의식, 미래를 전망하는 예지력 등은 그 누구의 추종을 불허하지요. 지금 스님들은 불교의 선, 교 중에서 일부분만 조금 알지요. 나도 국제불교도협의회를 할 때에 성철 스님을 뵙고 그랬지만 저는 탄허 스님을 더 존경합니다. 다만 성철 스님은 제자 분들을 잘 두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철 스님의 추모, 계승, 사상 정리 등이 잘 되었고 그에 비해서 탄허 스님은 그런 점이 약해요. 저는 그 점이 상당이 아쉬워요. 탄허 스님에게도 각성·무비·혜거 스님 등이 있기야 있지만 오대산과 재단이 불편한 것도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고, 몸도 불편합니다. 내 나이가 60대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뛰어보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요.

**-탄허 스님과 대행 스님 간에도 인연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인연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추후에는 그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곳 한마음선원에 오게 된 것은 탄허 스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제가 이곳에 온 것은 1970년 대 초부터입니다. 탄허 스님이 대행 스님을 도와서, 대행 스님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여간에 탄허 스님은 대행 스님을 자주 찾아와서 대화를 하시고 그랬어요. 또 1978년부터 3년 동안을 이곳에 오셔서 대중 300여 명에게 화엄경 강의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 대중에는 이곳의 스님과 재가자 그리고 천주교의 수녀도 있었어요. 강의하실 때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셨습니다. 또 1979년에는 탄허 스님을 모시고 대한불교회관(지금은 한마음과학원 건물, 구 법당) 신축을 위한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그때 에 '덕도지도' 라는 좋은 글씨도 써주셨지요. 탄허 스님이 한마음선원을 조계종으로 등록케 하여 좋은 방향으로 회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익성회 회원들의 부인들을 조직하여 심단회(心丹會)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도 탄허 스님을 뒷바라지를 해드리고 스님 법문도 듣고 그랬어요. 그 대표가 김영숙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익성회 회원, 심단회 회원을 이곳 한마음선원으로 데려와서 불교 활동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주)에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품 격 ■ 지장도량 / 관음도량 성지순례 (구화산. 황산. 보타산. 낙가산) 7일 –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 성지순례 4일 –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 성지순례 4일 –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석가장)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낙산)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품 격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직항) 6일 – 139만원
품 격 ■ 스리랑카 정통성지순례(직항) 7일 – 199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

초특가 확정출발 5월22일,29일(단 2회) 양곤/바고/시리암 5일 90만원
양곤/바고/시리암(직항) 5일 – 99만원
양곤/바간/헤호 5일 – 15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16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황금파고다/철야기도 가능) 7일 - 요금문의

(주) 마하연 투어 ☎02)365-7747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 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 세로 20cm
가격 35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 문의 고전 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 “고기 잡고 나면 통발 잊어라”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20〉



범어사 주지



그림 · 박구원

**“참다운 법이란 없었나요”**
**“묻는 곳에서 전도 되는구나”**
**“대답하신 곳은 어떠십니까”**
**“남의일에 상관할 것 없다”**

**알음알이 배우는데 뜻을 내면**
**도에는 도리어 어둡게 된다**

**대승의 마음은 안팎 중간 등**
**실로 방위와 처소가 없다**
**사량 다하면 방위 처소 없어**

**놓을줄 모르면 허물을 짓는다**
**눈밝은 사람 만나 최선다해**
**근본 해결해야 ‘도’ 알게돼**

## 말에 떨어지다

**“스님께서는 제가 한 말씀이라도 드리기만 하면, 어찌해서 바로 ‘말에 떨어진다[話墮]’고 하십니까?” “네 스스로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거늘, 무슨 잘못에 떨어짐이 있겠느냐?”**

‘너 스스로 못 알아듣는 것이 허물이지, 그 자리에 무슨 허물이 있겠어?’ 하는 말이다. 말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것은 배휴 자신이 분별하는 것일 뿐이다. 황벽스님이 뭐라고 말하든, 배휴가 거기에 사로잡혀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만이다.

## 사문이란 무심한 사람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허다한 언설들이 모두 방편으로 대답한 것들이어서,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인 실다운 법이란 대개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실다운 법이란 전도됨이 없거늘, 네 지금 묻는 곳에서 스스로 전도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무슨 실다운 법을 찾는다는 말이냐?”**

실상은 한 번도 실다운 법을 떠나서 작용한 적이 없다. 다만 사람이 스스로 보지 못하고 전도몽상 하고 있는 것이다.

**“묻는 곳에서 이미 스스로 전도된 것이라면, 스님께서 대답하신 곳은 어떠하십니까?”**

**“사물을 통해 자신을 비춰볼지언정, 남의 일에는 상관할 것이 없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개와도 같아서 움직이는 물건을 보기만 하면 문득 짖어대니, 바람에 흔들리는 초목과 또한 다르지 않다.”**

**이어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이 선종은 위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이래, 알음알이[知解]를 구하게 한 적은 없었다. 오로지 ‘도를 배우라.’고 했지만, 이것도 교화하는 방편으로 한 말이다. 사실 도 또한 배울 수 없는 것으로서, 알음알이를 배우는데 뜻을 내면 도에는 도리어 어둡게 된다.**

닦아야할 도가 없거늘, 무엇을 가져서 닦고 말고 하겠나. 논리적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허물을 범하는 줄 모르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공부하는 줄 착각하지만, 그런 것은 공부가 아니다. 아무 재미가 없든 하루 종일 재미가 나든, ‘아냐, 모르냐’ 만을 중요하게 여긴다.

**도에 일정한 방위와 처소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대승의 마음[大乘心]이라고 한다. 이 마음은 안팎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아서 실로 방위와 처소가 없다.**

분별심 때문에 진짜 귀한 것을 놓치고 산다. 하지만 한 생각 돌이킨 뒤에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은 분별심이 아니다. 하루 종일 분별해도 분별한 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놓을 줄 알면 되지만, 놓을 줄 모르면 일으키는 것마다 허물을 짓는 것이다.

**절대로 알음알이를 지어 사량[思量]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만일 사량이 다하면, 마음에는 방위도 처소도 없다. 이 도는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다. 다만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량으로 헤아리며 미혹하므로, 모든 부처님께서 나오시어 이 일을 자상히 설명하신 것이다.**

사람들은 자꾸 찾고 구하고 헤아리기를 반복한다. 그렇게 배우고 이해는 해도, 도를 밝히지는 못한다. 따라서 스스로 그림자를 만들고 속아 넘어가는 허망한 짓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눈 밝은 사람을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가져야, 비로소 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 염려하셔서 방편으로 ‘도’라는 이름을 세우셨으니, 이름에 얽매여서 알음알이를 내서는 안 된다.**

‘도’라고 하니까 다시 ‘도’라고 따라하며 그림자를 만든다. 그리고는 배운 대로 이해하여, 마치 깨달은 양 착각한다. 하지만 돈오하는 체험 없이 이해만으로는, 어떤 것도 소화하지 못한다. 이론적인 근거를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이, 한 생각 돌이켜서 ‘이것이로구나!’ 하는 맛을 본다면 흔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고기를 잡고나면 통발을 잊어버려라!’ 고 하는 것이다. 목적을 이뤘으면 수단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워 도에 통달하고 마음을 알게 된다. 본원에 통달했기에 사문(沙門)이라 부른다.**

머리를 깎지 않았어도, 도 깨쳐서 훤칠한 사람이 사문이다. 한 생각 돌이켜 근본 모습을 보고,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닌 자리로 나아가는 문을 해탈문 혹은 불이문이라고 한다. 이 문에 들어간 이를 사문이라고 하는 것이지, 절집에 살면서 입구에 세워놓은 불이문을 드나든다고 해서 사문이 아니다. 마음 깨친 사람이 사는 곳이 진정한 절집이다.

**사문의 과보는 사려를 그쳐서 이루는 것이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남의 셋집 살듯,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구하면서 배워서 얻으려 하니, 대체 언제 이루겠는가? 옛 사람들은 총명하여 한마디 듣자마자 당장에 배움을 끊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움을 끊어 할 일이 없는 한가로운 도인’이라고 했던 것이다. 반면 지금 사람들은 한없이 알음알이를 구하고, 널리 글의 뜻을 캐면서 그것을 수행이라고 한다. 하지만 넓은 지식과 견해 때문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많이 배워서 학문적인 바탕이 뛰어난 사람이 지식을 전달하고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진정한 불조의 가풍을 이으려면, 세속적인 배움에 나가떨어져서는 안 된다.

---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⑦⓪



## 모든 훌륭한 선인(善人)들을 다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아미타경〉

나는 착한 사람인가?

우리는 왜 극락에 가야 할까? “이와 같은 모든 훌륭한 선인들을 다 한 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극락에 갈 수 있다면, 나 역시 착한 사람이리라. 역으로 만약 착한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결코 극락에 갈 수 없으리라.

나는 극락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사람인가? 과연 어느 정도 착하면 ‘착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극락에 갈 정도로 착하려면, 어느 정도 착해야 하는 것일까? 예를 들면, 금생에 들어와서 나쁜 일은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몸으로 행동으로만 착하면 되는가? 아니면 마음 속에도 번뇌나 망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일까? 만약 마음 속에서도 번뇌가 없어야 착한 사람이라 한다면,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손들고 나설 사람이 쉽지는 않을 것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착한 사람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전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관무량수경〉은 아홉가지 단계(九品)의 왕생을 제시한다. 극락에 가는 사람들의 착한 정도 역시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착한 마음으로 살아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극락에 갈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리라.

그뿐인가. 〈무량수경〉의 제18원은, 도저히 극락에는 올 수 없는 악인을 규정하고 있다. “오역죄(五逆罪)를 지은 자와 정법을 비방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극락에 올 수 없다” 했다. 아무리 아미타불을 십념(十念)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만은 제외한다”는 구절이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극락에서 만날(俱會一處) 수 있다.

나는 나쁜 사람인가?

윤리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 제시이다. 착한 일은 하고 나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한 윤리의 제시로서 〈무량수경〉의 입장은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과연 윤리의 범주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일까?

“악한 짓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벌을 받아라.” 이런 입장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 종사하는 분들의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종교마저 그러한 윤리적 차원의 범위 안에서만 존재한다면 문제가 아닐까? 물론 종교라고 해서 윤리적 차원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윤리와는 다른 차원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종교 역시 오역죄나 정법을 비방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징벌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종교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들은 제도의 대상이 아닌가? 그들은 불쌍한 중생이 아닌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에 불쌍하지 않은가? 불교가 진정으로 자비의 종교라고 한다면, 그들까지도 제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인지 어떤지는 잘 알 수



그림 · 박구원

없지만, 〈무량수경〉 제18원을 깊이 사유했던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다 한다. “착한 사람도 극락에 가는데, 하물며 악한 사람이랴.” 이른바 ‘악인정기설(惡人正機說)’이다. 그러면 악을 행하리까?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을지 모른다. 원효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도 하지 말라 했거늘, 하물며 악이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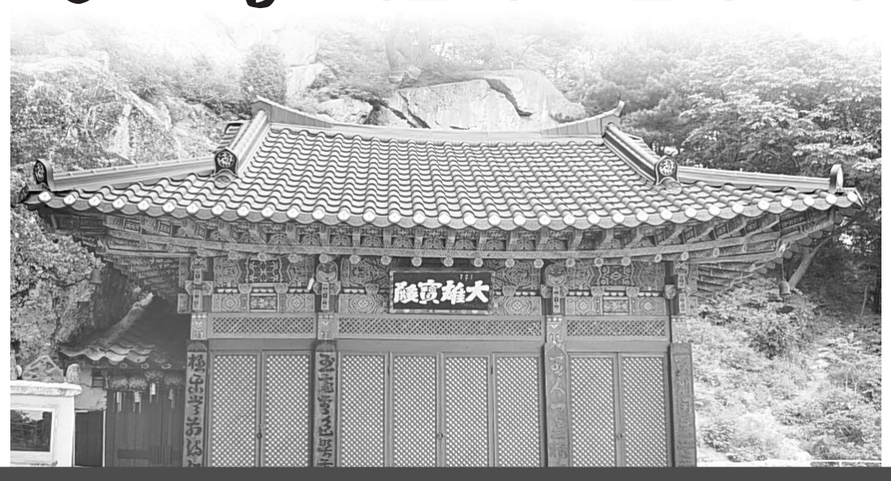
그러니 악한 일을 더 해라, 그래야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 이 악인정기설은, 과연 〈무량수경〉의 반역(反逆)인가? 아니면 보완(補完)인가?

나 역시 아직 이 악인정기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는 못한다. 그저 “나는 악인이다. 도저히 극락에는 갈 수 없는 악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이야말로 참으로 착한 사람일 것이라 생각할 뿐이다. 그야말로 상선인(上善人)이 아닐까.

나무아미타불!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 '선림의 애꾸눈' … 추사, 신랄히 비판

추사의 명성은 정치적인 몰락에도 여전했던 듯하다. 조선을 대표했던 그의 예술과 학문적 궁리는 사람을 끌어 들이는 강인한 흡인력이 있었던가. "영남의 스님이 이제 돌아간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왔다가 무엇을 보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추사의 고백은 당시의 이러한 정황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 편지는 〈나가묵연첩〉과 〈영해타운첩〉에 함께 수록된 것으로, 초의에게 청한 그의 걸명(乞茗)이외에도 조선 후기 불교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의 신랄한 비평은 다음과 같다.

두통의 편지는 이미 박아 편에 부쳤습니다. 영남의 스님이 이제 돌아간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왔다가 무엇을 보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뜬 구름 같은 황당한 말은 대략 타파한 것이 있는 듯 합니다만 그의 놀란 듯 눈이 휘둥그레진 모습이 우습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천품은 참으로 좋지만 들은 것이 모두 그 모양으로 황당한 것들이었습니다. 요즘 선림에서 애꾸눈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동요 시키는 것이 기괴한 말뿐이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차에 대한 일은 앞의 편지에서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작은 떡차 몇 십 편으로는 얼마간도 지탱하지 못할 것이니 100원어치만 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7월 20일 늑만휴가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답장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추후에 보내겠습니다. 이 뜻을 전해 주십시오.

(兩角書 已付朴雅矣 嶺衲今又告歸 不知其何所聞而來何所見而去也 其浮雲荒唐之說 略有打破者



〈영해타운첩〉에 수록된 추사 편지.

**백파의 견해 그릇됨 지적**
**초의 또한 백파 선리 비판**
**대흥사서 떡차 만든것 밝혀져**

其眼似瞎乎爾 更覺一笑 其天分極好而所得聞者皆如許荒襍 近日禪林中瞎却人動 輒奇怪耳 重呵重呵 茶事前書亦有縷及而小團數十片 恐不支幾時供 限百圓可以買取則似好 再深商之 如何如何 泐餘姑留不宣 七月二十日 泐 万休有書 今未及答當追付 及此意也)

박아 편에 보냈다는 편지(7월 16일)는 지난 호에 소개한 바 있거니와 4일 만에 다시 차를 재촉하는 편지를 연이어 보낸 셈이다. 추사에게 초의의 편지를 전해 준 영남에서 온 스님은 4일 만에 추사와 이별을 고한 듯, 그와 나눈 학문적 교감을, "(그 사람의) 뜬 구름 같은 황당한 말은 대략 타파한 것이 있는 듯 합니다만 그의 놀란 듯 눈이 휘둥그레진 모습이 우습게 느껴집니다"라고 하였다. 아마 추사의 막힘없는 불교관이나 경전의 이해에 놀란 영남 스님의 태도를 이리 표현한 듯하다.

이어 추사는 "그 사람의 천품은 참으로 좋지만 들은 것이 모두 그 모양으로 황당한 것들이"였다는 자평을 초의에게 말한 것이다. 이 무렵 백파의 선리 문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는 당시 불교계의 그릇된 편견을 "요즘 선림에서 애꾸눈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동요 시키는 것이 기괴한 말뿐이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라고 할 정도였다. 백파가 자신의 선리에 대한 견해를 보냈지만 추사는 백파의 견해를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초의 또한 〈선문사변만어〉에서 백파의 선리에 그릇됨을 지적하였고, 추사는 초의를 옹호한 바 있다.

제주 적거에서 차에 의지했던 추사는 "차에 대한 일은 앞의 편지에서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작은 떡차 몇 십 편으로는 얼마간도 지탱하지 못할 것이니 100원어치만 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 하였다. 쓸쓸한 적거지에서 추사를 위로했던 차는 추사의 일용품 중에 가장 소중한 물품이었다. 아울러 대흥사에서는 늦게 딴 찻잎으로 작은 떡차를 만든 사실도 함께 밝혀진 셈이다. 만휴는 초의의 제자로, 추사와 교류했던 대흥사 승려이다. 실제 〈영해타운첩〉에는 "만휴가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답장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추후에 보내겠습니다. 이 뜻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한 대목이 누락되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는 분을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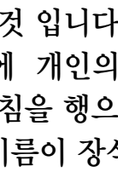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500인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高僧 및 元老 선정(宗師, 大宗師 급만 동참 가능)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법하께서도 법왕청 및 승왕청에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한국 및 세계 고승 500인 한분 한분의 공적과 활동 내역을 기록한*
*고승 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지구촌 곳곳에 배포하여 간직하게 할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 입니다.
세계 법왕청을 설립하고 법왕 및 승왕을 추대하고자 하는 불교사에 개인의 명예와 독선조차 하심으로 자신을 내려 놓으시고 헌신적 희생정신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십시요.
법왕청 설립에 헌신하신 업적이 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큰스님의 이름이 장식되었으면 합니다.

**世界 法王 & 僧王 推戴委員會**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 시작했습니다**
**世界佛教高僧團人名辭典**
세계 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1인 A4용지 1장 분량 소개
세계 고승단 인명 사전 편찬 진행중입니다.

**법하께서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 500인. 법왕청 및 승왕청 내각 580인**
자랑스런 불교계 고승단 큰스님 총 1080인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심을 모든 스님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불교사의 영광이요 불교계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개별통지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한국불교 범종단 총연합 협의회 회 장**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 "사람의 마음 울리는 종소리는 내 화두 깨달음의 길이죠"

## 50년 외길 걸은 원광식 주철장(성종사대표)

2012년 12월 25일 대만 불광산사에서는 불타기념관 낙성식이 열렸다.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시기 위해 10여 년 간 공사 끝에 모습을 드러낸 수십만 평의 장엄한 건물 사이로는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글라스를 쓴 채 이 종을 바라보던 한 노인에게 불광산사 회주 성운 스님은 "훌륭하게 종을 만들어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 노인의 표정은 마치 장성한 딸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표정처럼 밝지만은 못했다. 대만 최대 범종을 만들기 위해 15개월 동안 자식 종아리에 회초리 들듯 직접 망치를 두드린 '정' 도 있지만 이제 세계에도 한국 범종의 소리를 본격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 노인은 50년간 종 하나에 인생을 바친 중요 무형문화재 112호인 주철장 기능보유자 원광식(72) 성종사 대표다. 용광로의 열기와 같은 한여름 날씨가 막 몰려오는 5월 중순. 원 대표의 작업장인 충북 진천 성종사(聖鐘社)를 찾았다.

7000평의 부지에 2.5t짜리 용광로 22개를 갖춘 성종사. 뚝딱뚝딱 소리가 들리는 드넓은 작업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정자에서 원 대표를 만났다. 원 대표는 굳은 살이 잔득 박힌 손을 내밀며 "뭘 이런 곳까지 찾아오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국내 범종 제작 1인자로 꼽히는 그는 "대만 불광산사에 대만 최대 종을 만들어주셨습니다"라고 말하자 가슴 속에 품었던 종 이야기를 막힘없이 풀어냈다.

### 눈 한쪽 잃은 만큼 더욱 열정 쏟아

원 대표의 종 만들기는 1963년부터였다. 중학교를 마치고 자동차 정비를 배웠으나 흥미를 못 느낀 원 대표는 군대 제대 후 21세가 되던 해 할아버지 원덕중씨와 8촌 형 원국진 씨가 운영하던 '성종사' 에 들어가 기술을 전수받았다.

원 대표에서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왔다. 한창 기술을 배워가고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1969년이었다. 거푸집에 용광로를 기울이는 순간 1000도가 넘는 쇳물이 튀어 한쪽 눈을 잃고 말았다.

"결혼도 곧 했겠다. 젊은 나이에 눈을 잃고 나니 세상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종 만드는 일을 접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면 종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원 대표는 종과의 인연을 쉽게 끊을 수는 없었다. 종을 만드느라 한쪽 눈까지 잃었기에 더욱 제대로 된 종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더 강렬했다.

그는 1970년 종 만드는 현장에 돌아왔다. 수덕사가 광복 후 최대 규모의 종 제작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이때 원 대표는 머리를 깎고 대웅전 옆에 작업장을 만들어 종 제작에 꼬박 3년 동안을 불철주야 매달렸다. '종소리가 30리를 간다' 는 수덕사 종의 탄생이었다.

"아침 예불과 저녁 예불에 빠짐없이 참여했어요. 좋은 종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처님 법도 더 많이 퍼지겠지 하는 생각에 잘 만들어야겠다는 신심이 생겼습니다. 법회를 하고 타종식을 하는데 울리는 소리가 정말 제 마음에 환희심을 솟아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수덕사 종을 계기로 원 대표의 기술은 입소문이 났다. 1973년 8촌 형이 사망하자 그는 성종사를 인수했다. 성종사는 처음에는 교회종과 학교 종까지 만들었지만 원광식 대표가 인수하며 범종 전문 제작사로 변신했다. 원 대표는 1975년 범어사 범종을 제작하며 고암 스님께 '범산' 이라는 법명을 받기도 했다.

### 밀랍주조기법 연구에 7년 매달려

1960년대에는 전쟁 직후로 사찰에 종이 많지않았다. 이후 경제가 활성화되며 종 주조 주문이 쇄도 했다. 1985년 광복 40년 기념으로 만든 보신각 종도 원 대표의 작품일 정도로 그는 국내 최고 범종 제작자로 명성을 날렸다. 하지만 원 대표는 가슴이 항상 답답했다. 1000년 전 옛 장인들이 만들었던 그 종소리를 재현하지 못했다는 마음에서였다.

그는 옛 선조들의 종 제작 비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일본으로 갔다. 일본 절을 방문해 일제가 빼앗아간 신라 · 고려시대 종 5개를 실리콘으로 복제해 이 중 1개를 주물기법으로 복원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그는 신라시대 종을 제작할 때 사용되던 밀랍주조기법에 몰두했다. 하지만 이 기법은 조선 중기 이후 맥이 끊겨 국내 어디에도 관련 문헌과 기록이 없었다.

원 대표는 결국 직접 만들어보자는 마음을 먹었다. 그는 종을 만들었다 깨기를 반복했다. 밀랍과 기름을 배합해 만든 초로 종 모형과 문양을 제작, 외부를 흙으로 둘러싸 열을 가해 초를 녹인 뒤 이 흙 거푸집에 쇳물을 붓는 과정을 반복하며 하나씩 깨달아 갔다. 도가니 속의 열을 고르게 유지하고 불순물의 유입을 막는 방법과 고른 합금을 만들어내는 비법도 찾아냈다.

그러나 흙 거푸집이 1200도의 쇳물을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리기 일쑤였다. 쇳물 온도를 견디며 공기가 빠져나가는 흙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

"숭실대 박물관에서 우연히 동경(銅鏡)을 만든 흙틀을 보고 '바로 이거다' 고 생각이 들었어. 경주 일대

**1963년 군 제대후 종만들기 시작해**
**쇳물 튀어 한쪽눈 잃는 시련 겪어**

**1970년 수덕사 종제작 인생 전환**
**3년 머리깎고 불철주야 심혈쏟아**

**7년 연구로 밀랍주조 개발**
**8000여 국내외종 제작한 '명인'**

**대만 불광산에 최대 범종제작 수출**
**태국지사설립… 중국 · 베트남에도**



직접 종을 만드는 원광식 대표의 모습.



최근 주조한 대만 최대 범종인 불광산사 범종.



**원광식 주철장**은 … 1942년 출생해 1960년 원국진 선생에게 주철을 사사받았다. 1973년 성종사 제2대 대표 취임했으며 1976년 황수영 박사 등을 후원해 한국범종연구회를 발족했다. 선림원종 등 옛 범종을 다수 복원 및 재현했다. 1985년 보신각 새종(5300관)을 제작했으며 1999년에는 임진각 평화의 종(5600관)을 제작하기도 했다. 2000년 '대한민국 명장'으로 지정됐으며 200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1993년까지 한국민속예술연구원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 진천 종박물관 명예 박물관장, 2006년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부이사장, 2006년 한국폴리텍VI대학 명예교수 등에 위촉됐다.

를 샅샅이 뒤져 이 흙 틀과 같은 성분인 활석과 이암(泥岩)을 찾아내 작업에 성공했지. 일본이 빼앗아 간 신라 종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

그는 7년간 밀랍주조 공법에 매달려 1992년 일본 시네마현 광명사의 신라 종을 복원했다. 그 후 그는 신라 상원사 종, 선림원종, 청주 운천동 출토 범종과 고려의 내소사종 등 20여개의 종을 재현했다. 2006년 산불에 녹아내린 낙산사 동종도 밀랍주조 기법으로 복원했다.

원 대표는 광주 민주의 종, 충북 천년대종, 경북 도민의 종 등 수많은 종을 제작해 2000년 '대한민국 명장' 호칭을 얻었고 이듬 해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됐다.

"정확히 몇 개의 종을 만들었는지는 세어 보지 않았는데 사찰 의식에 사용되는 종 제작만도 8000여 개 정도 될 것 습니다."

그가 복원한 종들은 진천군이 2005년 9월 개관한 종 박물관에 전시돼있다. 진천군이 원 대표의 열정을 높이 사 박물관을 지은 것이다.

### 남은 인생, 새 기법 개발에 매진할 것

"지나온 시간은 옛 장인들의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라면 이제 남은 인생은 새로운 종 기법을 만들어내는데 바칠 겁니다."

성종사는 태국 방콕에 지사를 세웠고 베트남 중국 대만 등에도 추가 지사를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와 대만 최대 범종을 수출하고 후속 계약을 진행 중이다.

원 대표는 "과거 방법에만 갇혀 있으면 해외에서 이렇게 한국 종을 찾겠느냐"며 반문했다. 원 대표는 "처음에는 일본에 수없이 다녔는데 일본의 특징은 100~200년 넘게 옛 방식 그대로 만들고 있었다"며 "일본은 시대마다 종 주조가 비슷한데 우리는 신라·고려·조선 시대 종 주조가 확연히 다르다. 이는 옛 선조들이 시대에 맞게 치열하게 주조법을 발전시켜온 결과"라고 말했다.

"요즘은 종이 정밀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옛 주조기법은 잊지 않기 위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지, 꼭 현대에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옛 것에 기반해 끊임없이 기법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원 대표는 당시 기법 연구 개발 등에 과감히 투자했다. 원 대표의 열정은 학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원 대표는 1970년대부터 황수영, 염영하, 이장무 박사 등을 지원해 범종연구회를 만들어 종소리에 대한 분석 등을 진행했다.

원 대표는 "당시에 초기 만들었던 종, 10년 지난 후 만든 종, 30년 지난 후 종소리를 들으면 천양지차"라며 "종 연구에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 종 만드는데 '나'는 아직 젊다

최근 원 대표는 베트남, 대만 등 각 국가의 종모양을 고증해가며 좋은 종소리를 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원 대표는 "동남아 등지에는 모양과 별개로 소리가 좋지 않은 종이 많다"며 "이들 국가에서 기법을 전수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이어 "최근에는 밀랍에서 왁스 기법으로 바뀌었다. 직접 만든 공법도 5번 바뀌었다. 오늘 듣는 소리와 내일 듣는 소리가 다른 만큼 더 아름다운 소리를 위해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72살인데 지금도 직접 공장인부들과 어울려 종을 만들고 시원하게 곡차 한잔 걸칩니다. 제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에요. 전 아닙니다. 놀 시간도 없기에 아플 시간도 없어요. 지금도 팔팔합니다."

원 대표는 청담, 고암 스님 등 수많은 스님들과 인연을 쌓아왔다. 원 대표는 자신의 실력 외에도 스님들이 '종은 원광식, 성종사'라고 신뢰해 주었기에 그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해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원 대표는 "평생을 종과 함께 살아왔지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종소리에는 항상 멀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겸손을 표했다.

"종교를 초월해 산사에서 종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가 없는 이들의 마음에도 와 닿는 소리가 불교의 종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찰에 와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종소리를 남기는데 여생을 바칠 것입니다."

꾸밈없이 그의 말소리가 그토록 그가 만들고 싶어 하던 마음을 울리는 종소리처럼 은은하게 들려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성종사 범종주조 장면.



진천에 위치한 종박물관 전경. 원 대표가 명예관장이다.

전법일기

# 사격 높아지니 포교도 다양

## 삼존불 보물 지정

얼마 전 우리절에 아주 기쁜 일이 생겼다. 대웅전의 불상과 복장에서 나온 경전이 보물 제1801호와 제1802호로 각각 지정된 것이다.

보물 제1801호의 정식 명칭은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인데, 삼존불과 각각의 후령통, 발원문, 다라니 등 10건 129점의 유물이 해당되고, 보물 제1802호인 '…삼존좌상 복장전적'은 1395년에 조성된 목판에서 인출한 〈인천안목〉 등 네 권이 해당된다.

문화재 지정 과정을 소개하려면 5년여 전의 일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내가 처음 이 절에 와서 인수인계를 할 때 전임 주지 스님이 말하기를 부처님 얼굴이 갈라져 있으므로 개금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봐도 개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불사를 시작하지 않고 천수다라니 기도를 하면서 때를 기다렸다. 만 1년이 지나자 신도들이 먼저 개금불사를 하지 않을 거냐고 채근했다. 시절인연이 도래했다고 생각한 나는 그제서야 모연문을 만들고 신도님들의 마음과 정재(淨財)를 모았다.

몇 사람의 개금장이를 만나보았더니 전통 방식으로 개금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야 하는데 절에 작업실을 만들어 조건을 맞추는 방법도 있고, 이미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공방으로 불상을 이운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다. 나는 공방으로 옮길 생각으로 복장유물을 먼저 확인하기로 했다.

당시 우리절은 창건한 지 40년 남짓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어딘가에서 모셔온 불상일 것이고, 불상을 옮겨 오는 과정에서 복장유물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보았다. 그래서 복장유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불상의 형태로 조성연대를 추정한 후 문화재 지정절차를 밟을 요량으로 최고의 불상 전문가를 찾았다.



그림 · 박구원

2010년 4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를 초빙하여 불상을 보였더니 "1650년 이쪽저쪽 10년 사이에 조성된 것 같다"며 "발원문이 나오면 보물급이고, 발원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지방문화재는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해 6월, 문 교수를 다시 초빙하여 복장을 열었는데 조성된 이후 단 한 번도 복장을 열지 않은 상태 그대로였다. 놀랍게도 복장에서는 1647년에 조성했다는 발원문과 함께 60여 권의 경전이 쏟아졌다.

그해 10월에는 문 교수가 운영하는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자들이 실측조사를 벌였으며, 세 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 교수는 2010년 12월에 발행한 〈강좌 미술사〉 제35호에 논문을 실었다. 나는 이 논문과 문명대 교수가 써 준 '문화재 조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대구 달서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정절차에 들어갔다. 이 신청에 의거하여 2011년 3월에는 대구시 문화재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나왔다.

2012년 11월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7명이 방문하여 한꺼번에 불상과 복장유물, 경전을 조사하였고, 이 조사를 근거로 2013년 2월 중순에는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2점의 보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월 말일에 열린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를 하였고, 4월 29일 관보에 보물 제1801호와 제1802호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만 3년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지정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뛸 듯이 기뻤다. 지금도 내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다. 보물을 두 점이나 가진 문화재사찰이 되었다는 그 사실보다 한껏 높아진 위상으로 더 다양한 포교불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지었다가 부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일도 벌리고 저 일도 벌린다.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이 조성된 지 366년이 지난 오늘,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지금 여기에서 꽃을 피우라고.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 종류 | 일반전구 | 찬덕 LED 전구 |
|---|---|---|
| 소비전력 | 10W | 2W |
| 효율 | 10 lm/w | 50 lm/w |
| 연간전기료 | 2146원 | 429원 |
| 수명보장 | | 30,000 시간 |

찬덕불교 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명상으로 성찰…새로운 정치이념 세울 것"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마크 샌포드 (Mark Sanford) 하원의원, 팀 라이언(Tim Ryan) 하원의원,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 영화감독 데이빗 린치(David Lynch), CNN 앵커 캔디 크로울리(Candy Crowley), 영화배우 러셀 브랜드(Russell Brand),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

**명상 정치인 마크 샌포드, 美 하원의원으로 당선**

**"명상으로 다져진 가치관 지역 민심 잡아"**

**루퍼트 머독, 데이빗 린치 등 유명인사 명상 길 올라**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주의 하원의원으로 지난 7일 당선된 마크 샌포드 (Mark Sanford)의 '각별한 명상 사랑'이 세간의 화제다.

허핑턴포스트(Huffington Post)지는 10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보궐선거에 승리한 마크 샌포드 하원의원은 매일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며 "샌포드 의원의 명상 사랑은 선거기간 내내 화제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샌포드 의원은 선거 기간 내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명상을 했던 것은 물론 모든 연설문 등 선거 운동 역시 명상저가 사유에 근거해 기획하고 실천했다.

"정치인은 유권자와의 상호 작용에 항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샌포드 의원의 말을 인용한 허핑턴포스트는 "하원의원 선거에 참여했던 유권자들은 그에게 상생 정치의 길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009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 재임 시절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정계에서 물러났던 샌포드의 과거를 되짚은 허핑턴포스트 지는 "명상으로 성찰의 시간을 보낸 이후 도전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잡았지만, TV 스타 스티븐 콜버트의 여동생인 엘리자베스 콜버트 부시와 결전이라는 점에서 누구도 샌포드의 승리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결과는 샌포드의 승리였고, 이는 명상으로 다져진 샌포드의 새로운 정치적 가치관과 여기에 예전과는 다른 언술과 행보 등이 더해져 지역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허핑턴포스트는 "명상은 '탐냄과 혐오와 우둔함으로 가득한 이 세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러한 물음이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낙마했던 정치인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한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 정계로 나가게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샌포드 의원은 15일 ABC TODAY와의 인터뷰에서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바른 원칙을 세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샌포드 의원은 "정치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명상은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 만큼, 상생의 정치라는 기틀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허핑턴포스트는 "샌포드 의원뿐만 아니라 유명 인사들이 명상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 Mindful Nation〉의 저자인 팀 라이언(Tim Ryan) 하원의원 역시 명상에 푹 빠진 정치인이다.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명상의 전도사로 나섰다. 영화감독 데이빗 린치(David Lynch), CNN 앵커 캔디 크로울리(Candy Crowley), 영화배우 러셀 브랜드(Russell Brand),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 등도 명상의 길로 들어섰다.

"어려운 결단의 시간을 매번 맞아야 할 정치인에게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해주고, 이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명료함을 주는 게 바로 명상"이라는 라이언 하원의원의 말을 인용한 허핑턴포스트는 "라이언 하원의원은 공립학교에서 명상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명상의 가치를 높이 사고 있다"며 "라이언 하원의원의 말과 그의 주장에서 유명 인사들이 명상을 선택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 "中의 티베트 통치 인정"

## 티베트 총리 5월 9일 미국서 발언

"중국의 티베트 통치를 받아들이고,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도전하지 않겠다."

미국을 방문한 롭상 상가이 티베트 망명정부 총리 5월 9일(현지시각) 이같이 말했다.

AFP에 따르면 상가이 총리는 이날 워싱턴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정부는 티베트에 대한 압제를 완화하고 티베트인에 더 많은 자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상가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110명을 넘은 티베트인 연쇄분신 문제를 해결하고 상가이 총리의 발언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이끄는 중국 새 최고지도부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행보로 풀이하고 있다.

상가이 총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국 헌법의 틀 내에서 진정한 자치를 이뤄내는 것"이라면서 "이는 온건하면서도 이성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중국 정부와 티베트 주민이 모두 상생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분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중국 정부에 제안하고, 미국외교협회도 티베트 망명정부와 중국 정부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상가이 총리는 "티베트 주민의 분신은 중국인을 해치기 위한 의도가 아니며, 망명정부도 결코 분신을 부추기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대리인과 9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대화가 중단됐다.



롭상 상가이 티베트 망명정부 총리

상가이 총리는 지난 2011년 취임 초기만 해도 "티베트를 중국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그의 이날 발언은 기존 강경 노선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배리 사우트만 홍콩 과기대 교수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분신이 계속되는 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내건 대화 전제 조건(주권 양보 불가)을 수용함으로써 중국에 입장 변화를 타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베이징의 티베트 문제 전문가인 장자오융(蔣兆勇)은 "중국 당국이 그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 돈황석굴전, 미국 뉴욕서 열리다

돈황석굴 불교미술의 세계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펼쳐진다. 포스트앤커리어(Post and Courier)지는 5월 5일(현지시각) "중국연구소갤러리(China Institute Gallery)가 7월 12일부터 뉴욕에서 돈황석굴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Dunhuang: Buddhist Art at the Gateway of the Silk Road(돈황 : 실크로드의 관문에서 불교미술)'을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는 돈황 석굴 336번에서 1300번까지의 중요 작품이 선보인다. 전시회 총괄을 맡은 아네트 줄리아노(Annette Juliano • 럿거스대) 교수는 "이번 전시회는 돈황석굴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전시되는 것으로, 미국에서 첫 전시회"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美 미네소타 첫 베트남 불교사원 들어선다

## 3년간 SNS 건축모금, 베트남계 미국인 움직여

미국 미네소타 카운티에 베트남 사원이 들어선다. 스타트리뷴(Star Tribune)지는 5월 14일(현지시각)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미네소타 카운티 인근의 버려진 농장이 베트남 사원으로 개원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네소타 베트남 불교협회(Minnesota's Vietnamese Buddhist Association)가 미네소타 카운티 남서쪽 모퉁이에 위치한 농장 30에이커(약 121405제곱미터)를 구입, 종교부지 승인을 받아, 건축에 들어갔다.

틱 한 둑(Thich Hanh Duc) 스님은 "이곳에 들어설 사원은 두 명의 스님이 생활하며 1000여 명의 불자들이 예불을 올릴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이라며 "지역 사회에서 불교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사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리뷴에 따르면, 건축 기금은 미국 내 베트남 불자들의 후원으로 이미 마련됐다.

틱 한 둑 스님은 지난 3년간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이용, 베트남계 미국인들에게 미네소타 카운티의 베트남 사원 건축 불사를 알리며, 베트남 불자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

"사원 건축 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고 전한 틱 한 둑 스님은 "사원은 불교를 공부하는 캠퍼스인 동시에 호스피스와 같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포교 요람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라다크, 악령과 싸운 영웅 기리는 축제

## 6월 18~19일 헤미스 축제 개최



파드마삼바바의 탄생을 기리는 헤미스 축제.

인도 북부 라다크에서 6월 18~19일 '헤미스 축제(Hemis Festival)'가 개최된다.

헤미스 축제는 라다크 최대 티베트 불교 사원인 헤미스 곰파(Hemis Gompa)에서 매년 여름 열리는 축제다. 이 축제는 악령으로부터 라다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싸운 전설적인 인물 구루 파드마삼바바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 열린다.

티베트 특유의 건축 양식 사원에서 전통 가면을 쓴 수도승들이 신명나는 음악에 맞춰 악에 대항한 선의 승리를 춤으로 선보이는데 관광객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 보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거대한 크기의 탱화인 탕카(Than-ka)가 일반에 공개되고, 축제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노점이 운영된다.

이나은 기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 · 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 · 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모집중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스트레칭필, 칼라챠크라, 용천보탑, 배요온대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 石板 고려대장경 初版本 告佛 및 點眼 법회



석판고려대장경 초판본 견본
(세로 1m50cm 가로 78cm 두께 4cm)

삼보에 귀의하옵나이다.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하여 전국의 고승대덕 큰스님과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은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옵니다.
저희들이 고려 팔만대장경을 석판본으로 조성하겠다는 발원을 하고
진행하여 온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모로 시행해 오던 차에
지난해 드디어 완성된 표본을 조성하기에 이르러 각자(刻字) 제작소를
설치, 판각 조성작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성보관 1동(棟)에
봉안할 만한 량의 석장경이 조성되어 그 초판본을 부처님께 고(告)하고
점안(點眼)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강호의 고승대덕 큰스님과
불자여러분을 초청하오니 무루 참석하시어 법회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7년 4월 8일

재단법인 고려대장경진흥원 유지재단 이사장 신상길 합장

일 시 | 2013(불기2557)년 6월 28일(금요일) 오후 2시
장 소 | 고려대장경 석판본 제작소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산 18-1
전 화 | 054)533-5670


불교종합쇼핑몰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붓다북.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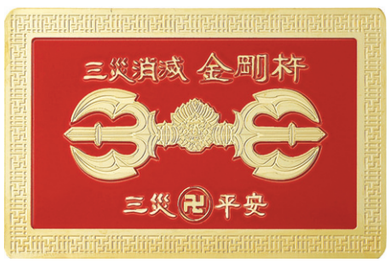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75,000원, 여성용장지갑 120,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 관세음보살 사바세계 나투셨네

### 의겸 이태승 작가 '월인천강전' 5월 23일까지

의겸 이태승 작가(용인대 회화학과 교수)의 '천강에 밝은 달 - 월인천강전(月印千江展)'이 5월 23일까지 갤러리 한옥에서 열린다. 30여 년간 불화를 그려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관자재보살도, 월인천강수월관음도, 원왕생도 등 고려불화 기법을 토대로 새로운 불화를 시도했다. 특히 작품에 쓰인 비단은 진주에서 직접 제작했고 천연물감과 천연염료만을 사용해 그렸다.


이태승의 관자재보살도

뒷면의 채색이 앞면에 반투명상태로 비치게 하는 작업 방식인 '배채법'(背彩法)으로 관세음보살과 십장생 등을 그려 신비로움을 더한다. 그래서 봄날 수월관음보살님은 설법을 하시고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모습으로 사바세계에 각각 나투어 중생들을 어루만진다. (02)3673-3426 정혜숙 기자

# 낡은 고무신에 담은 수행의 여정

### 희상 스님 '낡은 고무신전'



희상 스님〈사진〉의 '낡은 고무신전(展)'이 6월 18일까지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열린다. **(본지 941호 B13면 게재)**


낡은 고무신전

스님들의 일상과 수행의 여정을 상징하는 고무신에서 자라난 무성한 새싹들을 통해 각자 수행자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설치작품이다.

희상 스님은 운문사승가대와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브레멘 국립예술대학에서 수학한 현대미술작가다. 스님은 이번 전시회를 위해 운문사승가대학 학인들의 고무신 340여짝이 동원했다. 정혜숙 기자

# 서예로 만나는 법정 스님의 법문

### 맑고 향기롭게 서화전 개최

법정 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시민모임(사)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5월 22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법정스님의 향기로운 글' 서화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추사체를 연구하는 서예가 동천 엄기철 선생이 법정 스님의 법문과 저서에서 가져온 말씀을 담은 서화작품 80여점을 선보였다. 엄 씨는 이번 서화전의 판매 수익금을 '맑고 향기롭게'에 기부할 예정이다

법정 스님의 글귀에 맞는 사진을 찾아 4년여 동안 권영오 작가의 작품을 담은 족자도 선보였다. 권 씨는 40여 년간 산골에서 사진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다. 이번 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작품 수익금은 '맑고 향기롭게'에 기부, 장학금사업과 결식이웃돕기 사업에 쓰인다. (02)741-4696 정혜숙 기자

# 깨달음으로 이끄는 108 만트라 음반

만트라를 암송하면서 그 뜻에 집중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명확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오쇼 라즈니쉬의 제자로 현재 전세계 명상음악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데바 프레말과 규토승원 스님들이 염송한 '티베트 만트라 명상음악 앨범'이 발매됐다. 티베트 불교의 독특한 예불법인 규토승원 스님들의 저음발성 챈팅이 데바 프레말의 신성한 목소리와 조화를 이루며, 우리들을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어 준다. 현대인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육자대명주' 등 8개의 만트라를 들려준다. 1661-3164 정혜숙 기자

# 신이·김주철 DJ로 새로운 변신 풋풋한 진행 '주목'

### 불교방송 '활력 충전 2시4시' 진행자로 맹활약


'활력충전2시4시'는 진행자를 영화배우 신이 씨와 개그맨 김주철 씨로 새롭게 영입하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사진은 5월 15일 방송장면.

BBS불교방송 '활력충전2시4시'(이하 활력충전, 담당PD 김상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파를 타는 불교방송의 간판 프로다. 최근 '활력충전'은 진행자를 영화배우 신이 씨와 개그맨 김주철 씨로 새롭게 영입하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5월 15일 '활력충전' 스튜디오를 찾아 새 진행자들과 제작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담당 김상준 피디는 활력충전이 불교방송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전한다.

"우리 프로는 낮시간에 진행되는 만큼 자영업자와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만큼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듣고 즐기고 함께 참여하면서, 불자와 비불자를 아우르는 불교방송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진행자로 섭외된 영화배우 신이 씨와 개그맨 김주철 씨는 요즘 처음으로 맡은 라디오 진행의 재미에 푹 빠졌다.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일', 영화 '가문의영광' 시리즈 등에서 개성만점 연기로 사랑받은 신이 씨는 대대로 불자 집안에서 자란 배우다. 특히 영천 인근의 암자를 오가며 신행활동을 펼치는 그녀는 라디오 DJ가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진행을 결정했다.

"작가님이 3일 동안 저를 따라다니면서 섭외를 했어요. 사실 라디오 진행은 꼭 해보고 싶었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망설였는데 정말 결정을 잘한 거 같아요. 피디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시고 또 제작진 모두

**김주철, 천배 기도로 마음 다스려**

**신이, 방송으로 '힐링'**

**사랑방 역할로 편안함 주고자**

편하게 해주셔서 시작부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신이 씨는 라디오를 진행하며 스스로 힐링하는 기분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애청자분들의 사연을 읽으며 함께 울고 함께 행복해 하면서 저 스스로 힐링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연기할 때와 목소리가 다르다며 제가 맞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 웃기도 하죠.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이 무척 매력적이예요."

개그맨 김주철 씨는 절수행 신행모임인 여여회를 통해 꾸준한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108배가 몸에 밴 불자다. 시간이 날 때면 경북 의성 고운사에서 일주일씩 머물며 힐링을 하기도 한다는 그는 불교방송에서의 진행이 매우 편하고 즐겁다고 전한다.

"평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시간이 나면 도선사를 찾아 천 배를 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지금도 꾸준히 108배와 염불 등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방송이라는 특징 때문에 굳이 튀려고 하거나 애써 웃기지 않고 제가 가진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이 방송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앞으로 활력충전을 통해 불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리고 싶다고 말한다. "저희 프로는 가요를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하지만 불자들이 제작하고 불자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 불자 연예인들도 이 방송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호흡을 맞춘지 1주일 정도라 서로 조율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서로를 알아가면서 최대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는 두 진행자는 앞으로 편안하면서도 활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김 피디는 "스님들의 좋은 법문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프로가 '활력 충전'이다. 앞으로도 청취자들에게 오후의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른한 오후시간을 유쾌하고 정답게 채워줄 활력충전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방송은 불교방송(101.9MHz)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분노조절 '힐링' 전한 정목 스님

### 부처님오신날 특집 SBS '힐링캠프' 출연


정목 스님은 5월 13일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부처님오신날 특집으로 출연 '힐링 호흡법, 이름 붙이기, 반응 않겠다' 등 분노다스리는 법을 전수해 화제를 모았다. 사진제공=BBS

정목 스님은 5월 13일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부처님오신날 특집으로 출연 분노조절 힐링 호흡법 등을 전수해 화제를 모았다.

이날 정목 스님은 인도의 쿰바카 호흡법을 소개하며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충분한 양의 숨이 들어가지 않는다. 충분한 숨을 쉬어야 화를 잘 다스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목 스님은 "화가 날 때는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 코로만 호흡 해 봐라. 오른쪽 코는 태양을 의미하고 왼쪽은 달을 의미한다"며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 코로만 숨을 들이마시면 몸이 차가워지며 열기를 빼내기 때문에 화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호흡법을 전수했다. 이어 '이름 붙이기' '반응 않겠다' 등을 접한 시청자와 누리꾼들은 "정목 스님의 분노다스리기 3종 세트 힐링법을 꼭 해봐야겠다", "정목 스님 힐링캠프는 감동적이고

**분노 조절법 '3종 세트' 인기**

**'유나방송' 세계서 접속 다운**

진정한 힐링이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방송에서 스님은 자신의 출가 과정과 노래가 금기된 절에서 노래가 좋아 청소할 때도 노래와 함께했던 이야기도 전해 관심을 모았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냄새까지 맡아가면서 노래할 정도로 스님의 음악사랑은 극진했다고 한다.

이후 전화 상담 기관에서 봉사하며 세상의 고통을 알게 됐고 세상에 나와 각국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했던 이야기를 전해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방송으로 유나방송은 미국, 캐나다,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접속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방송이 다운되는 헤프닝이 벌어졌으며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로 정목 스님이 등극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스님의 트위터도 이튿날까지 폭주 상태였다. 정혜숙 기자




# 판소리의 묘미 피아노 선율에

## 발달장애 불자 음악가 최준 '피아노 병창 공연'



5월 25일 오후 4시 나루 아트센트에서 공연을 앞둔 발달 장애 청년 최준 군은 피아노 병창 공연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스물네 살 청년 최준은 일곱 살 수준의 지능을 가진 발달장애 청년이다. 하지만 절대음감의 소유자인 그는 3시간 짜리 판소리 흥보가를 외워 완창하고 자신이 작곡한 음악을 악보 한번 안 보고 피아노로 연주한다. 최준은 5월 25일 오후 4시 나루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피아노 병창공연으로 7번째 무대를 갖는다.

'2013 피아노로 판을 만들다' 음반발매 기념 콘서트로 최 군은 △첫사랑 △정릉길 가다 △광화문광장의 분수 △지하철 환상곡 등을 피아노로 연주하고, △흥보가 중 화초장 대목 △춘향가 중 갈까부다 대목 △심청가 중 추월만정 대목 등을 피아노 병창으로 선보인다.

최 군이 이렇게 한 명의 음악가로 서기까지는 수많은 고비가 있었다. 특히 대학 입학을 앞두고는 마음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다.

어머니 모현선 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비학교 수료(판소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병행해야 하는 입시제도 때문에 한예종 입학이 좌절되는 참담한 상황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후 실기만으로 입학이 가능했던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우리 준이가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었죠"

바로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면서 최 군은 피아노를 치면서 판소리를 하는 독특한 무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최준 군의 사연은 세간에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최 군은 지난해에는 KBS 인간극장 '아들아, 너의 세상을 들려줘'에 출연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최준 군의 가족은 19년째 한마음선원을 다니며 신행생활을 해왔다. 최 군이 한길로 매진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신행 생활 덕분이었다고 어머니 모 씨는 말한다. "준이가 치료 목적으로 음악을 배웠는데 그것이 지금은 준이의 직업까지 되었죠. 이 모두가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 군은 일곱 살 때부터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펼쳐놓고 저녁마다 독송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의 느낌을 일기처럼 작곡하는 최 군은 자신의 음악적 성과를 타인들과 나눌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앞으로도 계속 음악에 매진할 계획이다. (02)722-0277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중국 '실험수묵'의 진수를 만나다

## 광주시립미술관 장위전



장위의 '지인'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중국현대예술가 장위(張羽) '修 · 行' 전을 5월 26일까지 본관 제3 · 4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장위는 중국 현대미술발전의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실험수묵운동의 주요 창시자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자신이 탐구해오고 있는 실험수묵의 시각적 표현방식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심적 체험과 시각적 체험을 융합시켜 새로운 시각도상으로 전환시킨 작가의 '영광' '매일 신보' '지인' 시리즈 등은 관람객들에게 수묵 작품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062)613-7150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사자→용

# '산예향로'는 보주 가진 사자모양 용



그림 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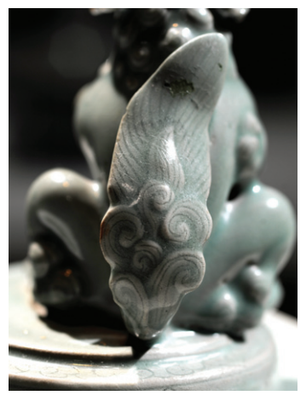


그림 ①-2



그림 ①-3

### 불을 좋아해 향로 뚜껑에 장식

고려향로 두 개가 있다.(그림①-1, 그림②-1) 뚜껑에 하나는 누가 보아도 사자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 보아도 용이다. 사자는 뿔도 없고 얼굴 모양이 용이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사자를 찬찬히 살펴보면 목 부분에 갈기 같은 것이 있는데 용에서 보던 제1영기싹모양의 도르르 말린 형태이다. 얼굴을 위에서 보면 눈썹이 제1영기싹으로 되어 있다.(도 ①-3) 일반적으로 용의 눈썹은 제1영기싹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무엇보다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보주이다. 사자는 보주를 지닐 수 없다. 보주를 지닐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존재는, 석가여래-관음보살-지장보살-용 등이어서 아무나 지닐 수 없다.

그러니 보주로 보아서 사자는 어림도 없다. 그렇다면 용인가? 사자모양인데 용이라 할 수 있을까? 호승지는 용의 아홉 아들 가운데 불을 좋아하여 향로 뚜껑에 장식한다는 용의 이름을 산예(狻猊)라고 불렀는데 사자를 일컫는다. 북송의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서긍(徐兢)은 산예출향(狻猊出香)이란 말을 썼는데 바로 이런 향로에서 향기가 피어오르는 광경을 묘사한 것이리라. 그러면 왜 사자 모양인가? 용은 변화무쌍하여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용은 봉황의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백호의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인간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모습에는 반드시 용의 속성, 즉 용성(龍性)을 지녀야 한다. 그 용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보주이다. 그리고 각 부분이 영기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우선 동물모양으로 보주를 지니고 있으면 무조건 용으로 보면 된다.

지난 가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천하제일 비색 청자전'에서 항상 보아온 '고려청자 사자향로'를 살피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저 둥근 보주를 붙들고 있으려니 했는데, 무수한 보주를 음각한 무량보주가 아닌가! 처음으로 확인한 순간 이제는 사자가 아니고 용임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그림 ①-4, 5) 그러므로 '고려청자 사자향로'라고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는 용어를 '고려청자 용향로'라고 고쳐야 한다. 더구나 꼬리는 제1영기싹, 제2영기싹, 제3영기싹으로 전개하여 가는 영기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가.(그림 ①-2) 용의 꼬리는 예부터 꼬리가 제1영기싹이나, 제2영기싹이나 제3영기싹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만물생성의 근원인 꼬리에서 용이 탄생하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 우리는 꼬리를 용의 끝으로 보아왔지 시작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림 ①-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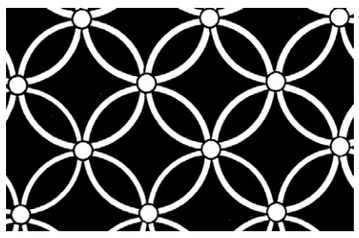


그림 ①-5

### 여래의 현신이 피어오르는 용향로

누가 보아도 용으로 뚜껑을 삼은 고려청자 향로가 있다.(그림 ②-1) 그 용은 오른손으로 역시 무량보주를 들고 있다. 입체적으로 조각하였으며 정상에는 구멍을 크게 만들어 놓았다.(그림 ②-2) 그 큰 무량보주 입에서도 향기(香氣)가 피어오르도록 한 것이다. 두 작품은 형상은 다르지만 모두 용의 모습이다.

또 하나의 향로의 예가 있다. 물론 사자모양이다.(그림 ③-1) 그러나 이 사자는 두 앞발로 두 발등에 놓인 작은 보주를 짚고 서있다.(그림 ③-2) 즉 용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자로 알고 있는 수많은 동물 가운데에 용으로 보아야할 도상이 많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일 보주가 없더라도 사자 모습 가운데에 용일 가능성이 더러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여래를 현신시키는 향기가 피어오르는데 사자를 조각할 리 없다는 것이다. 병향로(柄香爐)의 사자 모양도 말할 것도 없이 용이지만 삼국의 학자들은 사자진(獅子鎭)이라고 부른다.(그림 ④-1, 2) 그런데 입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지 않는가. 고리가 아니고 수많은 보주를 고리모양으로 만들어 무량한 보주가 입에서 나오는 형국을 그렇게 표현했다. 사자가 아니고 용이다. 용의 모습은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그렇게 인식해나가면서 용의 개념이 조금씩 정립하여 가는 것이다. 용의 입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신비로운 광경이며 바로 그 향기에서 여래나 보살이 화생한다는 진실을 최근 저서〈수월관음의 탄생〉에 자세히 증명하였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 ②-1



그림 ②-2



그림 ③-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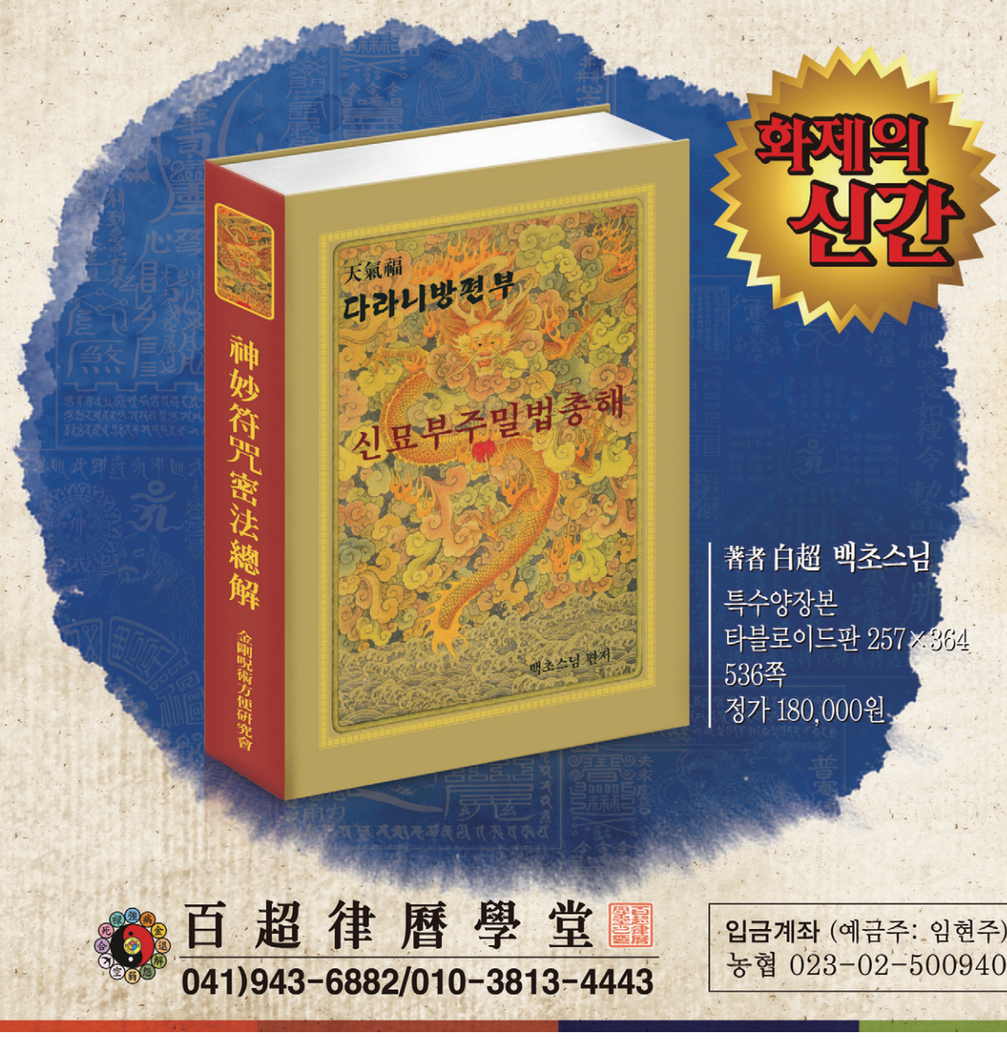
그림 ③-2



그림 ④-1



그림 ④-2


새로운 비방법! 더욱 강력해진 방편술!
일체 마장을 소멸시키고, 고통받는 인간 만사를
단번에 풀어내는 방토법 대공개합니다.

天氣福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百超律曆學堂
041)943-6882/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 한국 근현대사 속 '한국불교와 국가' 탐구



**불교와 국가**
**김광식 지음**
**국학자료원 펴냄**
**4만2천원**

한국 근현대사에서 불교와 국가 간의 관계를 연구한 보고서이다. 불교의 고뇌, 의식, 이념, 행보, 흐름, 운동 등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개별 논문으로 정리했다. 불교의 항일의식에서부터 10·27법난의 사회사까지 상세하게 파헤치고 있으며, 불교의 존립과 성쇠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불교의 이념은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이다. 법(진리)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중생을 구제, 교화하는 것이다. 이는 불교가 인간 사회 속에 살아있는 종교임을 말한다. 불교가 사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민족,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불교의 활동은 불교사이면서 사회사, 사상사, 민족사, 국가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한국불교의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서술, 분석이 미약했다. 책은 한국불교가 갖고 있는 보편적 성격을 '불교와 국가 간의 관점'에 천착했다.

불교는 불교의 존립, 전법을 위해 불교가 존재하고 있는 국토에 불교의 이상을 구현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즉 불국토를 만들기 위한 행보가 초기불교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내려왔다. 중생을 구제하고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을 '보살'로 설정했고, 그 이념을 '대승불교'로 지칭했다. 이런



조계종 군종교구 법사들이 동작동 현충원을 찾아 군포교 현장에서 산화한 선배 법사를 찾아 넋을 기리고 있다.

**'항일' 부터 10·27까지 상세히 고찰**
**불교의 정체성 다양해지면서**
**국가와의 관계도 다양해져**

전통과 이념 하에서 불교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행보를 걸어왔다. 이런 한국불교의 전통은 불교가 삼국시대에 전래된 이래 1700여 년간 지속되어 왔다. 그런 역사 속에서 호국불교, 국가불교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하지만 호국불교나 국가불교의 개념을 설명하는 논리는 많았지만, 정작 그를 입증하는 연구 성과는 편향적, 제한적이었다. 책은 근현대 공간에서의 현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그 결과 호국불교, 민족불교, 국가불교의 본질에 다다를 수 있는 사실, 설명, 개념, 구도를 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전통을 갖고 있던 한국불교는 근대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한다. 일제의 국권 강탈로 인해 불교가 존립하는 공간(국가)의 상실과 일본불교의 유입으로 야기된 불교전통의 변질이었다. 그리고 산중불교에서 도회지 불교로 나오면서 불교 근대화를 추진했지만 불교노선은 혼미 그 자체였다. 또한 제국주의의 후원을 받으면서 유입된 개신교의 등장도 불교로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한 불교인들은 불교의 재건 및 혁신을 기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회복, 보존시키기 위해 활동했다. 이를 민족불교라 부를 수 있다. 그 기간에 일부 불교도들은 '친일' 행적을 보였지만 3·1운동 참여, 의용승군 조직, 승려독립선언서 배포, 군자금 제공, 만당결사 등으로 대표되는 불교의 민족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됐다. 또한 일제의 식민지불교에 저항한 선학원 및 대각교 중심의 전통불교 수호 활동도 치열했다. 하지만 한국 민족운동사에서 불교가 갖고 있는 위상, 성격은 모호했다. 이는 불교 민족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발굴이 희박했기 때문이다. 책은 불교인들이 민족운동선상에서 갖고 있던 보편성과 특수성을 불교와 국가 간의 관점에서 소통을 시도하여 설명했다. 즉 그간 불교독립운동 연구의 낙후성, 편협성을 극복하게 했다. 이로써 불교 지성인의 현실의식에서 민족의식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음을 입증했다.

이후 한국불교는 1945년 8·15해방을 맞이하면서 질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우선 일제 식민지 불교의 청산을 기하면서 불교 정체성을 재정비했다.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와 경쟁을 하면서 불교 노선을 고민했다. 그러나 해방공간의 미군정, 제1공화국의 종교정책하에서의 활동은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그리고 1950~1970년대 정치노선의 보수화, 산업화라는 사회변동에 즈음하여서는 시대변화에 맞는 불교노선을 고민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이념이 수행불교, 정화불교호국불교, 민족불교였다. 또한 1980년대에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불교의 탄압을 상징하는 10·27법난 극복이라는 자각 및 사회 민주화의 영향이라는 흐름하에서 불교는 질적으로 변화했다. 이때부터 불교계에서는 불교내부의 모순을 개혁하면서 사회 민주화에 동참하기 위한 노선으로 민중불교, 대중불교, 참여불교, 개혁불교, NGO불교가 표방되었다. 이렇듯 불교 정체성이 다양해지고 변질되면서 국가권력과의 대립, 저항관계가 표면화되었다. 이런 행보는 한국불교사에서 특이한 사례다. 이와 같이 근현대 공간에서 불교와 국가 사이에 전개된 역사적 내용은 이중성, 다면성을 갖는 것이다. 요컨대 불교의 존립, 성쇠에 있어서 국가 권력과의 관계는 중요한 요소다. 책은 근대기 일제 식민지하의 기간, 해방공간, 산업화 및 민주화 공간에서 전개된 그 현상을 입체적,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이런 분석에 의거 최근 불교와 국가 간의 관계, 구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마음의 평화가 건강 좌우

### 화날 때 5분 멘토

**정운규 지음 | 비움과소통 펴냄 | 1만2천원**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마음의 평화이다. 결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책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유익한 힐링 주제를 한데 모아 놓은 힐링 백과사전이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은 한 잔의 술이 좋다. 그 한 잔의 술처럼, 좋은 글도 읽으면 시름을 잊고 마음을 달래준다. 그러나 한 잔의 술, 좋은 글이 지속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책은 심리학적 지식과 예리한 통찰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마음이 성장하고 인식이 확장되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즉, 책은 지속 가능한 효과를 준다.

"고양이는 살아남았지만, 강한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멸종되었다. 아무리 강해도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한 자는 호랑이처럼 도태된다."

책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인체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및 코티솔 등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과 혈압을 올려 인체가 큰 힘을 발휘하게 한다. 문제는 이 호르몬이 나중에 면역력을 떨어뜨려 질병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한다.

서두에 밝힌 것처럼 책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제8장 명상수련〉이 중요한데 책은 '자율파동 수련: 세포를 춤추게 하라'를 잠자리에 누워 실천해보라고 한다. 파동단계까지 진전되기 전이라도 숙면을 돕고, 수면 중 무의식에서 세포가 파동하는 의념을 통해 부정적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고 몸의 정기가 잘 갈무리되어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적으로 고양되고 충만해진다고 말한다.

책은 제1장-마음다스리기, 제2장-웃음치료, 제3장-지혜가 선사하는 힐링, 제4장-삶에 성찰을 주는 심리학, 제5장-삶의 지혜, 제6장-교육, 제7장-건강, 제8장-명상수련, 제9장-힘내고 삽시다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이든 사람이든 생존환경이 나빠질 때 후대를 남기려는 본능으로 인해 열악한 식물은 일찍 열매를 맺고, 사지마비의 사람이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성욕을 느끼기도 한다. 건강이 나빠질 때 쉽게 음습한 생각이 스며든다."며 책은 "이 책을 통해 면역력을 증진하고 생명에너지가 강해지면 불건전한 생각은 저절로 위축된다."고 말한다. 또한 왕성한 신체활동이 마음의 건강을 돕기 때문에 걷기 등 신체활동이 왕성하지 않으면 정신도 같이 주저앉는다고 말한다. 책은 한달음에 다 읽고 덮을 책이 아니라 늘 곁에 두고 필요한 주제를 찾아 다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 힐링백과 '사전'이다.

**박재완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8 ~ 5/14

| 순위 | 도서명 | 저 자 | 출판사 |
|---|---|---|---|
| 1 | 스님의 주례사 | 법륜 | 휴 |
| 2 |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월호 | 마음의숲 |
| 3 | 닦는 마음 밝은 마음 | 김재웅 | 용화 |
| 4 |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혜민 | 쌤앤파커스 |
| 5 |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 정목 | 공감 |
| 6 | 깨달음 | 법륜 | 정토출판 |
| 7 | 행복 119 | 성담 | 셀프컬처리서치 |
| 8 | 틱낫한 명상 | 틱낫한 | 불광출판사 |
| 9 | 길 없는 곳에서 | 덕일 | 작은숲 |
| 10 | 한마음과 대행선 | 혜선 | 운주사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다

### 틱낫한 스님의 마음정원 가꾸기

**틱낫한 · 플럼빌리지 커뮤니티 지음**
**이수경 · 혜주 스님 옮김 | 판미동 펴냄 | 1만5천원**



"지혜와 통찰은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 없다. 지혜와 통찰의 씨앗이 이미 그들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내면에 심어진 이 지혜와 통찰의 씨앗이 눈을 뜨고 싹을 틔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은 교사의 역할이다." -틱낫한

틱낫한 스님과 스님이 머무는 수행공동체인 플럼빌리지 커뮤니티가 다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쉽고 다양한 명상법을 소개하는 이 책은 가정과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알아차림 명상을 가르치면서 틱낫한 스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충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책이다. 틱낫한 스님이 평생 동안 일관되게 강조해 온 일상의 알아차림을 놀이와 활동을 통해 알려주는 명상 안내서다.

알아차림 명상이란 매 순간 자신의 내면과 외부를 향한 자각, 의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 불교수행 용어로,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어느 순간이든 깨어 있는 상태로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차를 마시면서 매 순간을 알아차린다면, 이것이 알아차림 차 마시기이고, 걸음을 걸으면서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알아차린다면, 이것이 알아차림 걷기다. 이와 같이 알아차림 수행은 특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걷기, 앉기, 일하기, 먹기, 말하기와 같이 평소에 항상 하는 일들을 한다. 특별히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알아차림이 일상생활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책은 "알아차림 명상을 통해 우리는 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통을 다스리고 평화와 이해, 자비심을 키우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 알아차림은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삶에 만족감을 갖게 해 기쁨의 날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한다.

책에는 약 서른 가지의 명상 활동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면서 있었던 일화 등이 실려 있으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만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열정적인 틱낫한 스님이 아이들과 친근하게 주고받은 재미있는 문답이 들어있다. 아기자기한 일러스트와 책을 읽으면서 함께 들을 수 있는 음악 등 다채로운 구성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와 교사는 물론 명상을 처음 접하는 사람까지도 누구나 부담없이 명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정적인 활동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 책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적극적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여러 잠재 능력을 자극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명상 활동을 교육 활동으로 도입하는 학교나 모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역시 이런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명상 활동은 우리 스스로 어려운 감정들을 보살피고 타인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며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선물하고, 나아가 삶의 이치와 깨달음,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한다. 가족, 교사,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와 구체적인 교육 방법들은 궁극적으로 가정, 학교, 지역 사회에서 아이들과 모든 이들을 위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책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아이들에게 이 책이 소개하는 여러 명상법을 가르친다면, 그들 모두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다른 이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 “살 때도 죽을 때도 온몸으로 살고 죽어라”



**할**

**최인호 지음**
**여백 펴냄**
**1만3천원**


경허 선사 수월 선사 혜월 선사 만공 선사

**경허와 세 제자 이야기 소설로**
**‘만법일귀’ 의 진리 전해줘**
**부록으로 선승들 사진도 수록해**

“살 때는 온 몸으로 살고, 죽을 때는 온 몸으로 죽어라”

1990년대 초, 가톨릭 신자인 소설가 최인호는 불교의 진리에 감화해 구한말 선승들의 향훈을 찾아 전국 사찰을 답사했다. 이 만행서 그가 관심을 가진 첫 대상이 바로 경허 선사였다.

스님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깨달음과 가르침으로 근대 불교의 선풍을 일으켰다. 천주교에 귀의한 뒤 깨달음의 길을 찾아 나선 저자에게 불교의 선승들, 특히 경허 선사가 지나간 발자취는 선명한 구도의 이정표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15년간 150만 부를 돌파한 스테디셀러 〈길 없는 길〉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불교의 요체를 드러냈다. 다시 저자는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이었던 2012년, 경허 선사와 그의 세 수법제자들과 맺은 인연을 풀었다. 그리고 최근 〈길 없는 길〉서 경허와 세 수법제자의 이야기만 따로 뽑아 재구성해 세상에 선보였다.

이번에 나온 신간은 바로 ‘길 없는 길’ 을 걸었던 위대한 선승들의 이야기를 장편소설로 구성한 것이다. 또한 책 말미에는 부록으로 경허, 수월, 혜월, 만공의 흔적들을 다큐 형식의 사진에 담아놓아 선승들을 입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조선 말기 국운이 스러져가던 시대, 경허 선사는 사자후와 같은 일갈로, 때로는 오묘한 이치를 담은 설법으로, 또 경악할 경지의 파행과 기행으로 세속의 부조리를 꾸짖었다. 그는 꺼져가는 불법의 불씨를 되살려 낸 우리나라 근대 불교의 선구이자 위대한 자유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수법제자인 ‘세 개의 달’ 수월 · 혜월 · 만공 스님은 우리나라 근대 불교 중흥을 이끈 찬란한 불법의 꽃봉오리다. 이 책은 이 위대한 자유인들의 여러 일화와 법문을 좇아 ‘길 없는 길’ 의 여정을 떠난다.

본디 ‘할(喝)’ 은 사찰과 선원서 학인(學人)을 꾸짖거나 말이나 글로써 나타낼 수 없는 도리를 나타내 보일 때 내뱉는 소리를 이른다. 법기와 수련이 높은 승려가 토해내는 ‘할’ 에는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사자후와 같은 기운이 서려 있다.

그것은 그 어떤 소리보다 큰 침묵의 소리, 모든 분별과 욕망과 번뇌를 일거에 불태워 버리는 자각의 번갯불, 잠든 영혼을 일깨우는 침묵의 함성이다.

이 책은 경허의 기행으로부터 시작한다. 경허는 겨울날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던 여인 한 명을 자신이 머물던 해인사의 조실로 데리고 온다. 이후 경허와 여인은 조실에 틀어박힌 채 며칠 동안 두문불출한다. 당시 경허를 보필하던 만공(경허의 막내 수법제자)은 스승의 기행이 사내 대중들의 입에 오를까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조실에 들어선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다. 한센병이 들어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 여인을 스승 경허가 품에 안고 있던 것이다. 썩어가는 육신은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훗날 이때를 회상하며 만공은 말했다.

“나도 경허 스님처럼 이 여인을 하룻밤만이라도 품에 안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나는 몹시 부끄러워졌으며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처럼 최인호 장편소설 〈할〉에는 말년 경허가 보였던 기행으로 시작해 그의 수법제자인 수월 · 혜월 · 만공 선사가 보인 선화와 그들이 남긴 법훈을 하나하나 좇아가고 있다. 세속뿐만 아니라 불가에조차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사라졌던 수월 선사, 이 세상에 거짓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천진불 혜월 선사, 일제에 의해 국운이 스러져 가고 불심(佛心)이 퇴색해 가는 현실 앞에서 대중들을 깨우쳤던 만공 선사. 그들이 남긴 범접하기 힘든 깨달음의 경지는 흐릿해진 정신을 번쩍 일깨우는 꾸짖음이자 가르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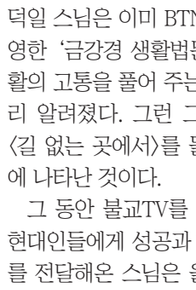
이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각자(覺者)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우리 자신 앞에 놓인 맑은 거울을 비춰보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걸어온 길, 일상의 관습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화두를 받아드는 일일 것이다. 그들은 묻는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멘붕’ 의 근본적 해결은 자기성찰에서 비롯돼

## 길없는 곳에서

**덕일 지음 | 작은숲 펴냄 | 1만3천원**



언제부터인가 ‘멘붕’ 이란 말이 유행중이다. 경제는 나아질 조짐을 발견할 수 없고, 남북문제는 더욱 꼬여만 가며, 학교 폭력, 왕따, 대학 등록금, 복지 등 무엇 하나 희망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틀에 갇혀버렸다.

멘붕이 감기처럼 유행한 원인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버티면 낫는’ 감기처럼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린다고 ‘멘붕’ 이 해결될까? 감기처럼 닥친 ‘멘붕’ 시대를 지켜보던 덕일 스님이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감기약이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처방을 들고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전할 ‘희망’ 의 메시지를 담은 〈길 없는 곳에서〉이다.

“절망의 끝에 선 사람들이 제게 와서 ‘길’ 을 물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덕일 스님은 이미 BTN 불교TV서 방영한 ‘금강경 생활법문’ 을 통해 ‘생활의 고통을 풀어 주는 스님’ 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런 그가 다시 신간 〈길 없는 곳에서〉를 들고 독자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 동안 불교TV를 통해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성공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해온 스님은 올 초부터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멘붕’ 을 지켜보며 이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이 책은 희망을 접고 절망을 호소하며 길을 찾기 위해 선원에 와서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전한 상담과 법문을 엮는 책이다. 스님이 이 책을 엮은 동기가 우리가 현재 겪는 마음의 공허와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반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 5개의 장으로 나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1부 인연으로 부터 2부 교육, 3부 성공, 4부 인생, 5부 참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우리 중생들이 세상과 인연 맺고 사랑하며 결혼하고, 아이 낳아 교육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스님의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엮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와서 이혼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스님은 답한다. “부부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지요. 함께 살아서 더 이상 덕을 쌓지 못하고 악만 쌓을 것 같으면 이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한 번 인연 맺으면 해원(解寃)해야 합니다. 어떤 원도 다 풀고 나서 방생(放生)하라는 것입니다.”라고 답한다.

삶을 살다보면 왜 그렇게 고통만 따르는 것일까요라는 질문에 또 스님은 말한다. “갈등, 질병과 죽음, 비난과 비방, 좌절과 실패 등 이런 고통의 맨 속을 들여다 보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눈앞에 닥친 엄청난 불행을 이겨 내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자신을 던지는 처절한 사투를 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마음 한복판에 잠재된 자신의 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 존재를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내면에서 감응하는 영묘한 능력 자신의 참마음의 전지전능한 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조언한다.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읽노라면 결국 인생의 답이 내 안에 있음을, 그리고 ‘정답’ 이 없음을 알게 된다. 다소 파격적(?)인 해결책들도 제시한다. 하지만 스님은 ‘당당하게 살라’ 며 맺고 있다. 그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당당한 인생은 바로 자기 안에 숨어 있는 ‘희망’ 이라는 보물을 찾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스님은 설명한다.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며 늘 고통받는다는 것이다. 길 없는 곳에서 막막할 때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것, ‘멘붕’ 의 근원적 해결은 바로 자기 성찰에 있으며, 내 안에 부처가 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저자인 덕일 스님은?**
1983년 해인사서 도문 스님을 은사로, 자은 스님을 계사로 수계한 후 1988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에는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했다. 이후 향상선원을 창건해 교화하면서 BTN 불교TV 금강경 생활법문, 법화경 특별법문에 출연해 법문하며 ‘생활의 고통을 풀어 주는 스님’ 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매일 수많은 대중과 만나면서 법회와 상담을 하고 있으며, 현재 BTN 불교TV ‘능엄경 생활법문’ 을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발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걷지 마라〉가 있다.

# 군법사 원빈 스님의 100℃ 행복 강연

## 같은 하루 다른 행복

**원빈 지음 | 이지북 펴냄 | 1만3700원**



“세상의 모든 존재는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플까요?

우리는 모두 같은 시대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며 웰빙(Well-Being)의 트렌드가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동승하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불만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하루, 비슷한 행복이었습니다.”

은사 스님이 지어주신 법명이 영화배우 원빈과 같아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원빈 스님. 법명 원빈은 해나 달처럼 둥글게 빛나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라는 뜻이다. 현 군종장교로 군 장병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스님은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행복’ 에 대해 생각할 기회조차 없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행복에 대해 강연을 시작했다. 독서모임 행군스(행복한 군인과 스님)를 조직하고 군인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누어 주며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페이스북에 글을 싣고, 2000여 명에게 이메일로 행복의 길을 발송하고 있다.

그리고 행복의 길과 페이스북에 실은 글을 정리하여 〈같은 하루 다른 행복〉을 출간하게 되었다. 스님의 페이스북에 눈길을 끄는 위트 있는 사진과 함께 실린 글은 젊은 스님의 힘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 유머와 위트까지 있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즐겨 읽어 그 반응이 뜨겁다. 원빈 스님은 ‘웰빙’ ‘힐링’ 의 열풍은 뜨겁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정작 ‘행복’ 에 대해서는 무지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 행복도 공부해야 하고, 노력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 ‘愛語’ 는 탐진치 삼독 없애줘

## 넌 참 예쁘구나

**권영택 지음 | 돋을 새김 펴냄 | 1만2천원**



“애당초 하찮은 것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나의 이웃이고 이 세상을 함께 움직이고 있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에 그냥 흘깃거린 일상의 것들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의 모습과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웃의 진심이 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삼라만상에 관심을 두고 자세히 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더불어 스스로를 자세하게 살필 줄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어쩌고, 뉴스에서는 어쩌고…. 날로 거칠고 험악해지는 세상사 이야기는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아니 이제는 어지간한 놀라운 이야기에는 마음도 무뎌진 것 같다. 좋은 말, 따뜻한 말을 불교에서는 애어(愛語)라고 한다.

애어는 상대방은 물론 스스로를 밝게 만든다. 사람이 밝으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 밝은 사람이 많으면 사회 역시 밝아진다.

저자는 몸과 입과 뜻으로 좋은 일을 하면 스스로 참해진다고 말한다. 스스로 참해지면 세상도 참해진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우리 안의 탐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즉 탐진치를 벗어나 몸과 입과 뜻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다운 삶으로 안내하는 책이다.

“넌 참 예쁘구나” “너는 참 마음이 따뜻하구나” “넌 참 생각이 깊구나” 등 좋은 말, 따뜻한 말로 온 세상이 그득 찼으면 좋겠다는 게 저자의 바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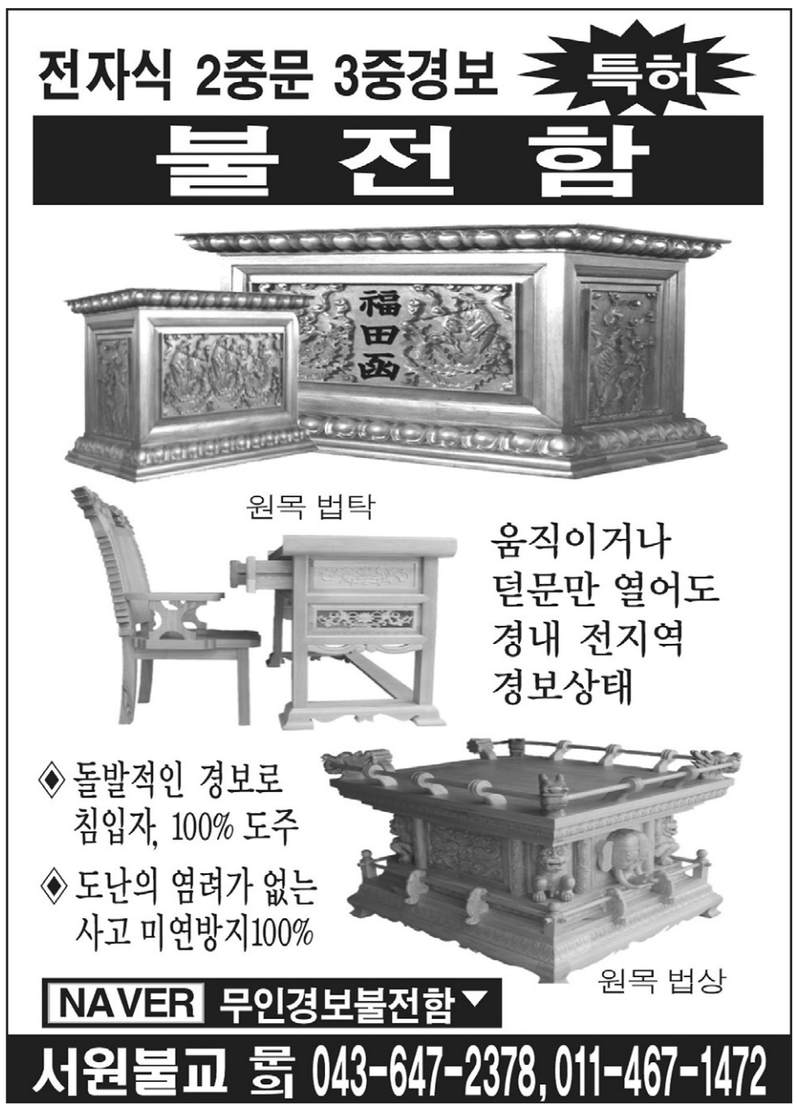
그러면 위로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저마다 힐링을 이야기하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다고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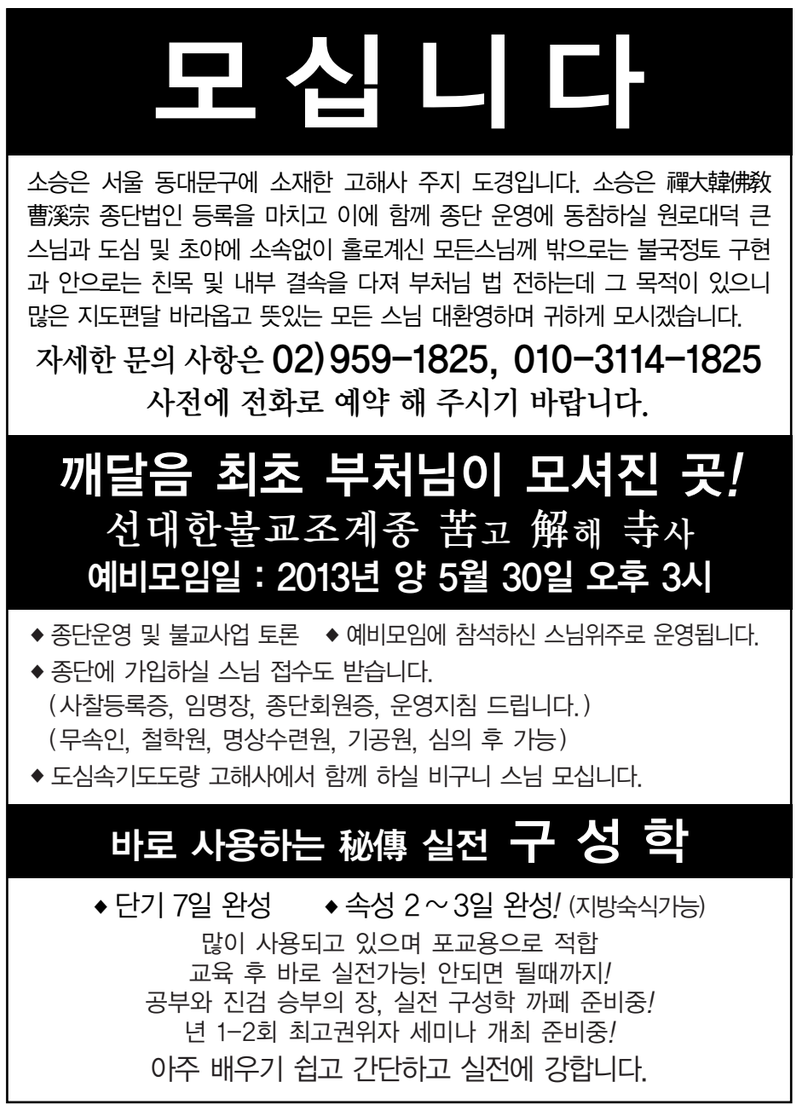
저자인 덕일 정사는 현재 대한불교진각종 종의회의원이며 보원심인당 주교로 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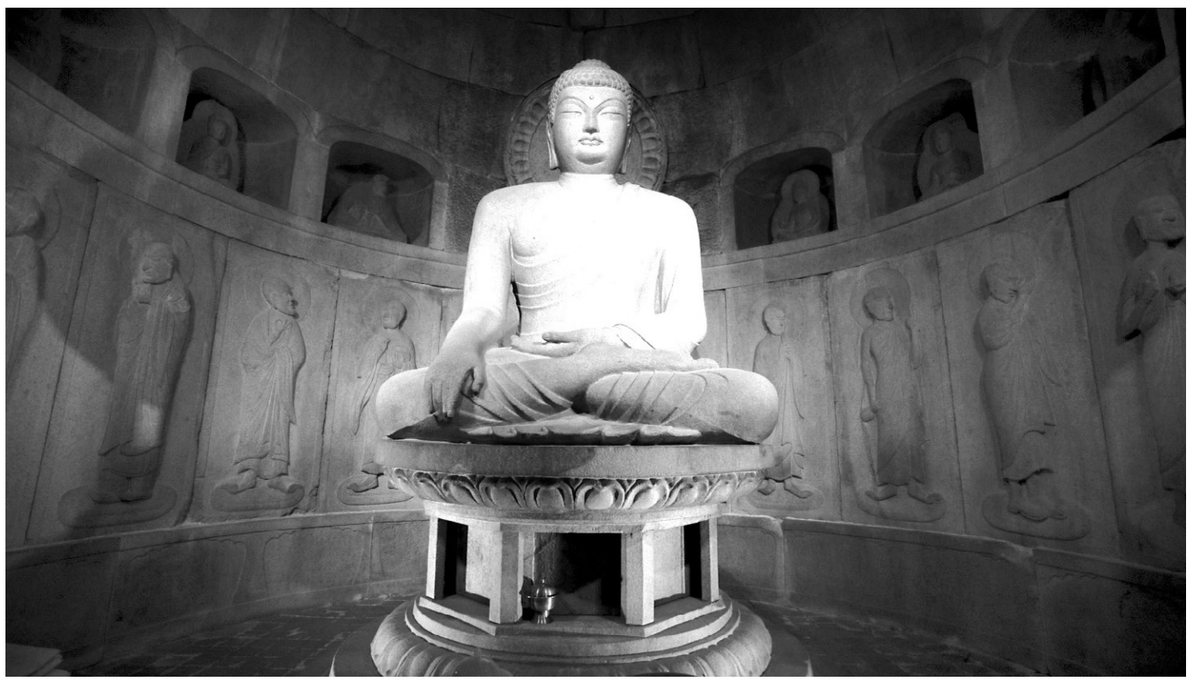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토함산 석불사 석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종교 신념과 과학 정신이 빚어낸 예술



신라인들은 고구려와 백제와 가야 문명과 문화적 성취를 흡수해 불교로서 승화시켰다. 김대성의 '종교 신념'과 아비지(阿非知)의 '예술 미감' 및 신라의 '과학 정신'이 만나 토함산 석불사가 태어날 수 있었다.

### 1. 종교와 예술과 과학의 만남

불교가 전래되자 이 땅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고조선 이래 환인과 환웅에 대한 천신신앙과 웅녀에 대한 지모신앙 그리고 단군에 대한 산신신앙은 풍류도 세계관으로 집대성되며 질적 전환이 이뤄졌다. 종래의 무교는 불교와 갈등 혹은 대결하면서 풍류도를 아우른 불교 안으로 습합돼 갔다. 불교는 산신과 칠성과 독성 등 호법 신중들을 껴안으며 무교와 풍류도까지 아우르며 전통사상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점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의 영역과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의 영역이 어우러져 불교의 지형은 더욱 확산됐다.

특히 신라인들은 고구려와 백제와 가야 문명과 문화적 성취를 흡수해 불교로서 민족문화의 지형으로 그려나갔다. 그 결과 김대성의 '종교 신념'과 아비지(阿非知)의 '예술 미감' 및 신라인들의 '과학 정신'이 만나 토함산 석불사가 태어날 수 있었다. 석불사 조성의 계기는 아래와 같다.

모량리의 가난한 여인 경조(慶祖)에게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머리가 크고 이마가 편편해 성처럼 생겼기에 이름을 대성(大城)이라고 하였다. 집안이 군색해 대성을 길러내기가 어려웠으므로 부자 복안(福安)의 집에 품팔이를 하게 했다. 대성은 그 집에서 밭 몇 고랑[苗, 1묘는 200평]을 나눠 받아 의식(衣食)의 밑천으로 삼았다.

이때에 덕망있는 승려[開士] 점개(漸開)가 흥륜사에서 육륜회(六輪會)를 베풀고자 복안의 집에 와서 권선(勸善)을 하자 베 50필을 시주했다. 점개가 주문(呪文)으로 축원(祝願)했다.

"신도께서 시주를 좋아하시니 천신이 언제나 보호하여 하나를 시주하면 만 갑절[萬倍]을 얻을 것이며 안락을 누리고 수명이 길어지게 하여지어다."

이때 대성이 축원을 듣고 뛰어 들어와 어머니께 말하였다.

"제가 문간에서 스님이 외우는 소리를 들으니 하나를 시주하면 만 갑절을 얻는다고 하더이다. 생각건대 우리가 전생에 일정한 적선(積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난한 것입니다. 이생에서 또 시주를 않다가는 오는 세상에서 더욱 가난할 것이니 내가 품팔이로 얻은 밭을 법회에 시주해 후생의 과보를 도모함이 어떠리까?"

어머니가 말하였다. "좋다."

이에 대성은 점개에게 밭을 시주했다. 얼마 되지 않아 대성이 죽었다. 이 날 밤 재상 김문량(金文亮)의 집에서는 하늘로부터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일렀다.

"모량리의 '대성'이라는 아이가 이제 너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던 같은 날 같은 시에 재상 김문량의 아내가 아기를 수태했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왼손을 쥐고 펴지 않다가 이레 만에야 펴니 '대성'(大城)이라고 새긴 금 패쪽을 쥐고 있었다.

김문량은 이것으로 이름을 짓고 그의 예전 어머니를 집으로 맞아들여 봉양하였다. 대성은 장성하며 사냥을 즐겨했다. 하루는 토함산에 올라가 곰 한 마리를 잡았다. 산밑 마을에서 묵었더니 꿈에 그 곰이 화하여 말하였다.

"네가 무엇 때문에 나를 죽였느냐? 내가 환생하여 너를 잡아먹으리라."

대성이 무서워 떨면서 용서를 빌었다. 그 곰은 "나를 위해 절을 세울 수 있겠느냐?" 고 말했다.

대성이 그러겠다고 맹세하고 깨어보니 땀이 흘러 이부자리가 젖어있었다. 이로부터 그는 사냥을 금하고 곰을 잡았던 자리에 장수사(長壽寺)를 세웠다.

### 2. 본존불에 대한 몇몇 시각

대성은 이로 인해 느낀 바가 있었다. 대성은 비원(悲願)이 한결 더해 현생의 양친(現生父母)을 위해 불국사(佛國寺)를 세웠다. 또 전생의 부모(前世爺孃, 父母)를 위해 석불사(石佛寺)를 세워서 신림(神琳)·표훈(表訓) 두 스님을 청해 각각 머물게 했다.

대성은 또 부모의 소상들을 성대히 세워 양육한 은혜를 갚았다. 한 몸으로써 두 세상의 부모에게 효도를 한 것은 또한 드문 일이니 착한 시주의 영험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

대성이 장차 석불을 조각하고자 큰 돌 한 개를 다듬어 석불을 안치할 탑뚜껑을 만드는데 갑자기 돌이 세 토막으로 갈라졌다. 대성이 통분하면서 잠도 들지 않고 있던 차에 천신이 밤중에 강림했다. 그 천신은 대성이 만들지 못한 석불을 다 만들어 놓고 돌아갔다. 대성은 막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쪽 고개를 내달려가 향나무 불을 피워서 천신을 공양했다. 대성이 향을 피운 곳은 향고개[香嶺]라고 불린다.

흔히 분황 원효에 대한 연구를 '분황학' 혹은 '원효학'이라 하고 〈삼국유사〉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삼국유사학'이라고 하듯이 석불사 본존불에 대한 학문연구를 '석굴암학'이라고 부른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이루어온 석굴함학의 가장 주요한 쟁점은 1)주불의 명호, 2)목조전실의 유무, 3)비도 입구의 절개형과 전개형 여부, 4)주실 이마의 광창(光窓) 유무, 5)원실(주실) 입구의 아치형돌 유무로 집약된다.

현대 건축에서 금기로 여기고 있는 우물 위에 인공 석굴을 축조한 까닭은 석굴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현재 석굴은 우물의 온도에 기초해 석굴 내부온도를 조절했던 조상들의 '과학'을 온전히 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원형 돔 위에 한 겹도 모자라 두 겹의 시멘트를 바르고 있으며, 석굴 뒷켠에서는 발전기를 돌려 실내 온도를 조절하고 있다.

석굴암학의 쟁점들 중 가장 주요한 것은 본존불 즉 주불의 정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석굴을 조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본존상을 봉안하는 데에 있다.

석굴 안에 봉안되는 수많은 불상의 종류와 그들의 종교적 의의와 믿음의 내실은 모두 이 본존불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배치된다. 때문에 봉안되는 모든 존상들은 본존불과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의미와 가치는 본존불로 총결된다. 그러므로 본존불의 크기와 자리 및 양식은 석굴을 조성할 단계에서부터 이미 전제돼 있으며 그곳에는 최고의 신성성과 최미의 예술성이 갖춰져 있다. 때문에 토함산 본존불은 1)전세부모를 위한 김대성의 발원, 2)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 본존과 군위(軍威) 팔공산 삼존석굴(三尊石窟, 속칭 제2석굴암)의 본존좌상 등처럼 8세기 이전부터 유행했던 본존불의 우견편단(右見偏袒)의 법의와 오른손의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등의 양식, 3)1905년경에 석굴암에 걸려있던 편액인 수광전(壽光殿, 1882)과 석굴을 중수할 때 마련한 현판 '미타굴'(彌陀窟, 1891) 및 본존불 옆의 전각의 편액, 4)8세기 통일신라 당시의 신앙추세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미타불임이 분명하다.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은 본존불의 명호를 석가모니불이라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비로자나불 혹은 대일여래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광전'이란 편액이 조선 후기의 중수 당시에 단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세부모를 위한 김대성의 발원이라는 기록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대승불교 이전의 붓다의 몸(佛身)에 대한 담론은 역사적 붓다인 석가모니불(變化身)과 비역사적 붓다인 비로자나불(自性身)의 이신설이었다.

**삼국통일의 원동력된 아미타신앙 반영**
**옛 선조 지혜 살리는 복원 이뤄져야 할 때**

대승불교가 흥기하자 '보살'이라는 이상적 인간형이 제시됐다. 석가모니불의 전생은 석가(호명, 선혜)보살로 불렸고, 전세 보살의 이타행에 의해 오늘의 붓다가 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때문에 불신설은 아라한행과 보살행을 통해 깨달음의 과보로서 붓다의 몸을 받은(수용신) 노사나불 또는 아미타불(보신불)처럼 깨달음의 법열을 자신을 위해 쓰는 자수용신과 타인을 위해 쓰는 타수용신의 사신설로까지 확장됐다. 이렇게 본다면 삼한일통을 마무리한 8세기 통일신라의 신앙추세가 내세와 극락을 갈구하는 아미타불이 주류였음은 현존 기록과 존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3. 한국민족문화의 금자탑

신라의 성황당인 천경림의 숲을 베어 내고 이차돈이 착공한 신라 최초의 절인 '대왕흥륜사'에는 신라 십성(十聖)이 소상(泥塑)으로 모셔졌다. 동쪽 벽에서 서향(庚方)으로 앉은 아도, 염촉, 혜숙, 안함, 의상과 서쪽 벽에서 동향(甲方)으로 앉은 자장, 혜공, 원효, 사파, 표훈의 열 소상은 주불을 시위하고 앉아 있다. 〈삼국유사〉「흥법」편 '흥륜사 금당십성' 조목에는 주불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주」편을 통해 신라 중고기(법흥왕~진덕왕) 당시 재상이었던 김양도(金良圖)에 의해 조성된 흥륜사 '오당'(吳堂)의 주불이 미륵불이었음을 알 수 있듯이, 하고기(무열왕~경순왕)의 '금당'(金堂)의 주불은 '아미타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흥륜사 금당 십성은 경덕왕(742~765 재위) 때에 고덕이었던 의상의 십대제자인 표훈이 자리하고 있음을 통해 경덕왕대나 그 이후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의상은 677년 문무대왕의 명을 받들어 화엄의 근본도량인 영주 부석사를 지었다. 절의 법당인 무량수전에는 오직 아미타불 한 분만을 모신 채 아침 저녁으로 서방을 향해 예배했다. 여기서 부석사 무량수전의 아미타불의 양식과 석불사 본존불의 배치법과 불상의 양식이 같다는 것은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것은 그 시대의 방식과 믿음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이해된다. 의상의 제자인 표훈 역시 토함산 석불사에 머물면서 스승의 가풍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토함산 석굴이 완성된 것이 혜공왕(765~780) 대임을 감안한다면 8세기 통일신라의 신앙추세인 극락정토를 염원하는 아미타신앙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석불사 본존불의 양식이 1세기 먼저 조성된 부석사 무량수전의 아미타불과 군위 삼존석굴의 아미타불 역시 똑같은 수인의 좌상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본존불의 두광(頭光)은 직접 머리에 부착하지 않고, 머리에서 떨어져 후벽 십일면 관음입상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따로 둥근 연화판석 한 장을 끼워 놓았다. 두광을 불상과 따로 떼어 천장에 고정시킨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통일신라 사람들의 뛰어난 착상이다.

또 주실 이마 부분의 광창은 현장(玄奘, 602~664)법사의 〈대당서역기〉에 실린 인도 보드가야 대각사의 "큰 거울로 빛을 끌어들여 내부를 비추었다"(大明鏡, 引光內照)는 기록처럼 태양빛을 끌어들여 광창과 본존불 사이의 화강석 바닥돌에 비춰 간접조명을 사용했다. 그리하여 태양이 떠오르면 은은한 빛을 반사시켜 본존불의 상호를 비추게 함으로써 신비로움과 성스러움을 뿜어내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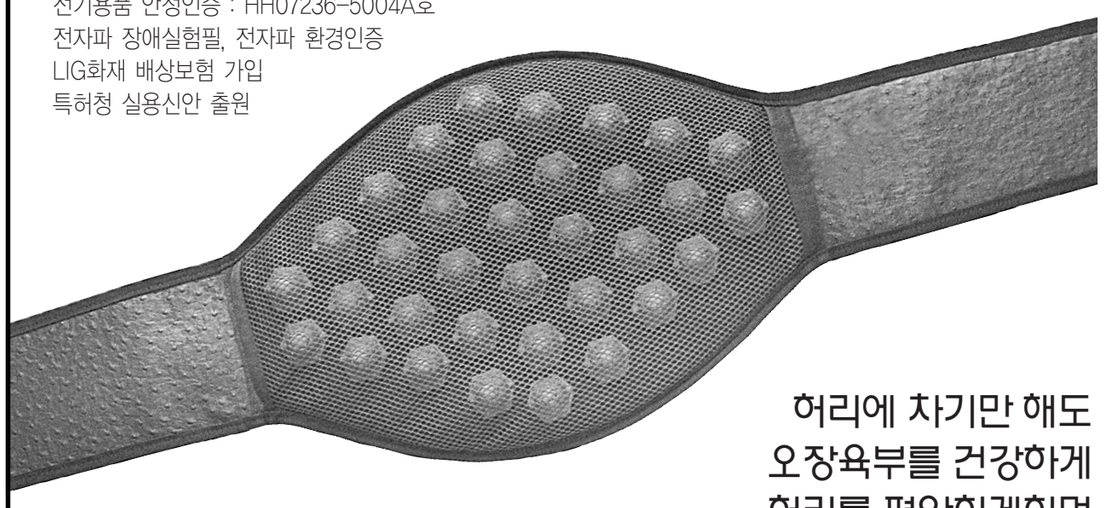
이것은 인공 석굴의 아치형 구조를 창안해 내기 위해 치밀한 역학적 계산 위에서 주먹돌들을 맞춰 올려 놓음으로써 안팎으로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견고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과학적 안목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또 30여 평 정도의 인공 석조 건축 안의 공기의 흐름과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우물의 온도를 원용하였고, 각 층의 벽위에 감실 안에 30센티미터의 틈을 열어 천년 동안 숨을 위며 호흡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그리하여 이슬맺힘(結露) 현상을 제거함으로써 동양에서 견줄 수 없는(東洋無比)의 금자탑을 세울 수 있었다. 이처럼 석불사 석굴은 김대성의 종교 신념과 아비지의 예술 미감과 신라인들의 과학 정신이 빚어낸 절창이었다. 하지만 1,25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냉각 습기 제거를 위해 발전기를 돌리고 있으며, 광창을 폐쇄하여 전기를 쓰고, 목조 전실을 통해 예배를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덮어 씌운 시멘트 거푸집은 풍화작용으로 인해 곳곳에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문화재인 석굴암 원형 복원을 위해서 과거의 과학과 현대의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복원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됐다.

**참고문헌**
리상호, 『삼국유사』(까치; 1999).
황수영, 『석굴암』(열화당, 1989; 1996).
신영훈, 『석불사·불국사』(조선일보사, 1998).
삼성문화재단, 『한국의 세계문화유산』(학고재, 1997; 1998).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청 KFDA 의료용구제조업 허가번호 제1099호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ETI 한국전기연구원시험인증본부 | 전자파장해시험 EMI 합격 한국전기연구원시험인증본부 | LIG화재 배상보험가입 | 실용신안등록 특허청 | ISO 9001 획득 HQC-2115호 한국생산성본부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부했다
"내가 입멸한 뒤 너희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이제는 스승의 말씀만 남아 있지 우리의 스승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러나 너희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입멸한 후에는
너희에게 설해왔던 가르침과 계율이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 대열반경 –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1-829-7582

##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 태징,목탁,송주북, 정근북,법고)
– 천수바라,작법(나비무), 49재,천도재,점안등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 고통 받는 이들에게

(金) 작은 희망 드리고져 (金)
삶에 장애가 많으신 분
병고로 고통 받으시는 분
(전통 선가 비법 치유)
희망전화 043-652-3020
무료전화 070-4403-3021
白雲山下 藥泉寺 住持 : 法山 合掌

##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 모든 영가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목선 고통, 불안초조, 주의력 결핍, 약효가 없는분, 병명이 바뀌는 분,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 병원 치료가 어려운 분
43년 이상 된 염불 수행자
010-5912-2377

##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 지리산 청학동 (자비수양원)

황토방과 건강치료설비를 갖춘 수양원에서 식이요법 및 유기농 식단 등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께선 많은 연락바랍니다
* 또한 암자에서 참선수행 하실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찾아주십시요
011-759-0183
010-8484-6124

## 양 도 공 고

(등록된 불교단체 불교종단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 관세음보살님 화신 출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가피의 인연을 만나세요.
(심적사)
010-5327-7793

##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 퇴마
천병,신병,우울증,대인기피증, 틱장애,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가정풍파, 엑스시스트에서도 치료 못하는 환자치료,
스님 법사 보살님도 상담환영
(천상을 여는 금강사)
010-2418-6222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월 보시 130만원
055)375-0142

## 처사님을 모십니다

숙식 가능하신 분
(경남 고성 운흥사)
055)835-8656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비구니 사찰)
(경북 포항시 벽종사)
010-8691-5498

## 조그마한 절 입니다

절 운영 하실 스님이나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주 강동)
011-534-3345

## 향기도의 묘법

● 어떠한 소원도 이루게 해주는 기도
이기도법을 원하는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032)664-0048 / 011-741-0867

##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 제 명 공 고

법 명 : 정호, 지안
사 암 명 : 소원사
주 소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유서1리 227-2
상기 사암과 두명의 승려는 본 종단의 종헌종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기에 제명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사)대한불교금강종 총무원장 법산

## 신심있는 공양주 구함

(대전)
010-5209-7420

## 사찰 관리하고 기도할 비구, 비구니 찾습니다

불자 부부 및 출가행자 환영
(강원도)
010-9421-0730

##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 수정사 노인 요양원

• 최적의 자연환경 (수정산 산책로)
• 최신시설, 아늑하고 쾌적한 시설
• 등급 내, 외 어르신 모두 환영
• 최고시설, 최저의 비용으로 모시겠습니다
상담문의 031-333-5014. 010-7105-5013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전통사찰입니다
가족처럼 함께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보시는 : 월 120만원~ 130만원(조정가능)
033)682-8103 / 010-8879-8400 (야간)

##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 치매, 암 예방 – 건강관리

술, 변비, 지방간, 비만
어려운 문제해결
대전에서는 누구나 와서 주야기도 함
대불정능엄신주 특별지도
꿈바위불교 교 육 원
대전,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 010-2353-2010
02)739-5008

##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 자성주(靈珠) 수익사업

선망 조상님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섭씨 2,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름답고 품위있게 고인의 유골을 自性珠(구슬사리)로 생성하는 기계입니다
납골사리 1기당 150만원. 지사 및 사업동반자 환영
1899-1042. 010-3679-1080
(주) 보은의 사랑

## 기문둔갑 강좌 안내

www.gimun.net
강의과정
• 기초반 : 기문조식법 및 원리론
• 중급반 : 홍국수 통기론 및 종합해단론
• 고급반 : 단시 및 병방론
• 특강반 : 기문작명. 기문택일. 기문양택
강의시간(단체반)
• 본원 오전반 – 10:00(월~토) : 주1회 100분
• 본원 저녁반 – 19:00(월·화·수·금·토) : 주1회 100분
수 강 료(단체반)
• 주1회 월 20만원 (특강 월30만원)

◎ 담당교수 : 손혜림 (경력사항)
· 경희대학교 13년째 기문학 담당교수
· 34대 기문전맥의 태청궁청구태학당 대표
· 대한기문학회 대표
· 손혜림 기문명리원 대표
(기문해설프로그램 및 기문작명프로그램 개발)
교육장소
• 손혜림 기문명리원. 대한기문학회 본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8 경남쇼핑 4층 11호
지하철 3,7,9호선 서울고속터미널역 8-1번출구
기문둔갑은 전맥을 바탕으로 공부해야만 정확한 해단을 할 수 있습니다!
02)3476-3433 / 010-2376-3433

##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 좋은인연 대출안내


33년의 역사와 자산825억원의 형산새마을금고는 변함없이 전국의 많은 사찰과 좋은인연을 맺고 있으며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어 좋은 인연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대출이자 ☞ 1억 대출시 최고 58만원
❷ 대출기간 ☞ 5년 (만기시 연기 가능)
❸ 근저당설정비 ☞ 면제
❹ 대출지역 ☞ 전국 (제주도포함)
❺ 단체명의, 종단 소속사찰 모두가능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 천도비법전수 교육과정

그 자리에서 빙의환자와 가족이 확인하는 영적질환의 실체
빛파동법, 영언수련법, 영혼과의 수인법, 오장육부진동법 영가가 몸에 어디에 숨어있는지, 확인천도 방법의 핵심지도
1. 환자 몸에 영가는 있는데 확인해 줄수 없는 스님, 법사, 기공사
2. 영가의 상태파악, 조상 ,객영혼 ,지박령 저급, 중급, 고급
3. 몸이 아픈 정확한 이해 일반병, 마음의병, 업병, 다중빙의
4. 다양한 삶의 고난과 질병 뒤에 숨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영가
5. 영가들이 천도되면서 보는 다양한 빛의 세계를 본다.
6. 보다 높은 차원의 기공능력과 영안이 열린다.
7. 자신의 영혼과 대화로 삶의 목적과 깨달음에 대한 이해
8. 1-7차크라의 능력을 일깨워 우주와 교감하는 방법지도
9. 영적질환의 특징은 냉증이라는 사실입니다.
10회 과정의 교육과 6개월 2회식 보수교육을 통한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드립니다. – 강의는 수강자와 상담 결정. 출장강의.
암, 우울증, 조울증, 강박 증상, 환청, 환시, 불면증,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질환은 몸속에 깊이 자리 잡은 마음의 응어리 한과 집착의 냉기
스님들의 사찰에 신도님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효소찜질요법 기술지도 암. 여성 질환. 냉증. 관절 어혈 질환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 방송에도 여러차례 소개됨.
공개강좌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사전에 약속된 분에 한함)
인체전기 043)296-5258 / 010-9242-5259
파동의학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 불 자 정 보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善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 고난을 만나더라도 버리지 않고, 가난을 만나더라도 버리지 않는다. 자신의 어려운 일을 상의하고, 서로 도와 주며, 하기 어려운 일을 해 주고, 주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이다.

- 사분율 -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25(목조)
- 요사 :120평(목조)
- 부지 : 920평
- 가액 : 25억

- 위치 : 강원도
- 법당 : 15평
- 요사 : 35평
- 부지 : 650평
- 가액 : 3억 5천(조정가)

사찰임대
- 위치 : 경남
- 법당 : 17평
- 산신각, 약사전
- 요사 50평
- 임대 : 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삼 보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30
- 대지 : 100평
- 산신각,건평 150
- 가액 : 15억

- 위치 : 경산
- 법당 : 30
- 요사 : 50*2동
- 대지 : 400 공양간 說法殿有
- 가액 4억

- 위치 : 포항
- 대지 : 350평
- 법당 : 26평
- 요사 : 3채방5개
- 가액 1억8천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40평, 요사채 60평 주지실30평
- 산신, 노천불, 대형버스운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양도가액: 12억

토 굴 안 내
- 총부지 : 970평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1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 전원주택 또는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 대지 : 2,670평
- 진입로 6M이상 확보,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득
- 경치 수려하고 부지내 연못 있음
- 경부고속도로 수원IC, 기흥IC, 용서고속도로 청명 IC인접
- 서울, 분당, 동탄 접근성 (10~20분)용이
- 동탄2기신도시, 보라택지지구 중간 지역
- 가액 협의 (방문 상담 후 결정 희망)

010-5624-0878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 지하철 금곡역에서 도보 5분거리
- 3층건물 중 2층 35평
- 법당1, 방2, 화장실2, 창고1 에어컨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 도시가스사용,시장골목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1-448-2159

##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 평수 50평, 2층건물중 2층
- 가액: 2천 5백만원
- 삼존불, 관음불, 소불, 각단탱화
- 방1개, 화장실3개, 옥상지하사용가능
- 최고시설, 비품완비, 즉시법회가능

010-2842-6532

##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온천동 지하철에서 10분거리
- 법당 30평, 주방, 침실 20평
- 삼보전, 지장전, 칠성전, 신중전 5존불 모셔져 있음(소불 44분)
- 인테리어 새로 단장
- 본 포교원을 운영하실 참된 스님을 찾습니다
- 전세 500만원 / 월세 60만원 시설비 방문 후 절충

010-3036-7678
010-4855-7205

##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운창동 (대전역에서 도보로 10분)
- 지하1층 60평, 큰법당 방2칸, 공양간 시설완벽
- 보증금 100만원 월 28만원
- 시설비 7백만원
- 상업지역, 아파트3천세대 최고요지
- 현 포교원 운영중,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9387-3679

##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내서읍
- 텃밭있음
- 주차장완비, 살기 아주 편함
- 남향집, 대단지 아파트 밀집 산 속 위치
- 몸만 오시면 됨

010-8829-5101

##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전통사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양도 : 14억

- 위치 : 전남토굴
- 부지 : 22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양도 : 4천2백만원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홍천읍 근교
- 비구니스님에게 좋은 아늑한 사찰
- 법당목조 60㎡, 요사채 124㎡ 대+전 2,500㎡과 방사와 차고등 있음
-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 가액: 3억원 토지값정도로 정함

010-7347-1010 이박사공인중개사

##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남해안 소재 사찰
- 토지 : 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납골추모관, 무량수전,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주차장 완비
- 가액: 4억 8천만원
- 읍내 유일 추모관 운영, 예상가는 8억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010-5444-0807

## 사 찰 안 내

- 위치: 영덕군 영해면
- 평수 : 73평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전화 상담

010-2510-0955

## 사 찰 안 내

- 충북 옥천군, 옥천읍까지 7분거리
- 대지 505형 등기 필
- 요사채 38평, 후면 창고 15평
- 요사채 위 법당 20평 2층
- 옥외화장실 6평 내 창고재중
- 6층석탑 (제주석)
- 가액: 방문시 절충 요
- 불필요 전화 특히 사절

010-7517-7037

## 사 찰 안 내

- 위치: 제주시 오라동
- 공항에서 10분거리
- 평수 340평
- 건물 3동
- 가액: 7억

018-590-3583

## 포 교 원 안 내

- 안산 , 아파트 마트, 병원 밀집지역
- 분양평수 64평, 실평수 41평
- 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칠성탱화 영가단 250분
- 방사는 상담실외 2, 김치냉장고2대, 대형냉장고,소형냉장고등, 각방 에어컨 3대
- 월세 1천 3백 / 월 55만원
- 시설비 3500만원(약간조정가능)

010-4760-8791

## 상담원 안내

-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 월드컵 경기장(팔달구청)정문 건너편
- 약 400M 주택 밀집가. 약10평
- 1층 : 철학 및 상담 사무실1
- 방1, 주방1, 수리 깨끗
- 스님 급환으로 인해 급 양도
- 보증금 400만원 / 월 25만원, 또는 300/30
- 시설비 절충가, 간판 새로 시설

010-6223-8297
010-2499-0079

## 포교원안내

- 위치 : 군포시 군포역 앞
- 평수 75평
- 상가건물 2층
- 보증금 2천만원 월 14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최고시설, 즉시법회가능

010-8945-9433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
- 총평수 827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3억 3천만원

010-8034-8309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북 안동시 와룡면 태리 550-1번지
- 대지 : 150평
- 건물 : 대웅전(12평), 요사채(40평), 산신각
- 가액 : 9천만원

010-4015-7145

##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경주시 현곡면 (시내에서 15~20분거리)
- 대지 170평
- 법당, 요사채, 심야전기, 차실 등
- 모든 시설 완비
- 특히 비구니스님 살기 적합
- 가액 : 전화상담

010-4547-9108

##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 공주 시내 바로 옆
- 평수 72평
- 법당 따로 (약 9평)
- 방3, 거실, 화장실 2개
- 텃밭도 따로 있음
- 가액: 9천만원(가격 조절 가능)

041)841-5772

##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 5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진평동
- 4층 건물 4층
- 평수 : 80평
- 방, 주방, 거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65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주차완비

010-6505-0385

## 사찰 토굴안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 대지 400평, 건평 70평 (인법당)
- 뒤에 산, 교통편리
- 전철 온천 인접
- 텃밭, 주차완비
- 가액: 5억

010-6559-0913

## 절 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88고속 고령 IC에서 5분
- 뒤에는 산, 남동향, 배산요수
- 평수 970평 (대지 목장용지포함)
- 단독 2층 양옥(28평)
- 가액: 2억 2530평(가액 3억)

010-3549-3738

##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618번지 (삼보사)
- 토지 340평, 대웅전 30평, 요사채 13평
- 산신각, 석가대불12자 좌불상
- 1억 5천만원

010-4572-2766

## 포 교 원 안 내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40-574번지
- 성심약국4층 반송큰시장 옆 포교원
- 40평 시설최고 방1칸, 보증금 2천만원에 월 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삼존불, 신중, 칠성 약사 후불탱화
- 산신, 용신, 장군, 원불, 법당 옆 정원 10평
- 욕실 2개, 비품일체 몸만 오시면 법회함
- 지하철 3분거리 버스 3분거리

051)527-5688
011-9501-5188

## 신축 사찰(급)안내

- 남양주시 청학동, 별내신도시 인근 (서울 상계동에서 차로 15분거리)
- 종교용지, 전 도로 합계 500평
- 건평: 147평 (대웅전, 지장전, 사무동등)
- 2011년 신축 (주차장 있음)
- 양도가격: 17억 (융자 6억 포함)

010-4299-5388

## 전원주택 및 사찰터 안내

- 위치: 경남 합천군 합천읍 미륵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며 아늑하고 풍광이 수려한 보궁처
- 평수 1600평
- 가액: 1억 2천만원
- 스님 직접

010-8828-1188

## 포교원안내

- 위치 : 서대문 홍은동
- 3층 건물 중 3층, 50평, 옥상전체 사용
- 삼존불, 후불, 108불 소불, 산신각 방 2, 접견실, 샤워실, 화장실
- 에어컨 2대포함,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700만원 /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9231-4600

## 급! 거제도 바닷가 연수원 교육 노인복지시설 펜션 적지

섬들이 보이는 전망좋은 옛절터

- 가액: 평30만원(주변시세 40~60만원이상)
- 건물4동 총3,750평(대지 전 임야 포함)
- 임야의 약50%개간완료(바다방향 낮은위치)
- 사정상 급 안내(2013. 6월까지 이 가격)
- 찾기 힘든 명당터 염가구입 절호의 기회
- 관심분에게 전경사진 이-메일 송부예정

010-9478-1322 (소유주 직접)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봉화군
- 등기평수 4423평 중 종교부지 375평
- 사과밭 2700여평, 나무 7년생
- 법당 19평, 기타 9평, 대지 180평
- 건물 3동, 철구조물 판넬, 창고, 외부화장실
- 가액 : 평당 13만원
- 금액이 맞는분만 전화요망

010-4726-6496

##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 3평반 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3억 5천만원(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 장난전화사절 ※

010-9338-0118

## 포교원안내

- 위치:경남 양산. 시장옆 2층
- 40평 시설최고 방2개
- 보증금 : 1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 1천8백만원 (절충가능)
- 삼존불.신중.지장.칠성.산신.탱화
- 비품일체 몸만오시면 법회함

010-9945-2030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포함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 암 자 안 내

- 울산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 법당 25평, 방 小 8, 中1, 大1
- 산신각, 연못, 분수대 있음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429-5076

## 포교원안내

- 대구 동구 동호동 30평
- 법당, 거실 방3, 주방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 보증금 2백만원 월 13만원
- 시설비 1560백
- 보살님 법사님 사용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7-297-4097
010-6297-4097

## 선 원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악양면
- 부지: 922평(대지 195평
- 건물 : 본채 45평, 부속채 18평
- 나머지는 녹차밭
- 특징: 정남향, 조망권 탁월,
- 청정환경
- 가액: 4억 8천

016-565-4022

## 절 터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 전 3076평 계곡 귀농 전망 A
- 마대산 1052, 배틀제 680높이 아래 정감록의 기술된 십승지
- 전쟁, 흉년, 천재, 이상형의 의풍리 넘어가는 길지의 명당 자리
- 급양도가 : 1억 2000만원

010-3288-1317

# “욕망의 무한 질주에 브레이크 거는 명상”

연중기획 마음산업

## ‘신행 · 포교 地圖’ 바꾼다

### 〈9〉 풍경소리학교 ‘마음챙김 교실’



현대인의 마음치유에 적극 나서고 있는 풍경소리 학교는 마음챙김 교실을 무료로 열어 명상의 대중화를 선언했다.

**초보자들을 위해 사띠 수행 진행**
**명상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무료수업으로 명상의 대중화 선언**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명에 쌓여 살고 있습니다. 욕심내고 성 내며 스스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더구나 현대사회는 욕심이 너무나 당연시 되는 사회입니다. 현대인들은 남의 것을 뺏어 오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대기업이 살겠다고 하청 업체에서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정당화돼 있어요. 모두가 욕망의 무한질주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명상은 이런 질주하는 세상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풍경소리 이용성 사무총장은 풍경소리학교의 명상수업을 이렇게 정의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와 7시 진행되는 풍경소리학교의 ‘마음 챙김 교실’은 무료로 진행된다. 힐링이 세상의 화두로 떠오른 요즘 명상의 효과가 급부상하면서 고급화되는 현상에 반해 무료 수업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명상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풍경소리 명상교실이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교실’은 초보자들을 위한 명상프로그램이다. ‘매순간 알아차림(사띠, Sati)’을 바탕으로 명상과 걷기 공동인터뷰 등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 교실은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스스로 몸과 마음을 보는 능력을 기르고 현대인의 고통과 그 원인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상기초과정이다. 스스로 마음을 챙기고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고 이 총장은 전했다.

수강생 김영찬 씨(56)는 현대불교신문 독자로 기사를 통해 처음 풍경소리 무료 강연을 알게 됐다. 남은 생을 잘 살아보고 싶고 집중력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수업에 참여한지 한 달이 됐다. 김 씨는 “아직 초보라 명상을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이렇게 무료로 수업을 열어주니 그저 고마울 뿐”이라며 “앞으로 명상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풍경소리는 마음챙김 교실 이외에도 명상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눈길을 끈다. 자애명상과 몸치유 프로그램으로 심신치유를 도와주는 ‘솔개 교실’, 애니어그램에 명상을 도입한 ‘명상 애니어그램’, 음악 그림 글을 통해 라이프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에너지 워크숍 ‘어른이 놀이터’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동양인의 공동체 관리법에서 시작된 애니어그램은 자신의 숨겨진 집착을 발견하고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각자의 유형을 알아가면서 이에 맞는 명상으로 내면의 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명상 애니어그램은 나의 에너지중심찾기, 나의 유형찾기, 잠재력과 가능성의 발견, 나답게 날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사 이윤정 풍경소리학교 연구개발팀장(마인드코칭 연구소장)은 “애니어그램은 근동지방 수피족의 부족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지혜로운 생각들을 모은 것이다. 여기에 서양의 심리학 등이 결합돼 이론화 한 것이다. 머리 장 가슴 등을 중심센터로 자신이 어떤 꼴을 가졌는지 유형을 나누어 보다 나은 자신을 알게 해준다”고 전했다.

풍경소리학교는 애니어그램에 불교 명상을 도입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기에게 맞는 명상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윤정 팀장은 “현재 사례중심의 명상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노인복지센터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 놀이처럼 쉽게 명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폭력 예방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다”고 전했다.


풍경소리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명상을 도입하고 있다. 사진은 ‘어른이 놀이터’ 수업 장면.

(02)736-558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값비싼 명상프로그램 ‘그림의 떡’ 일 수 있어요”

###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



“명상은 힐링의 붐을 타고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했고, 그로 인해 값비싼 명상 프로그램들도 다수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명상이 필요한 사람이 명상을 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모순된 일이 없겠죠. 누구나 명상을 접해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이끌기 위해 무료강연을 열게 됐습니다.”

이용성 사무총장〈사진〉은 세상에 명상의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무료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본인 역시 10년 동안 풍경소리의 살림을 이끌다 마음의 안식을 얻고 싶었을 때 3개월의 휴가를 얻어 미얀마 수행센터에서 명상을 체험하고 돌아왔다.

이후 꾸준히 명상수행을 하며 업장소멸을 하며 명상이 지혜를 얻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경전을 읽었지만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명상을 통해 부분 부분의 지식들이 하나로 정리되면서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상은 결국 부처님의 법을 몸으로 체득하게 해주는 지름길이죠.”

이 총장은 자신을 명상 가이드라고 말한다. “저는 명상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곳에서 명상을 접했던 분이 명상의 필요성을 깨닫고 전문수행기관을 찾아 간다고 인사를 하러 오셨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 큰 보람을 느꼈어요.”

앞으로 이 사무총장은 명상을 널리 전파시켜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도반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정혜숙 기자**

## 서구의 마음수행 현장

### 〈7〉 미국 샴발라 센터

# 170여개 센터 전세계 포진…쉬운 용어로 불교알려




故최감 트룽파 린포체는 나로파 불교대학과 샴발라 명상센터를 설립하고 미국에 불교를 전파했다.(사진 왼쪽) 미국 로키산맥 샴발라센터에서 수련생들이 발우공양을 하고 있다.

**최감 트룽파, 서구에 티베트 불교 전파**
**나로파 불교대학 – 샴발라 센터 설립**
**서예·다도·꽃꽂이 등 명상과 접목해**
**서울 사당동에도 분원 설립 운영**

북미지역과 서구인들에게 불교와 명상을 전파한 인물로는 스즈키 순류 외에도 최감 트룽파가 있다. 티베트 카규파의 11대 활불(活佛)이었던 최감 트룽파(Chögyam Trungpa, 1939~1987)린포체는 서구에서 유명한 티베트 불교 승려다.

1959년 티베트를 떠나 인도에 머물던 트룽파 린포체는 1968년 영국에서 삼예링 불교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미국에 샴발라 센터(Shambhala Center)를 세우고 티베트 불교를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천재적 언어 감각을 지녔던 트룽파 린포체는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했지만 현지인보다 영어를 더 잘했다. 전통적인 비구승 이미지를 탈피해 격식이 없으면서도 상식과 틀을 깨는 그의 거침없는 언행은 서구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서구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던 어려운 불교 용어와 교리들이 트룽파 린포체의 입을 거치며 쉬운 용어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한 그는 상대를 보면 어떤 경계에 있고, 그에 맞는 수행법은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스승 역할을 했다.

### 서양 최초 불교대학, 170여개 명상센터 설립

1970년 미국으로 온 트룽파는 콜로라도 주 불더시에 서양 최초로 인가받은 불교대학인 나로파(Naropa Institute) 불교대학과 샴발라 명상센터를 처음 세웠다. 트룽파 린포체 사망 후 비구니승인 페마 최된(Pema Chodron)이 센터의 원장으로 있다, 샴발라 센터는 본부를 캐나다 노바스코티아와 미국 콜로라도주의 보울더, 서독의 바르부르 등 3곳에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남미 등 전 세계에 170여 개의 명상 센터를 비롯해 한국 서울 사당동에도 샴발라센터 분원을 두고 있다.

샴발라센터는 지역에 따라 운영방식이 약간 다르나 대부분 2~3개월 캠프 형식으로 진행된다. 센터만의 수련 프로그램은 출가를 통한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서양인들이 불교를 쉽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한다.

미술가이자 시인인 트룽파 린포체는 명상뿐 아니라 불교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서구인들을 위한 샴발라 교육(Shambhala Training)을 개발해 보다 쉽게 명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본식 궁술, 서예, 다도, 꽃꽂이, 요가 등 명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접목시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불교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불교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다.

트룽파 린포체는 샴발라 교육을 밀교 경전에 자신의 설명을 곁들인 5단계의 교육과정으로 만들었다. 그 과정을 마치면 사회에 만연한 지배의 정치학, 권위주의적 인간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명료함, 온화함, 사랑, 건강한 정신을 키워 불국토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트룽파 린포체는 ‘인간은 원래 선하다. 이 세상은 성스럽다. 전통 종교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샴발라 교육의 신념을 담으려 했다.

샴발라 센터는 다른 명상센터와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이 명상을 위주로 생활을 하면서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수련시설 증축이나 홍보 프로그램 제작 등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 명상으로 마음다스려 사회에 참여

전 세계에 분원을 둔 샴발라센터는 센터별로 특색을 띠고 있다.

미국 로키산맥의 RMSC(Rocky Mountain Shambhala Center)는 650에이커에 달하는 넓은 숲에 목욕시설이 있는 건물만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수련생들은 숲 곳곳에 설치된 텐트와 캠프 하우스를 이용하는데, 여름철에는 400여 명, 겨울에는 75명 정도가 다녀간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맨하탄 샴발라 명상센터는 400~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수련생들은 불자가 아님에도 “명상을 기초로 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시 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타종교인에게 명상을 권유하고 있다.

또 이들은 사회봉사를 중요시 여겨 개개인은 물론 여러 종류의 단체나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명상’ ‘청소년 및 어린이 모임’ ‘각종 중독자들을 위한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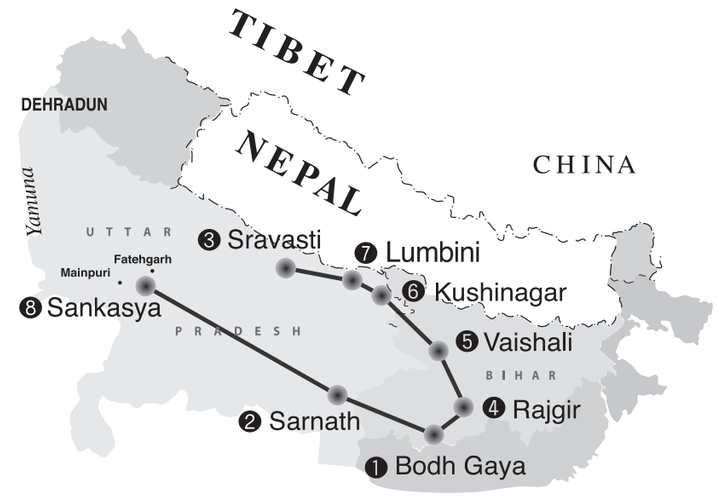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4.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7일 (대한항공)
▶ 부처님의 나라, ‘실론섬’이라 불리는 스리랑카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미힌탈레(마하세야 다고바 – 부처모발)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마탈레(500비구)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法·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숭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대행 스님



# 어떠한 괴로움도 이 마음도리를 안다면 겁날게 없어

(지난 호에 이어서)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 주인공을 믿고 맡기는 도리를 물러섬이 없이 공부하신다면 그것이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혹성 자체가, 나로부터 전체가 지수화풍으로 뭉쳐져 있고 전체가 지수화풍 아닌 게 없는 까닭에 우리는 고마운 줄도 알아야 돼요. 물도 고맙고 공기도 고맙고, 네? 여러분은 공기 없이는 하루도 못 살죠? 근데 너무 흔해서인지 고마운 줄을 몰라요. 부모한테 받아 가지고 나온 육신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효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걸 모르면 안 되지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며 어떻게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법을 알겠습니까? 여러분한테 그러한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할 때는 어느 거든지, 우주 전체를 다 한 손에 쥔다 해도 항상 무심으로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도 생각함이 없다 이 소립니다. 화를 냈어도 화낸 사이가 없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놓느냐고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그냥 놓고 가는 거고 세 가지 네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말입니다.

그 도리를 공부하면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에도 그렇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꽃을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것만치, 이 꽃은 모르더라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꽃이 내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꽃 마음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꽃하고 마음을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죽은 거든 산 거든, 생각이 없는 거든 있는 거든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일체를 탐험할 수도 있고 비춰 볼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는 이런 대인이 되시라는 거지, 마짓밥이나 올려놓고 목탁이나 치고 염불이나 하고 영령들 위패나 써서 쭉 붙이고 여기저기 놓고 빌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불교라는 거는 '참불교' 입니다. 불(佛)이라는 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며 교(敎)라는 건 인간이 됐기 때문에 좋고 그른 걸 알아서 자식들에게도 말을 좋게 해 주니까 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입니다. 그런데 내 종교 네 종교를 왜 따집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 어떻고 천주교가 들어오면 어떻고 불교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림 · 최주현

사람이 다릅니까? 마음이 달라서 그렇지요. 여러분이 공깃돌 가지고 놀고 또 땅치기 하고 소꿉장난하다가 "얘 아무개야, 밥 먹어라. 늦었다." 이러면 그냥 툭툭 털고 들어가시죠? 예전에 안 그래 보셨어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라놓고 살거든요.

지금 그 무전 전력, 무전 광력, 무전 자력, 무전 통신, 무전 입력 모두를 여러분도 자유스럽게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 분야에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물질 광선을 쬐어서 병을 치료하는데, 그것은 물질과 물질이기 때문에 치료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광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물질 아닌 무전 광선이기 때문에 자력이나 전력, 광력, 통신력이 다 거기 포함돼요. 여러분이 병에 휘둘릴 때, 만약에 능력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광선을 쬔다면 그것은 한 찰나에 없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모두 한군데서 나고 들지만 전기도 용도에 따라서 쓰이듯이, 생활도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듯이 우리가 다 용도에 따라서 마음을 조절하여 모든 자력을 쓸 수 있습니다. 얼굴은 하나인데 귀가 따로 있고 눈이 따로 있어서 보는 것 따로 있고 듣는 것 따로 있듯이, 그 능력이 같이 하고 있지만 용도에 따라서 적게 쓸 수도 있고, 요걸로만 쓸 수도 있고 저걸로만 쓸 수도 있고, 다 같이 쥐고 쓸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왕가에서 권도법이라고 하죠, 권도. 신하들이 아무리 진언을 해도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그냥 권도법으로 해결을 하죠. 여러분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얘깁니다. 자비의 권도법. 이것은 자비의 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불기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모르니까 가난이나 병고 액난 같은 것이 닥치고 의욕이 없고 허망하고 괴로우며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삶의 보람도 느끼지 못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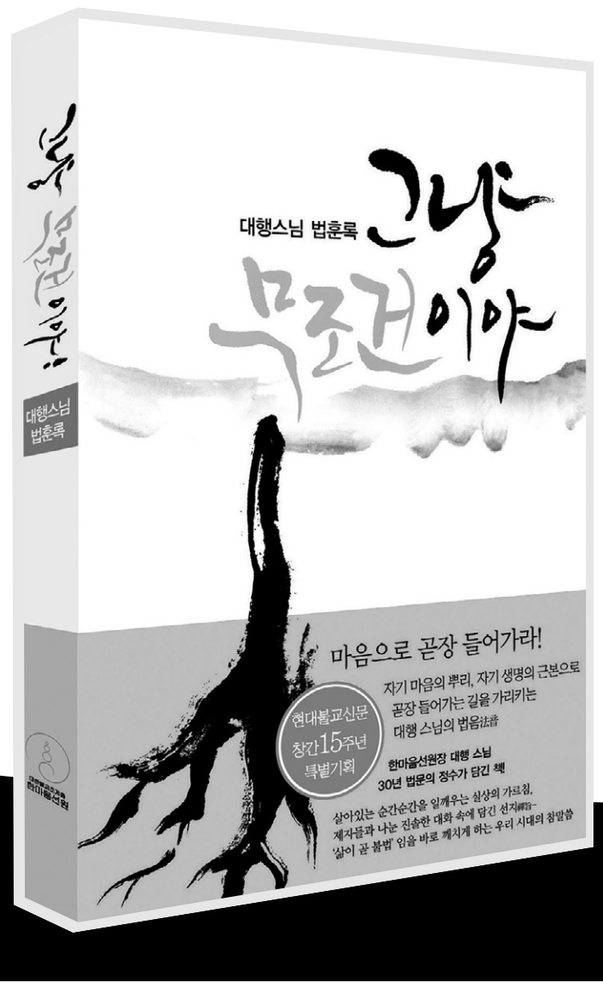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기복으로, 타력 신앙으로 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참자비를 알게 하고 참자비의 법도를 알게 하고 참자비의 중용을 알게 하고 사람 사는 법을 가르치셨다 이겁니다. 그 뜻을 가르치시고 죽고 사는 걸 가르치시고, 사생이 다 부모 형제가 있고, 또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면서 아픔을 견디고 고에서 허덕인다는 그 사실을, 뼈를 깎는 아픔을 그렇게 견디고 살아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도 여러분은 생각조차도 못해 보고, 자기 속에 자기의 근본이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어떠한 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내기 이전, 그 자체 핵이라는 것은 어느 것도 붙지 않는 자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말입니다. 이건 표현입니다. 목이 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물을 한 모금 드심) 한 모금 먹는 그 순간에, 지금 목이 타서 죽겠는데 '내가 이걸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이게 거기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지금 자식이 "엄마, 물 줘", "아버지!" 하고 지금 당장 뭐 좀 집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뭐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요. "그러냐? 아이고, 얼마나 땀을 흘렸냐, 학교 갔다 오느라고." 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지런히 그거 갖다 주는 거지요. 거기 뭐가 붙어요? 거기 무슨 이론이 붙으며 거기 무슨 잘되고 못되고가 붙습니까. 또 애가 "똥마려워!" 하니까 바지를 벗겨 주기에 여념이 없는데 거기 뭐가 붙습니까? 붙지 않는 자리, 붙지 않는 거, 바로 그겁니다. 이론이 붙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해 드려도 모르신다면, 내 입으로 10년 20년 이렇게 말해도 모르신다면 난들 어쩌겠습니까. 또 어떤 스님네들은 날더러 이단이라고 욕을 하죠. 나하곤 상관이 없어요. 허허허…. 왜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없죠. 그건 그분들의 소견이고 마음이지 나하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생각하면, 하다못해 풀 한 포기도 업신여겨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그런다고 해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 인간 도리의 진리를 배우는 데 게을리 하지 마세요

☞ 29면에서 계속

서 어떻게 업신여기겠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기 이전에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는다면 부처님 법 아닌 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유(有)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니라." 하고 가르치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르치신 줄 아십니까? "이것도 옳지 않고 이것도 옳지 않으니라.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홀랑 모두 자빠졌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느니라.' 하니까요. 그럼 뭘 배워야 합니까?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뚜껑은 그릇이고 그릇은 뚜껑이니라.' 이걸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뚱이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입니까? 한번 따져 보세요. 어떤 게 여러분입니까? 셋 중에 따져 보세요. 생명이 여러분입니까, 마음이 여러분입니까, 몸뚱이가 여러분입니까? 잘 생각하셔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서 나가셔야 합니다. 부처님 법은 언제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도 않고 마음을 산란하게 두지도 않습니다.왜냐하면 뭐든 주인공에 맡기고, 남이 때리더라도 '아하, 내가 있으니까 맞지.' 하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증오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것이 바로 좌선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하면 콧노래가 나오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화두를 들고 그 화두 끊어질까 봐 애쓰고 애쓴다면 여러분은 껍데기일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태초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 속에 또 껍데기 붙여요? 그럼 언제 벗겨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오늘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프로펠러가 일 초에도 수십 바퀴씩 돌아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거를 붙들려고 하고 마음으로 그냥 기를 쓰고 안 놓치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안 놓치면 뭘 하고 놓치면 또 어떻습니까? 그건 자기 소견이지 프로펠러는 그냥 돌아가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리석게 왜 그걸 붙들려고 애를 써요? 그냥 돌아가는 대로 순응하면서 놓지요. 여러분이 하나나 고정되게 생활합니까. 지금 고정되게 먹고 고정되게 행하고 고정되게 만나고 고정되게 똥 누고 고정되게 보고 고정되게 가고 오고 그럽니까? 죽는 것도 고정되지 않습디다. 어려서도 죽고 젊어서도 죽고 늙어서도 죽고 그러지요. 만나는 것도 그런데 그걸 왜 붙들고 있습니까, 글쎄.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꼭 부탁 한마디 할 게 있어요. 애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고 속을 썩이고 할 때, 온통 찾아다니고 들어왔는데도 욕이나 하고 밖으로만 온갖 짓을 다 한다면 오히려 애는 버립니다. 내가 아들이라는 거를, 자식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가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에 '주인공만이 저 애를 고칠 수가 있고 그 업장을 다 녹일 수가 있습니다.' 하고 딱 맡겨 놓고 겉으로는 "얘, 너 어디 갔다 그렇게 늦었니? 그 몸도 부모가 준 몸인데 소중하지 않으냐. 그렇게 돌아다니더라도 건강해야지 몸이 나빠지면 안 된다." 하고 좋게 말해 주고 따뜻하게 "배가 얼마나 고팠겠니? 어디서 뭘 먹었니?" 하면서 뭘 좀 해다 주세요. 아무리 밉고 속상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똥치는 막대기와 같은 어버이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한 번에 두 번에 안 된다 해도 그냥 물러서지 말아요. 항상 그렇게 하셔요. 또 자식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녜요. 부모가 그렇게 해 준다 하더라도 장래에는 그 자식이 자기 길을 걸어야 해요. 가시밭길이든 진창길이든 자갈밭이든, 무슨 길이든 걸어야 해요. 그렇게 가시밭길을 헤매지 않도록…. 우리는 나쁜 거 좋은 거 이렇게 상대적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나쁜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거를 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지혜를 키운다 하지만 그 고난도 알맞게 오게 해서, 그로 인해서 큰 빛을 알 수 있고 그것이 거름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을 만들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인공에다가 다 맡겨 놓고서 잘해 주면, 돌아다니다가 언젠가 고달프고…, 장창 즐거운 게 아니거든요. 즐겁게 놀다가도 너무 지치면 그때는 따뜻한 데로 기어들게 돼 있어요. "아, 난 집에 들어가. 난 엄마 보고싶다. 난 집에 들어가." 이렇게 부르짖게 돼요, 그땐. 그래서 오게 돼 있어요.

원주에서 이런 예가 있었죠. 자식 셋을 놔두고 부인이 춤바람이 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춤바람이 나서 나갔는데 아, 돈을 자꾸 솔솔 빼 가더니 그냥 집까지 다 팔아먹게 생겼어요. 이혼도 안 하고 그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도 자식들 때문에 남편은 마음이 약해져서 '딴 사람 얻느니 차라리 저 애들 엄마를 데리고 사는 게 낫지.' 하고는 그냥 가다가 보니까 이태 삼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남편이 속이 썩어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으니 이거를 어떡합니까? 차도가 없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우리 선원에 왔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여자도 나무라지 말고 아무도 나무라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몸을 쉬어 가면서 모든 건 주인공한테 맡겨 놔라. 주인공만이 네 처를 해결할 수 있다. 나가든 들어오든 이혼을 하든 그런 것은 생각도 상관도 말고 주인공만이 해결을 해 주게끔 해라." 이랬거든요. 그렇게 몇 달 가다 보니까 그 여자가 싹싹 빌고 어느 결에 들어와서 그냥 앉았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요. 그것이 뭐냐? 인간에게 자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력! 아까도 얘기했죠? 그게 조절입니다. 손자병법보다 그게 더 편안하고 좋아요. 허허허….

저는 어떻게 게을러빠지고 그런지 예전에 뭐, 비가 오든 뇌성벽력이 치든 그냥 막 억수 같은 물이 내려가든 신발이 있든 없든…, 신발 벗어 들고 다닌 사람이니까. 시발점도 종점도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종점이 있을까요? 또 진리가 종점이 있습디까?

이 지구도 그렇고 혹성도 별성도 모두가 우리 인간보다 수명이 길죠. 혹성도 모두 차원대로 수명이 길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하루면 한 달이 될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6개월이 될 수 있는 데도 있고…, 혹성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별성도 수명이 다르고 그런데….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괜히 찧고 까불려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럴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와서 아주 파괴가 될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폭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그 생각하는 대로 우주간 법계가 모두 통신이 되거든요. 그냥 통신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그걸 알게끔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물에서부터 오는 가스 종류도 수백 가지로 확산이 돼서 다르게 진화되거든요. 그러니 안개나 구름이 얼마나 많은 종류로 화해서 우리들을 이익하게 길러 내는가 아셔야 돼요. 태양도 그것을 조절을 하니까, 바깥에서 조절하고 안에서 조절함으로써 모두를 살리듯이 말입니다. 또 남편이 하는 일에 아내의 내조가 있으니까 가족이 함께 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공부를, 공부라기보다도 공부라는 이름을 떠나서 우리 인간 도리의 진리를 파악하고 배우는 데 게을리 하지 마셔요. 또 여기에 자주 오라면 "에그, 제 주인공 찾으라는데 절에는 가서 뭘 해?" 이러거든요. 여러분하고 우리하곤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 번 왔다 가시기만 해도 두절됐던 통신이 터져요. 여러분이 어떤 때 "나는 죽겠습니다." 하고선 애쓰고 있어서 턱 보면, 보이는 물질이 아닌 영령들이 같이 앉아 있는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내가 왜 이런 소릴 하느냐 하면 광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충전을 해야 공부가 더 잘되기 때문이에요, 충전.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입력이 된단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거 안됐구나.' 하는 생각이 듦으로써 거기 입력이 된단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자주 오면서 자기 정성껏 하세요. 아니, 누가 여러분한테 집을 팔아서 가져오라나, 누가 여러분한테 무슨 대단한 것을 가져오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집을 팔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태산더미나 하늘을 통째로 가져온다 해도 우리 마음의 지주하고는 못 바꿔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 지주를 잃지 말고 떳떳이 자기 성의껏, '내가 저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면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따르면서 지금 길을 인도를 받고 있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저분의 입력에 의해서 충전을 받아야겠다.' 하고 자기 성의껏…, 말 한마디라도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소? 라디오도 전지에 충전을 안 하면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고 말입니다. 가고 옴이 없이 오고 가는데 미국이라 한들 멀겠소?

아니, 이번에 뉴욕에도 안 갈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청년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공부들을 하는데 이렇게 가깝게 한국에 같이 있으면서 그냥 물러설 수 있겠어요? 지금 거기에는 박사 학위 준비하는 사람들도 모여서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뉴욕뿐만 아니에요. L.A. 또 어디 주립 대학이라나 거기도 그렇고, 그렇게 모여서 공부들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세 번씩 서로 만나서 토론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게을리 하면 안 되죠.

지금 자기 두뇌에 물이 잡혀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어떠한 괴로움이 있어도 그 도리를 파악한다면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남한테 꾸러 다니지 않고 빌리러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니까 가난한 거지 여러분 마음이 풍족하고 풍요로운데 왜 가난해요? 가만히 보면 모두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서로 얘기를 하고 이랬습니다만 얘기 듣는 걸로 끝내지 마셔요. 나는 얘기로 끝낸 게 아닙니다. 나는 전력을 다해서 길을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1989년 4월 22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도리를 잘 지키면서 나가셔야 합니다.
부처님 법은 언제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도 않고
마음을 산란하게 두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주인공에 맡기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면서
남을 증오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으며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으니까요.




불자세상보기

# 연기 · 무상 설법을 모든 甲에게



허남결
동국대학교
윤리문화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을 수행한 청와대 대변인이 현지 인턴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사건을 저지른 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난장판이란 단어가 너무 점잖아서 좀 더 생동감 있는 육두문자로 확 바꾸고 싶지만 품격을 위해 꾹 참는다. 한 개인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인해 그동안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피땀 흘려 이룩한 세계 13위의 경제국가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은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힘든 마음의 상처가 아닐 수 없다.

구어체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그것도 글로벌하게 말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을까? 속된 말로 화장발이 벗겨지자 볼썽사나운 민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고 만 셈이다.

하기야 그 대변인은 평소에도 진한 메이크업을 하고 다닌 것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24시간 내내 화장을 하고 살 수는 없는 만큼 언제 어느 때 남들에게 보이더라도 크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얼굴은 유지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와 같은 마음가짐은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이 지각없는 한 남성의 은밀한 스캔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압축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국사회가 양산해 놓은 이른바 '갑을관계'의 부작용에서 빚어진, 어떤 측면에서는 필연적 사고임을 심각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최근 잇달아 터진 대기업 상무의 항공기 내 추태사건이나 제빵회사 회장의 호텔안내원 폭행사건, 그리고 남양유업 직원의 막말사건 등은 모두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해프닝들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해외출장 중에 임시직인 여대생을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할 수 있었던 심리적 배경에는 이런 갑을관계의 비대칭성이 단단히 한몫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자면 대한민국은 각종 유형의 갑을관계로 얽히고설켜있는 도덕적 후진국일지도 모르겠다는 자괴감마저 들 정도이다.

원래 '갑'과 '을'이라는 말은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의 이름이 번거롭게 반복되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만든 지극히 편의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그것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쌍무적인 인간관계인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갑과 을은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점차 강자와 약자를 의미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본사와 대리점, 임대인과 임차인, 고용주와 피고용인 등의 불평등한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자조 섞인 말로 변질되고 말았다.

흔히 인터넷에서 갑의 횡포를 빗대어 '갑질한다'고 하거나 갑중의 갑을 가리켜 '슈퍼갑'이라고 비꼬는 것은 이런 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두 씁쓸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요즘 갑을관계와 관련하여 직장인들의 저녁 술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내용인즉 "을처럼 행동하는 갑을 '읍'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갑이나 된 듯이 거들먹거리는 을을 '갈'이라고 하는데 공무원과 대기업 임원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사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읍'이고 또 '읍'이어야 한다고 믿고 살자."

저마다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소박한 바람이자 내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인간적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말 같아서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불자들은 연기와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없다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있다. 아니 모두 그렇게 살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언젠가 갑이 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을이 갑이 될 수도 있다는 연기와 무상의 다르마는 평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거듭 일깨워준다.

문득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위에서 열거해본 갑질의 장본인들에게 연기와 무상의 부처님 법음을 들려주고 싶다는 짓궂은 생각이 들었다.

사부대중 칼럼

# 반가사유상 반출과 국격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
연구소장

문화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3월,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전시협약을 맺어 10월29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등 국보 12점, 보물 14점을 포함하는 특별기획전 '황금의 나라, 신라' 전을 열기로 했단다.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토머스 캠벨 관장이 2001년 한국에서 '신비한 황금의 나라, 신라 황금전'을 관람하고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반가사유상을 본 뒤 전시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됐다고 한다. 그러나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은 1998년 한국의 국보급 금동관(호암미술관 소장)을 전시하다가 파손시켰다는 논란이 있었다.

또한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한국 문화재 중에서도 걸작으로 꼽히는 유물로, 1960~70년대 국외 순회전시인 '한국미술 5000년' 전에 내보낸 이래 여러 차례 국외 전시에 나갔다. 7번째인 2008년 베를기에 전시로 반출될 당시에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너무 자주 해외로 나간다는 반대의사가 많았으며, 이번 4월 문화재위원회도 많은 양의 국보, 보물이 외국에 나가는 것에 대해 조절을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었다.

문제는 문화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의 행태에 있는 것이다. 마치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보는 것 같아서 몹시 씁쓸하다. 일개 박물관의 관장이 달라고 하면 다 퍼주어야 하는 것인가와 문화재 당국과 사전 협의를 먼저 한 후 목록을 작성했어야했다.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이렇게 많은 국보와 보물을 한 번에 반출하는가? 반가사유상의 경우 하나밖에 없는 국보가 너무 자주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라도 하나 밖에 없는 국보는 절대 외부 반출을 중지해야한다.

우리문화를 홍보하려면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존의 퍼주기식 홍보보다는 국격 있는 홍보를 하라는 것이다. 국보 보물을 잔뜩 가지고 나가서 쉽게 전시하는 것은 70년대나 하는 행태다.

오히려 미국의 개인, 또는 단체가 꽁꽁 숨겨두고 소장한 우리의 문화재를 세상으로 나오게 해서 전시회를 하는 것이, 힘은 들지만 가치 있는 전시회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78호와 83호가 국립박물관에서 교체 전시하는 것은, 유물을 수장고에서 좀 쉬게 하자는 것이다. 만약 문화부와 국립박물관 직원들에게 쉬지 말고 일하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더 큰 문제는 국립박물관과 업무를 협의해야 할 정부부서가 문화재청이 아니라, 문화부라는 것이다.

한 나라의 문화를 관장하는 문화부는 종친부의 담장을 헐어버리고, 국격도 없는 문화외교를 한다고 한다. 국립박물관은 문화재청을 하대하는 권위의식에 젖어있고, 합리적인 문화유산 관리에는 등한시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하다.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 전시는 자제하는 추세다. 프랑스 경우 루불박물관의 간판 소장품인 〈모나리자〉를 단 한 번 일본 전시에 내보냈을 뿐이고, 외국 전시는 주로 복제품을 활용한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도 '공인 복제품' 제도를 두어 국가공인기관에서 원작을 복제한 유물로 국외 전시를 대체하고 있다. 이태리 로마 거리에 있는 조각상은 대부분 복제품이다.

이참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은 통합하라.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재연구소와 국립박물관의 지역 국립박물관도 통합하라. 통합하면 이들은 문화유산을 관리, 전시, 활용하는 지방청이 되는 것이다.

현재처럼 국가 지정 문화재를 정부가 직접관리하고, 지역 문화재 관리에 직접적으로 지도도하고 협의도 빠르고 얼마나 효율적인 방식인가?

이제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두 기관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통합 관리하는 당당한 국가 기구로 거듭나라. 이름은 문화유산부로 하든, 박물관부로 하든 상관없다. 제발 편 가르기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합리적이고,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문화유산을 관리해주기 바란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社說

# 부처님 가르침 대로 살면 '가화만사성'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정부가 가정의 달을 정한 의미는 '사랑과 정성으로 일궈내는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자'는 바람을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지금 어떤가. 이혼과 가정폭력, 경제적 파탄 등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를 맞는 가정이 늘고 있다.

자녀들은 부모 봉양을 꺼리고, 부부 사이에 맺은 결혼 서약이 너무 쉽게 깨져버린 결과다. 특히 생활고에 부부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지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가정문화가 점점 파괴되어 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흔들리는 가정을 복원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켜야 하겠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신뢰가 가정 유지의 근간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행복한 가정의 99%는 노력의 열매"라고 하지 않는가. 위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도 시급하다. 흔들리는 가정을 복원하는 데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때다.

부처님도 〈인욕경〉에서 선의 최상은 효도보다 큰 것이 없고, 중아함 33권 〈선생경〉에서 부부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하셨고, 스승의 가르침 또한 잘 받들고 따르라고 설하셨다.

각 사회단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모두가 건강한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가정이 안정돼야 사회도 안정된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은 핵가족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덕목이다.

# 팃낙한 스님의 방한이 남긴 것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외의 유명 스님과 명상 전문가들의 방한이 잦았다. 지난해 랑스 출신의 티베트 승려 마티외 리카르와 'MBSR(마음챙김 명상)'의 창시자 존 카밧진 박사가 한국을 찾았고, 올해 1월 아잔브라함 스님이, 5월 틱낫한 스님의 방한으로 이어졌다.

특히 세계적 명상 수행자이자 틱낫한 스님의 명상 프로그램에는 나이와 성별,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지난 5월 1일 입국한 틱낫한 스님은 2일 공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일부터 4박 5일간 월정사에서, 8일에는 이틀간 중앙승가대에서 명상수련을 이끌었다. 부산 범어사와 신정동 국제선센터, 잠실 체육관에서 대중법회를 진행했다.

틱낫한 스님과 플럼빌리지 법사단이 진행하는 명상 수행 프로그램에는 한국 사부대중과 시민과 이웃종교인까지 대거 몰렸다. 스님은 모든 문제는 '두려움'과 '화'에서 비롯되고, 이를 벗어나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참가대중에게 설했다. 또한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이 괴로움을 감쌀 수 있는 힘이 생겨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고통까지 치유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사실, 한국사회는 경쟁과 이념대립, 황금만능주의로 인한 병폐가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마음 수행의 종가인 불교가 해외 명상가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있는 상황은 아이러니컬하다. 물론 지난해 힐링 열풍으로 불교계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뉴햄프셔대 교수 혜민 스님이라는 '스타'를 배출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명상 수행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대중을 치유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한국불교는 현재 '도그마'다. 전통적 간화선 수행과 위빠사나, 대만 불교, 미국식 마음챙김 명상 등이 난립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 곳곳에 한국불교를 전하며, 수 많은 외국인 제자를 둔 숭산 스님 등과 같은 선각자가 그리워진다. 굳이 '스타'가 아니더라도 쉽고 깊이있게 불교를 전하는 스승이 필요한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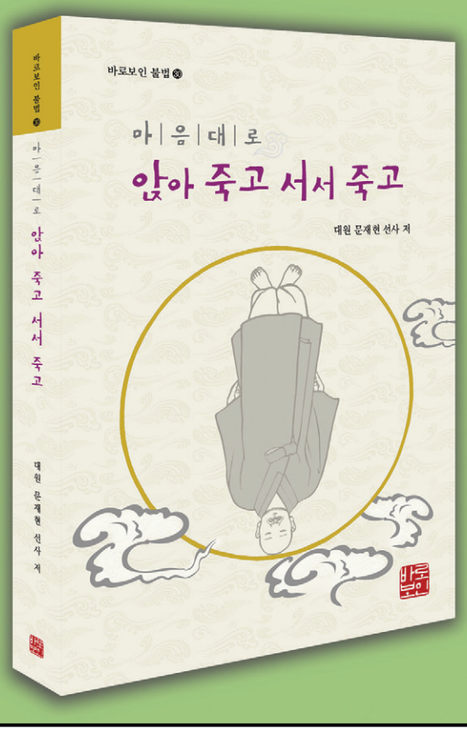
대원 문재현 선사

불조정맥 제77조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오직, 불법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이 책은 생사를 자재한 분들의 앉아서 열반하고 서서 열반한 내력은 물론 그분들의 생애와 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수록해놓았다.

부처님께서는 불가의 이러한 열반과 신통을 명예욕이라고 하여 밖으로 들추지 말라고 하셨다. (중략)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일러두기 중에서...

##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 - 59권(30종)




바로보인 전등록 전 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 30권 중 21권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주머니 속의 심경 / 바로보인 법성게 / 달다 / 기우목동가 / 초발심자경문
방거사어록 / 실증설 /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 불조정맥(한영중 3개국어)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108진참회문(한영중 3개국어)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죽고 서서죽고

전질 구입시 20% 할인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바로보인 ☎ 031-534-3373 / 010-9043-1016

#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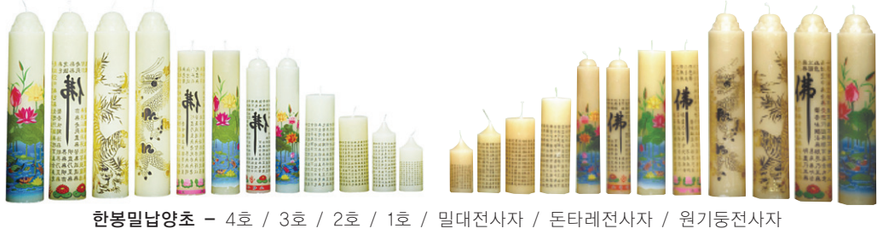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3×6사군자 (7.4∮×14.5cm)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cm)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cm)


**한봉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레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야광 연꽃초

###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예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